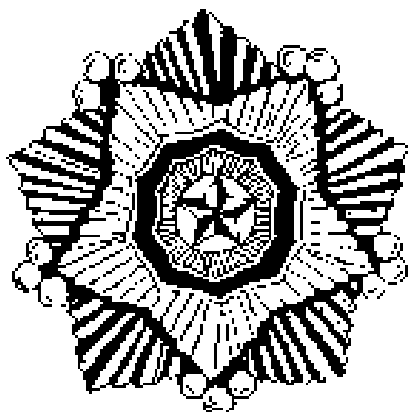


6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6호

(루계 제 692 호)

◆◆◆◆◆◆◆◆◆◆

## 차 례

◆◆◆◆◆◆◆◆◆◆

웃자락소리 .....	3
통일의 노래 .....	6
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다 .....	7
젊은 병사 고향마을 지나가네 .....	9
숙영지의 저녁 .....	10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	17
밤 10시 .....	17
장군님의 기쁨 .....	18
아, 그날은 .....	19
새벽에 있는 일 .....	20
장군님 계시는 평양아 .....	20
현실체험이 낳은 열매 .....	21
그도 몰랐네 .....	22
장수산기행-사랑의 열두굽이 장수산 .....	23
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 .....	33

원군, 원민의 나라.....	37
유모아.....	38
감자꽃바다가 설레인다.....	39
노래하는 꽃바다.....	39
주체문학의 대강.....	40
연백벌의 해질녘.....	40
이 봄날, 이 가을!.....	41
선군시대 숨은 영웅에게.....	41
봄은 가을에서.....	42
성구, 속담.....	43
운 명.....	44
먼길을 가는 사람들.....	53
피묻은 망치.....	54
전쟁을 멈추게 한 스위프트.....	55
작은것으로부터 큰것으로!.....	56
초불바다.....	61
발걸음.....	62
젊어지는 교단.....	69
증오의 불길로써.....	77
나의 따발총.....	77
포차운전사와 샘물처녀.....	78
니콜라이 와쉴리에비치 고콜리.....	79

## 웃자락소리

김명익

1

눈이 내린다  
서리서리 흰 눈발에 실리어  
이발도 내리고  
하염없이  
새월도 내리는듯

저 련광정 아래선가  
대동강이 얼어터지는 소리  
평양역사의 시계종소리도  
자정 2시를 울리는데...

이밤,  
유난히도 이 마음결을 흔드는  
류다른 음향에  
내 조용히 창가로 다가서노라

설달의 오가는 눈바람 소리런가  
아득한 철령의 바람결에 나뭇기는  
그 웃자락소리인 아닌지?!

어쩌랴, 분명 나의 귀가를 치는  
천리전선의 메아리  
령장의 야전복이 날리는 소리여!

이 한밤도  
이해의 설달 그믐날 눈마저 다 맞으시며  
그이는 전선길, 최고사령부에 계시려니  
이 가슴 젖어드누나

그해도 정월  
피눈물의 언덕을 내려  
다박솔초소를 찾으시며  
우리 장군님  
인민앞에 입으신 못잇을 야전복  
오늘토록 벗지 못하고계시지 않느냐!

온 한해라

혁명의 최전선에 계시며  
우리 장군님 입고계신  
한두겹의 수수한 얇은 옷을  
이 땅의 천만군민은 목메여 지어 불렀더라  
우리 아버지의 야전복이라고...

솟는 해 지는 달에 물어보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우리의 선군세월에  
이 강산이 얼마나 변했더냐  
아마 수십번은 더 천지개벽 하였으니

하건만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차림만은  
그 어이하여  
사뭇 변함이 없더냐

말하더라  
이 나라 사람들은  
그이의 야전복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아버지의 천만고생  
어이 다 천추에 잊겠느냐고...

흐르는 세월에 붓을 적시며 또 적시며  
슬하의 인민들  
그이께 진정의 글월을 올리였나니

-아버이 우리 장군님!  
이 나라에 백성이 없습니까  
필필이 비단필이 없습니까  
어쩌면 장군님께서  
오동지설달에도  
그처럼 얇은 보통옷만 입으셔야 합니까

이 강토 사람들이 자자손손  
하늘로 모시고 받드는 단 한분  
만민의 해님이신데  
늘 옥체에

찬바람이란 찬바람 눈서리란 눈서리는  
다 맞으시게 하였으니  
이런 백성 천만인들 뭘 하겠습니까  
...

최고사령부에 붙인 이 편지  
인민의 위대한 동지  
그이의 회답을 받아안던 날  
또 한번 흐느끼지 않았던가 온 강산이

-그 진정에 고맙습니다  
인민의 그 마음속에  
**김정일**이 있기에  
엄동설한에도 언제한번 추운줄 몰랐습니다  
수령님도 한평생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선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입는  
이런 옷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아마 일생  
이 옷을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득히 해와 달이 흘러서 세월이라더냐  
이 땅의 선군나날이여  
너는 사시절 눈비에 젖는  
그 옷자락에서 흘러 흐르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이의 야전복우에  
선군세월의 눈비가 다 내리였구나  
눈서리를 녹여  
봄의 훈향을 뿌려준 옷자락이여

끝없이 달리는 야전차 차창에서  
삼태성은 기울고  
새벽별이 솟을 때이면  
저 하늘의 새벽별을  
삼백예순다섯날  
제일 먼저 보시며  
장군님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곤 하시었다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가고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

그이 사랑하시는  
이 노래와 더불어  
이 서정과 더불어  
전선길의 낮과 밤은 이어졌거니

우리 장군님도 인간이시다  
허나 인간이 누릴수 있는  
모든것 다 마다하시고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주길 바라시며  
불같이 사신다, 혁명을 하신다

언제였더냐, 그해도 저물어  
눈바람이는 그날도 저무는데...

전선에서 발전소로 가시던 길  
어느 기관을 돌아보고  
그이 떠나시려는 참이었어라

현관을 나서시던 장군님  
여기서 잠깐 리발을 하고 떠나자고  
뜻밖에 이르신다

《장군님! 인차 날이 저물겠는데...》  
산촌의 지는 해를 바라보며  
여기엔 리발실이 따로 없다고  
일군들 말씀드리는데

《리발실이 따로 없으면  
여기 복도에서 합시다  
의자를 내다놓고 말이요  
화선식으로, 허허허...》  
그이는 환히 너그러이 웃으시는데  
하냥 송구스러움은 산처럼 쌓이고

《워낙 복도가 너무 추워서...》  
일군들은 시려드는 손을 비비여라  
《동무들, 일없소  
인민을 만나러 갈 때에는  
리발을 꼭 하고 가야 합니다!  
나는 인민을 찾아갈 때가  
제일 기쁩니다.》

리발을 다 하시고  
 슷눈길 백리길 찾아가 만나신  
 그들은 산중의 사람들  
 네명의 중소형발전소 로동자였나니

진정  
 인민이 그이를 받드는것보다  
 령도자가 한평생 인민을 더 받드시는  
 이것이 우리 세상이거니  
 이 세상 또 있으랴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이

고생은 내가 하고  
 락은 인민이 누려야 한다고  
 그 길에 이 옷을 입고  
 이해도 빨찌산을 하였노라고  
 그이 력사의 추억도 깊으실제

펼 펼 나뭇기는 야전복자락에서  
 따듯한 봄벌이 내리고  
 일만가지 꽃들이 강산에 폈더라  
 이 땅의 오품백과가 무르익었더라  
 강성부흥 아리랑이 솟아올랐더라

오, 이 땅의 사람들 내남없이  
 한생의 잊지 못할  
 선군의 나이들이 들었더라  
 이 나날에  
 가장 빛나는  
 삶의 자서전들 썼노라

## 2

이밤,  
 유정한 옷자락소리  
 나는 성산 백두의 바람결에서도 듣는다

강토 삼천리의 북변, 제일 추운 곳  
 정다운 동구길  
 산딸기 무르익는 언덕  
 봄의 살구꽃 피는 마을 하나 없는  
 하늘아래 백설강산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소생의 봄을 안고 은인은 오시였나니  
 내 나라의 봄은 백두산에서 온다더라

북변, 머나먼 곳  
 모닥불이 타오른다  
 밀림의 밤이 타오른다  
 손수 그이 피우신 모닥불가

백두고향집의 군용밥통이런가  
 휘휘- 김서리는 밥통에선  
 생눈이 녹아 끓고  
 저녁끼니인양 감자도 굽는데  
 태고연한 숲을 흔드는 호탕한 웃음소리여

...  
 저 모닥불  
 충  
 눈보라는  
 내가 유년시절 여기 밀림에서 사귄  
 백두산의 벗들이지  
 내 평생 작별 못할 벗들이요!...

수립엔 화광이 충천하고  
 그이의 야전복에선  
 흰김이 피여올라라  
 장장-  
 천만리에 휘몰아친 비바람 눈서리가  
 이밤 다 녹아내리는가

밀림의 밤.  
 어디선가 빨찌산들의  
 《사향가》도 들리여오는듯  
 그이의 옷에선  
 아직도 김이 피여나는데  
 그 얼마만이라  
 우리 장군님 쪽잠에 드시였구나  
 천고의 고향산, 백두의 품에서...

이렇듯 가시는 길 오시는 길들에  
 이 땅의 첫눈은 년년이  
 장군님 어깨우에  
 먼저 내리고  
 줄기줄기 백두령봉의 장설도  
 령장의 야전복우에 다 쌓이는듯

정녕  
 선군세월 그이는

백두산에 계셨다!  
 선군혁명의 최고사령부는  
 백두밀영에 있었다!  
 항일의 김대장이 계시던  
 옛 빨찌산전구, 사령부밀영지에

우우- 이밤  
 천리수해가 파도쳐오는듯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만리대공을 치닫는  
 천산성악의 눈보라에  
 조선의 장군 야전복이  
 기폭인양 나뭇겨라  
 그리도 눈보라와 야전복은 한빛인가  
 우러르면  
 아아한 백두령봉과도 한빛이구나

그렇다  
 야전복 날리며  
 세월을 휘감으며  
 천만리를 장정하시는  
 그이의 발걸음소리에서  
 사람들 력사의 뒤흔음을 들었나니

거룩한 그 자취를 따라  
 세월이 흐르고  
 력사가 흘렀다  
 천신만고의 그 자욱자욱을 이으면  
 이 땅의 한해, 세세년년이 되리  
 내 조국의 선군력사가 되리

## 〈가사〉

삼천리 내 조국이 허리뭉치워  
 숨막히는 날과 달 반세기가 넘었다  
 못살아 이상 더는 갈라져선 못살아  
 6. 15공동선언 받들어 통일을 이루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운  
 우리 겨레 너와 나 한모습이 아니나

아-  
 천추에 빛발치는  
 불멸한 **김정일** 장군사가 되리라!

우리는 선군시대 사람들  
 이 시래에 인생을 누린다는것은  
 더없는 행운! 타고난 장군복!

우리 그이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낮과 밤을 잃은 날  
 우리 그분의 영상을 뵈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해를 보지 못한 날이려니

선군의 이 하늘아래 사는 한  
 우리 **김일성**민족의  
 가슴가슴에서는  
 언제나 해가 지지 않으려

보아라!  
 정일봉 하늘가에  
 21세기의 폭풍을 부르며  
 세계를 굽어보시는 **김정일**장군  
 약진하는 그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현대 조선의 모습이 아니시런가!

야전복이 날린다  
 절세의 명장의 야전복이 날린다  
 오,  
 그 옷자락소리  
 선군세월의 메아리여!

## 통일의 노래

박강윤

못살아 이상 더는 이제 더는 못참아  
 6. 15기치따라 힘합쳐 통일을 이루자

선군조선 한겨레 아리랑민족  
 북과 남이 하나되어 그 이름 떨쳐가자  
 뭉치자 한데 뭉쳐 통일소원 이루고  
 래양민족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가자

## 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다

류수촌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정진평은 아이들에게 자주 세계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한때 청운의 뜻을 품고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뛰어난 정진평은 민중의 잠을 깨우는 계몽운동에도 몰두해보고 화승대를 잡고 독립군을 따라다녀보기도 하였으며 《빠리콤포문》이요, 《쏘베트》요 하는 귀에 선 말을 웨쳐대는 장발의 행세군들에게도 기웃해보았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방해버린 조선을 다시 일으켜세울수 없다는 눈물겨운 결론을 내리고는 이곳 류수촌에 눌러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것으로써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달래고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골수에 사무친 해방의 뜻만은 버릴수가 없어 아이들의 녀속이라든 그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심혈을 다 바쳤다.

그 씨앗에서 하루빨리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알찬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정진평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두 뛰어난 인걸이 되어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세상력사를 다 들추어가면서 이름난 위인들과 명장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하였던것이다.

우리 나라의 명장들인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은 말할것도 없고 히랍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아와 로씨야의 력사에 나오는 쑤워로브 꾸투쵸브,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고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등 이야기해주지 않은 명장, 명인들이 없으며 그것도 한번만이 아니라 두번세번 곱씹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이날도 정진평은 어느 한 나라의 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불쑥 일어나서 그의 말허리를 툭 꺾어버렸다.

《선생님,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호걸들, 명인, 재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가운데서 누구를 따라야 왜놈들을 쳐부시고 우리 나라의 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까?》

대답이 궁해진 정진평은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문득 항간에서 떠도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향

일유격대를 이끄시고 왜놈들과 싸우고계신다는 이야기였다.

**김일성** 장군님유격대는 여러가지 신기한 전법으로 적들을 쥐락펴락하며 마음대로 다스리고있으며 유격대가 전투를 벌린 곳에 가보면 항상 왜놈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깔려 있군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원래 정진평은 교육자로서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전라도집》을 만나 백두산에서 나온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말하며 너무 신기한 이야기들뿐이어서 이게 정말인지 꼭 알고싶다고 한적이 있었다.

이 《전라도집》은 한해전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은 마을사람들을 동정해주었고 왜놈들을 내놓고 욕질하였다. 정진평과 마을사람들은 그를 마음씨 좋고 대바르며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전라도집》 사람은 백두산에서 그런 유격대가 싸운적은 있지만 지금은 모두 전멸되어 없어졌다고,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고 탄식섞인 어조로 오금을 박아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래서 정진평은 눈으로 보지도 못한 사실인데다가 또 유격대가 다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서운해있던 참이였었다.

정진평이 잠시 머뭇거리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교실문이 벌컥 열리더니 《헌병》대장놈이 머리를 쑥 들이밀었다.

《여기선 뭇들 하는가? 빨리 나오지 않구. 운동장에서 곧 불온분자에 대한 공판이 있게 된다. 빨리 나오라.》

그리고는 눈알이 표표해서 정진평을 쏘아보았다.

《지금은 수업중이요.》

정진평은 교탁앞에 서서 《헌병》대장을 마주보았다.

《나오라면 나올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아.》

《헌병》대장은 발을 탕 굴렀다.

정진평은 할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운동장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운동장으로 나온 아이들은 정진평을 둘러싸고 곁에 붙어서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마치도 엄지닭의 품속에 파고드는 병아리들처럼



저저마다 더 선생의 가까이에 들어서려고 애쓰면서 불안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진평은 그애들의 눈길에서 이 순간에도 누구를 따라야 저 악독한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을수 있느냐고 묻고있음을 느꼈다.

기마대들과 총을 든 군대들이 삼엄하게 둘러싼 운동장에는 강제로 끌려나온 사람들로 가득찼다.

재판석에는 경찰서장도 나오고 관동군사령부에서 파견되었다는 《선무공작대》대장도 앉아있었다.

손에 쇠고랑을 찬 농군 하나가 피고석에 끌려나왔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는지 그의 온몸은 피투성이였다.

그는 류수촌집단부락에 살고있는 사람이었는데 한달전에 유격대의 집을 지고 따라갔던 일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었던것이다.

《피고는 **김일성** 유격대의 집을 자진해서 지고 갔을뿐아니라 <유격대의 총알은 왜놈들만 골라서 맞힌다.>느니 <**김일성** 장군님은 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데 왜놈기관과 왜놈네 집만 골라서 태운다.>느니 하는 불온사상을 선전하였다...》

재판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그러자 《헌병》대장놈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헌장갑을 낀 손에 긴 칼을 지팡이처럼 짚고 거만스레 소리를 질렀다.

《조용하랴. 공산유격대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산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고 총에 맞아죽고 다 없어졌다. 그리구 유격대의 총알이 일본군대만 골라서 맞힌다는것도 저놈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헌병》대장놈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피고석에 앉아있는 농군에게로 몸을 돌렸다.

《공산유격대의 총알이 일본군대만 딱딱 골라서 맞히고 집도 일본사람의 집만 골라서 불태운다는건 꾸며낸 거짓말이라는것을 네입으로 실토를 해라. 그러면 용서해준다.》

그러나 농군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킬뿐이었다.

《나쁜놈의 새끼. 이래도 실토를 안할테냐?》

약이 오른 《헌병》대장놈은 칼을 쪽 뽑더니 농군의 목을 겨누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땅!》 아무진 총성과 함께 재판석에 거만하게 틀고 앉아있던 재판관놈이 뒤로 벌렁 자빠졌다.

뒤이어 총소리가 물방으로 터지고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유격대가 달려왔던것이다.

급해맞은 왜놈들은 운동장에 가득 모인 인민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유격대는 인민들을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학교운동장에서는 마을사람들과 왜놈들이 뒤범벅이 되어 돌아갔다. 이런 판에 아무리 신비로운 유격대총알인들 어찌 왜놈만 골라 맞힐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복새통에서도 유격대의 총알은 정말 왜놈만 골라가며 쓰러뜨렸다. 유격대의 총알이 딱딱 왜놈들만 골라 맞히는 바람에 겁에 질린 《선무공작대》대장놈은 정진평이 있는데로 달려와 아이들속에 쑥시고 들어갔다.

《어마나!》

아이들이 놀라서 흩어지는 순간 총알 하나가 날아와서 그놈을 맞혔다.

이런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는 사람들은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천하술법에 도통하시였을뿐아니라 만백성을 극진히 아끼시는분이라고 탄복을 금치 못했다. 마을 뒤쪽 언덕을 바라보니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에서 증오의 빛이 번뜩이는분이 전투를 지휘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왜놈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을 내리시자 왜놈들의 병영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더니 뒤이어 왜놈기관과 왜놈집들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솟구쳤다.

세찬 바람을 타고 하늘높이 솟구치는 불길속에서 왜놈기관, 왜놈집들은 순식간에 재가루가 되고말았다.

이때였다. 마을사람들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어마나! 저걸 어찌나!》

세차게 휘몰아치는 불길때문에 왜놈네 집과 추녀를 가까이 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집이 위험하였기때문이다. 시뻘건 불꼬리를 마구 휘둘러대며 왜놈의 집울태워버리는 불길은 추녀가 마주 닿을듯 한 조선사람들의 집에도 당장 불을 달려는듯 날뛰면서 불씨들을 마구 휘뿌려던졌다.

온 마을이 당장에 불바다로 변할것만 같아 사람들은 가슴이 한줄만 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근심이였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다.

하늘에 날아올랐던 불씨들은 왜놈들의 집에만 날아내리고 조선사람들의 집에는 아무리 가까와도 날아내리지를 않았다.

《우리 장군님의 술법은 참으로 신령스럽기 그지없구나!》

정진평은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으며 탄성을 올렸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알에도 령을 내리시여 백

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미친듯이 날뛰는 불길에도 령을 내리시여 왜놈들의 집만 골라서 태워버리도록 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정진평은 오래도록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그 천변만화하고 신묘한 술법 하나하나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하늘같은 뜻이 맥맥히 흐르고 만백성을 친혈육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해빛같은 은정이 넘쳐나고있으니 어찌 천하가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성인으로 높이 떠받들지 않으랴.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와 겨레를 구원해주실분은 유일하게 우리 **김일성** 장군님뿐이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눈시울을 적시던 정진평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자기네와 제일 가깝게 지내던 《전라도집》에 불이 달렸기때문이다.

《장군님! 저 집은 마음씨 무던하고 왜놈들을 미워하는 좋은 사람네 집이오니 제발 불을 거두어주소이다!》

정진평은 황급히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려가 이렇게 아뢰려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뜻밖에도 불길에 휩싸인 《전라도집》에서 《헌병》대장놈과 주인이 뛰쳐나왔다.

《앗!》

정진평도 마을사람들도 입을 딱 벌렸다.

《어느새 저놈이 저 집에 숨었던고? 저 집에 불이 달린 까닭이 그때문이였구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설레었다. 우리 장군님의 술법은 누구도 당하지 못하겠다고 법석을 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신이 쑥 나갔지. 그 악귀 같은놈을 숨겨주다니...》

정진평은 《전라도집》주인이 체포되어 오는것을 보고 가슴이 저린듯 탄식을 하였다.

그런데 이젠 또 무슨 소린가!

《진평선생, 이놈은 왜놈들이 박아놓은 밀정입니다.》

유격대원의 말을 듣는 순간 진평은 정신이 핑-돌았다.

밀정놈을 좋은 사람으로 잘못 보아온 놀라움도 컸지만 농사군의 허울을 쓰고 기여든 놈까지 알아내어 집을 불태워버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묘하기 그지없는 술법에 더욱 놀랐다.

드디어 왜놈들은 몽땅 녹아났다.

유격대를 맞이한 마을은 온통 환희와 감격으로 끓어번졌다.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에워싸고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들고 웃었다.

바다처럼 설레이는 군중들앞으로 《헌병》대장놈이 끌려나왔다.

이번엔 재판장에서 《헌병》대장놈의 칼에 목이 날아날번 한 농군이 그에게 따졌다.

《어떠냐? 이젠 네 입으로 말해봐라!》

《헌병》대장놈은 머리를 떨군채 중얼거렸다.

《당신의 말이 옳았소. **김일성** 장군님은 하늘이 낸 분이요.》

정진평은 한껏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아이들에게 웨쳤다.

《애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누구를 따라야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을수 있는가고 물었지?》

내 이제는 똑똑히 대답해주마.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영웅중의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충심으로 받들어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라야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

아이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지흥길

## <가사>

# 젊은 병사 고향마을 지나가네

전완식

백살구꽃 향기속에 아름다운 선경마을  
젊은 병사 기쁨속에 바라보며 행군하네  
들려갈가 만나볼가 마음먼저 달려가도  
발걸음을 앞세우며 고향마을 지나가네

보고싶던 동생들이 행군대오 바래주며  
해빛밝은 창가에서 손저으며 웃으리라

안아줄가 쓸어줄가 깊은 정을 남겨두고  
진군가에 발맞추며 고향마을 지나가네

잘있거라 정든 산천 다시 오는 그날에는  
장군님의 축복속에 영웅되어 돌아오리  
춤을 추는 칠색송어 피어나는 염소구름  
젊은 병사 품에 안고 고향마을 지나가네

## 숙영지의 저녁

최학수

(참, 별사람들이라니까... 저리나 가볼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설수야 없지.)

어제 산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만나서 자진하여 길안내를 맡아나선 윤순화로인은 청봉에 도착한뒤에는 할 일이 없었다. 유격대원들은 로인일행이 쉬게 될 품막을 치는 일에서마저 그들을 늙은이라 하여 손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활기로 흥성거리는 밀림속 여기저기서 도끼소리, 톱소리, 삽소리가 들린다. 어느 대원을 보나 림름하고 짙짙하고 미더웁다.

(저 사람들을 봐, 우리 조선군대들을 보란 말야. 저 부리부리한 눈서건, 환한 얼굴서건! 허, 거충두 많은걸...)

윤로인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서럽고 통분한 일이 생길적마다 늘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 유격대를 동경했던 로인이다. 머슴살이를 집어던지고 압록강 가까운데로 울적에도 뜻이 있었다.

이태전, 장보려 갔던 처와 박서방이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를 쳤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품속에 감춰가지고 온 포고문을 보았을 때 윤로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갓은 천대와 착취에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 일제놈들이 하는 것이며 떠벌이는 소리는 날을 따라 더욱 역겨웠다. 유격대는 《토벌에 녹어나고》 그 조직은 《일망타진되였다》느니 뭐니 하는 선전을 들을적마다 믿지는 않았으나 저으기 침울해졌다.

한번은 (지난 겨울이었다.) 그따위 소리를 지껄이며 조선로동자들을 찍하면 치군 하는 채벌공사주임 아라이의 채찍을 빼앗아 분질러버렸는데 그것은 참을수 없는 울분때문이었다.

희열에 찬 소식은 이해 초봄 돌연히 날아들었다.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거느리신 대부대가 다시 나타나 왜놈들을 죽치고있다는 소문이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윤로인은 무릎을 쳤다.

그랬던 그가 어제 몇몇 로동자들과 함께 유격대를 만났으니 자진해 길안내를 맡아나선것은 당

연했다. 아니 그뿐아니라 이번 기회에 꼭 이 사람들을 따라가리라고 맘먹은 윤로인이다.

(이분네들이 여기 이렇게 다시 나타났는데 왜놈들은 유격대가 《전멸》됐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악독한놈들 같으니라구.)

윤로인은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제처럼 또 한바탕 춤이라도 추고싶게 어깨가 움쉴움쉴한다. 그는 걸다가는 멈춰서고 서서는 주위를 돌아보고 혼자 웃기도 했다.

《수고들 하십니다. 허 - 우물을 파는군요.》

그는 유격대원들이 삽질을 하고있는 썰터로 다가가며 토스레웃소매를 걸었다. 유격대원들은 다정하게 인사를 받고 일을 계속했다. 물론 그들도 로인에게 삽을 주지는 않았다.

윤로인은 약간 서운해서, 그러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짜리나무가 타고있는 저쪽편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불무지우에는 몇개의 군용밥통이 주련이 달려있다. 그옆에서 군복우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녀대원이 참나물을 손질하고있다. 군모의 붉은별이며 짧게 단발한 머리며 감실감실하게 탄 동그스름한 얼굴이며 앞에 수북이 쌓인 나물을 보고있던 윤로인은 녀대원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거 먹음직스럽기두 하다. 참나물루 채를 하면 좋지.》

녀대원은 눈인사를 하고 대답한다.

《네, 그렇지만 이걸 김치를 담글겁니다.》

《김치를 담가?》

5월달에 김치란 말도 자못 귀맛을 당겼지만 김치를 담글썸 차비하는것을 보니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겠는가 하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녀대원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김치가 익자면 한 열흘은 걸리겠지? 장군님께서도 오래 계시게 되구?》

《아니예요. 저녁에 아버님도 잡수시게 될거예요. 지금 끓이는 저 소금물에 넣고 한시간쯤 뚜껑을 닫아두면 된답니다.》

윤로인에게는 김치가 그리도 빠른 시간내에 익게 된다는것이 어쩐지 야속스럽게 여겨졌다. 그것은 유격대가 빨리 떠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래두 맛이 들자면 향아리같은데다 해넣어서

열흘쯤이야 지나야지. 더구나 여긴 아직 춥구…》

그러나 너대원은 로인의 서운한 심정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예요. 맛도 제맛이랍니다.》

너대원은 웃었다. 그 눈은 새벽처럼 정기있고 정답다. 로인은 더 아무말없이 손칼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나물을 집어들었다.

《있는 따구 즐기는 마디마디 자르면 되겠지?》

너대원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난처한 표정으로 로인의 손을 보았다.

《그만두시고 쉬세요. 제가 잠간이면 끝냅니다.》

윤로인은 험상궂게 트고 갈라져 몇군데 피딱지가 앉은 자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터서 그렇지 깨끗하다우. 지난 겨울에 산판에서 이렇게 뻘었는데, 아물지 않는다우.》

《아니, 손이 어지럽다구 그러는게 아니예요. 나물은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 난답니다.》

그 말에 윤로인은 슬며시 손칼을 접었다.

《허- 그렇거니, 거야 내인들이 알노릇이지.》

너대원은 윤로인이 미안쩍어하는것을 눈치채자 일손을 멈추고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맑은 눈동자에 경건한 추억이 비낀다. 잠시 불꽃튀는 소리도 멈춘듯 조용하다.

《저두 녀성의 몸이지만 몰랐습니다. 3년전 이때쯤이라고 기억됩니다. 어느날 행군끝에 입맛이 없어하는 동무들이 있다는것을 아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참나물로 김치를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맛본지두 오래된데다가 그런 심산속에서 김치말씀을 하시니 저부터 귀가 번쩍 띄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식대에서는 아무도 참나물김치 담그는 법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몇시간후에는 행군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이제 담가서 익히려면 김치단지들을 들고다녀야 할것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구 대답한 작식대책임자나 저희들의 얼굴에 난처해하는 기색이 나타났던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책임자동무에게 담글줄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한테도 물으시면 어찌나 하구 가슴을 조이고있었는데 다들 모르니까 저에게도 물으시겠지요. 어찌나 부끄럽던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조선사람이 무슨 김치건 담글줄 몰라서야 되겠소?...> 하시며 손수 나물을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손수 다듬으셨단 말이지?》

《네. 그래서 작식대책임자가 손칼을 들고나서며 말씀만 하셔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나물을 칼로 다듬으려는 그를 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호

탕하게 웃으시면서 <동문 작식대책임자 자격이 없군. 나물은 칼로 다듬으면 쇠독이 올라 제맛이 나지 않는 법이요.> 라고 말씀하시였어요. 그때 저는 참말 무어라 말할수 없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윤로인은 너대원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어제 경애하는 장군님을 처음 만나뵈왔을 때의 감격이 다시금 새롭게 소용돌이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제 자기들, 막로동군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을뿐만아니라 아이들은 몇이며 고향은 어디며 왜놈들이 주는 임금은 얼마며 소금이나 된장은 떨구지 않고 먹는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실로 보통사람들의 일상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것이었다.

너대원은 김이 숨새어나오는 밥통의 뚜껑을 반쯤 열어놓으려고 일어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제가 유격대에 들어왔을 때에제 학습장에 이름까지 손수 써주시고 글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세상물리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윤로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긴채 발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늑늑한 분비나무숲사이로 해빛이 비스듬히 비쳐들었다. 오전에 내렸던 봄비로 일새에 맺힌 물방울들은 진주알마냥 반짝이였다.

진대나무우에서 다람쥐 한마리가 귀를 쫑긋거리며 도끼질소리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윤로인이 가까이 온것을 보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윤로인은 자기가 꽤 깊이 들어온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끼질소리가 나는쪽으로 걸어갔다. 도끼날이 번쩍 들렸다가 내려질 때마다 갓 잎이 돋기 시작한 봇나무가지에서 물방울들이 후드득 떨어지군 한다. 그밑에 한 줍은 대원이 있다.

그 대원은 약간 커보이는 모자가 눈우에까지 흘러내리자 도끼밥이 널린 땅우에 도끼를 놓고 모자를 벗는다. 그는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붉은 벌옆에 꽂은 한송이의 진달래꽃을 건드려보고 코앞에 대고 뽀뽀거리며 냄새까지 맡아보고는 혼자 씩웃이 웃는다.

윤로인은 슬며시 도끼를 들고 대원이 찍던 애기 베개통만 한 나무밑동에 도끼날을 박았다. 물오른 나무의 도끼자리는 진이 푹푹 떨어질것 같이 생생하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그 대원은 황황히 모자를 쓰고나서 윤로인의 팔을 잡았다.

《놓소, 이거 찍히겠소.》

대원은 할수없이 손을 놓았다.

윤로인은 숨쉬있는 벌목공이였었다. 붓나무는 몇번의 도끼질에 주위의 다른 나무들에 가지를 비비적대며 핑그르 넘어졌다.

《이번에는 어느놈을 찍을가? 없다구? 그럼 가지를 자를가?》

하지만 고집스런 그 젊은 대원은 웃으면서 할일이 없다고, 수고했다고 대답했다.

《수고는 무슨 수고겠소.》

윤로인은 웬간히 흡족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떴다.

그는 얼마간 걷다가 커다란 붓을 들고 분비나무껍질을 벗기고 그 자리에 무슨 글을 써넣고있는 유격대원들을 보았다. 거기서 그는 구경만 했지 글을 모르고있었기때문에 읽을수도 없었고 더구나 도와준다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자기가 까막눈인것을 한탄하고 50평생 업신을 받으며 살아왔던것을 회상했다.

개만도 못한 한생이였다. 오죽이나 업신여겼으면 쪽발이들이 조상대대로 물려온 윤씨라는 성마저 바꾸지 않는다고 떠들거릴가! 왜놈들은 윤 아무개라고 부른적이 없었다. 주재소에 가나 면사무소에 가나 류벌장에서건 목재관에서건 《요보》로 써별이지 않으면 턱질에 안받침되는 《오-이》였다.

그는 자기의 이름 석자만은 쓸줄 알았지만 그의 성명을 써주는자가 없었다.

(가만 있자....)

윤로인은 이끼오른 진대나무에 걸터앉아서 무슨 책인지 열심히 보고계시는 지휘관인듯 한 한분의 뒤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이런데서 보시는 사무라면 무척 중할터이지... 돌아가야겠군.)

윤로인은 방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되돌아섰다. 그러나 그만 방정맞게도 바짝 마른 삭정이를 밟았다.

발밑에서 딱- 하고 나무부러지는 소리가 고요를 깨트렸다.

(이런! 쫓겼.)

윤로인은 경솔하게 소리낸것을 뉘우치면서 그분께서 앉아계시는쪽을 살펴보았다.

그순간 로인은 정말 놀랐다. 혹시나 잘못보지 않았는가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환하신 얼굴이며 의젓하신 풍채며 후리후리한 키며... 바로 어제 만나뵈온 그이를 어찌 잘못볼수 있겠는가.

윤로인은 그분이 디름아닌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심을 알자 어쩔줄을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쪽을 돌아보시고 진대나무우에서 일어나시면서 반가운 웃음을 띠우신다.

《아, 윤순화아버님이시군요!》

《?!...》

윤로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윤순화아버님》이라고 불러주셨다?! 어제 단 한번 들으신 이름을 기억하시다니? 그리고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채벌공사주임이나 순사놈따위들마저 천대하던 품을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아버님》이라고 존대하시다니!

《피곤하지 않습니까?》

《...》

윤로인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저 가슴이 빠근하고 눈곱이 뜨거웁다. 할 말은 가슴에 차고넘쳤지만 입술은 떨리고 목은 감격에 메였다. 그는 가슴에 한손을 얹고 눈만 연신 껌벅이였다.

《나한테 볼 일이 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윤로인곁으로 다가오셨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다른데루 가려고 하다가 그만... 제가 유격대원들에게 도와드릴만 한 일이 없을가 하구 다니다가...》

흥분한 윤로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눈을 슴벅거리며 다시 두서없는 말을 이었다.

《한데 일감을 안줍니다. 군대어른들은 저를 늙었다구 쉬랍니다. 산에서 고생하시는분들이 저희들을 만났을적에나 좀 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잘됐습니다, 자, 처리 가 앓읍시다. 내가 아버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예?!》

윤로인의 얼굴은 불시에 밝아졌다. 보통사람아닌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무리 미미한것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드릴수 있다는것은 꿈에도 바랄수 없는 영광이다.

《황송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릴만 한 일이라면 뼈가 부서진들 몸을 아끼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길안내도 그렇지만 실로 인민들의 지지와 이런 도움이 없다면 우리 유격대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었을것입니다. 이쪽에 앉으십시오. 그쪽엔 웅이가 있습니다.》

윤로인은 황송해서 몸을 웅송그리고 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다시 걸터앉으시려다가

한대원이 나무를 끌고오는것을 보시고 일어서시였다. 좁전에 윤로인이 저쪽에서 만난 대원이였다.

《그건 풍막 기둥감이겠지?》

《그렇습니다, 사령관동지!》

대원은 가슴을 펴고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을 드렸다.

아직 몸에 배지 못한 절도있는 동작과 경건하게 쳐다보는 흥안에서, 훌륭한 모자며 발그레한 량볼과 실룩거리는 입술에서도 그가 어린 신입대원이라는것과 경애하는 장군님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릴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윤로인의 입술에도 웃음이 피어올랐다.

《장대는 없소? 생나무 말구.》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드러운 어조속에는 어린가 준절함이 비껴있었다. 젊은 대원은 의아스러운듯이 눈을 껌벅거리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진달래꽃을 꽃은 모자가 그의 이마를 가리웠다.

윤로인의 입술에서도 미소가 곁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원에게 다가가시여 다정스럽게 타이르시였다.

《동무들은 조국의 진달래꽃을 보고 얼마나 감개무량해했소? 그건 소중한 감정이요, 꽃만이 아니라 나무도 사랑해야지. 앞으로 조국건설을 할 때 이 나무가 오막살이대신 새로 지을 기와집 대들보나 학교의 재목이 될지 알겠소?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산림자원을 란벌하지만 우리는 장래에 산림보호구들을 설정하구 전 인민의 재부로 될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보호증식시키며 건설에 필요한 채벌도 조직해야 할것이요. 그 신성하고도 의의있는 사업을 인민의 위임에 의해서 바로 동무가 담당해서 조직지도할수도 있소.》

머리를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보는 어린 대원의 눈에는 뉘우침과 동시에 밝은 환희의 빛을 담은 물기가 어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였다.

《사령부 풍막을 짓는데야 굳이 생나무가 아닌들 건디지 못할건 없지. 리해할만 하오?》

《잘 알았습니다.》

어린 대원은 기운차게 대답을 올렸다.

《필요이상 생나무를 찍지 말라고 하시오. 그리구 동무의 모자는 너무 크구만. 재봉대에 가서 좀 줄여달라구 그러오.》

윤로인도 고개가 수그러졌다. 무어라 형언할수 없이 몽클한것이 가슴에 차올랐다. 방금 자기도 저 나무에 도끼를 댔던것이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글을 배웠습니까?》

귀전에서 울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윤로인은 그이께서 곁에 앉으시는것을 알았다. 그는 얼결에 대답을 드렸다.

《까막눈입니다. 낫놓고 기웁자도 모릅니다.》

《이제 해방이 되면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다같이 일하고 글을 배우고 지식을 가진 진보적이며 문명한 사회를 건설합니다.》

생나무에 자기도 도끼를 댔것으로 하여 저으기 송구스럽게 앉아있던 윤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온 정신이 끌려들어갔다.

그것은 그가 늘 바라면서도 이룩될수 없다고 여겨온 세상이였다. 아니 꿈같이 사라지곤 했던 환상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왜놈들을 내쫓고 자본가도 지주도 없는 사회, 주권도 공장도 철도도 체신도 은행도 그리고 산림도 근로하는 전체인민의것으로 되며 누구나 다 일하고 다 같이 배우게 된다는것을 리치에 맞게 정해놓은 사실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틀림없지. 불을 보듯 환한 말씀을 하셨거던!)

윤로인은 리상속에 그려오던 아들의 장래를, 조국의 번영하는 래일을 자기만으로 그려보았다. 김초시네 시라소니같은 아들을 업고 강바람이 휘몰아치는 얼음판을 넘어 학교에 데려가고 공부 끝나면 다시 업어오면서도 아들에게는 흑관이 무엇인지조차 구경시키지 못했던 지난 일도 회상했다. 어느덧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린다.

《장군님, 그런 세상이 제 생전에두 볼수 있습니까?》

수첩장을 펼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손을 멈추시고 로인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인의 눈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끝없는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보시였다.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오로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만 의탁하고 있는것이다.

소년시절에 만경대고향땅을 쓰시며 다지신 맹세, 피어런 자옥자옥을 남기시며 십년하고도 또 몇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시도 잊으신적 없으신 삼천리금수강산이 밝아올 날을 마련해오셨다.

《웁니다. 오래지 않아 꼭 웁니다. 아버님 생전에두 보시게 될것입니다. 우리 혁명군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조선의 로동자, 농민의 자제들임니

다. 저 동무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놈들을 몰아낼뿐만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해 싸운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근로인민속에서 나왔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근로인민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조선의 젊은 아들딸들이 저렇게 총을 잡고 싸우고있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꼭 좋은 세상을 봅니다!》

힘있게 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음성은 어느덧 자연스러운 미소와 바뀌어졌다.

윤로인은 순간 가슴이 부풀어오르는것을 느끼었다.

감격과 기쁨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쳤다.

저렇듯 환히 앞날을 내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래사람들에게 나무 한대를 두고도 그 앞날을 깨우쳐주시거늘 어찌 저 군대, 우리 군대들이 성사치 못하랴!

(장군님! 장군님께서 계시운데 어찌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윤로인은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간 끊으셨던 말씀을 이으셨다.

《전체 우리 인민들이 유격대와 힘을 합쳐서 싸워나간다면 그날은 더 빨리 앞당겨집니다. 이 수첩에 쓴것도 바로 그런 큰 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잉크자국이 생생한 수첩장을 펼치셨다.

《들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긴장하였던 첫 기분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황홀한 심경에 잠겨 한마디한마디 새겨들고있던 윤로인은 이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제가 장군님께 의견을 드린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군님! 저는...》

윤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찌 늙은 막로동군이 도와드릴수 있겠는가! 그는 이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는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했다기보다 느끼고 벌써 일어서고있었다.

《인민의 말보다 더 귀중한게 있습니까. 나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윤로인의 두팔을 잡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면에 겸허하신 미소가 떠오르셨다.

윤로인은 온 마음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에 사로잡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겸허앞에 그는 당황할 지경이 되어 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장을 알아듣기 쉽게 끊어가시며 천천히 읽어주시었다.

윤로인에게는 조국을 빼앗기고 학대받는 민족의 운명이, 자기들 목재판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생생히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하잘것없는 이야기 속에 널려있던 생활의 토막들과 울분의 조박들이 선명하고 정연한 글줄속에서 커다란 가치를 띠고 나타났을 때 윤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로이 우러러 바라보곤 하였다.

우렁우렁하면서도 약간 갈리신듯 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음성은 어느때와 달리 엄하고도 힘있게 울렸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노하신듯 한 음성을 들으면서 윤로인은 왜놈들이 벌벌 떠는 꼴을 보는듯했다.

윤로인은 어쩔수 없는 힘에 끌려 조심조심 그리고 정중한 마음으로 자주 경애하는 장군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젊음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창창한 조선의 앞날이 보이였다.

왜놈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조선사람은 누구나 없이 우러러받드는 우리의 장군님께서 저토록 젊으시니 조선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제 조선사람은 왜놈의 노예살이를 집어던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술하에서 남부럽지 않게 오래오래 살아보리라.

《...조선동포형제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 각종 투쟁으로써 본군의 유격투쟁에 호응하라.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자! 조선형제들은 일제놈의 노예적병사에 다니지 말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나서라.》

(장군님, 어찌 장군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조선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부터 이번 길에 꼭 장군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윤로인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기 청봉에 도착하시자마자 정치공작원들을 포터리쪽에 파견하신것도, 또 청봉산마루에 올라가시여 봄비에 젖은 행진을 풀어 말리시면서 쌍안경을 드시고 몸소 이 일대의 지형과 적정을 살피시고 군용지도에 진로

를 표식하신줄도 몰랐다.

또한 이 숙영지가 일제의 침략적야망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조선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인 동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활한 지략과 현명한 방침에 의한 로정의 한 전환점이라는것도 알수 없었다. 더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며칠후 원쑤들을 죽치고 무산지구 목재소로동자들속에 보내실 뼈라와 격문을 준비하시는줄도 몰랐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거대한 사변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마련되어있음을 감촉했으며 메말랐던 자기의 가슴속에 생의 희열과 투쟁의 의욕이 넘치는것을 느끼었다.

그리하여 거대한 사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애하는 장군님 부대의 길안내를 맡아나선 자기가 난생 처음 값있는 일을 하였다는 긍지가 웅솟음치는것이었다.

어릴적부터 술한 산길을 다닌 그였지만 이번 걸음처럼 값있는 길을 걸은적은 일찌기 없지 않았던가.

《말씀하십시오. 어쩡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윤로인은 다 읽으신것을 알았다. 원쑤놈들을 단죄하실 때의 그 서리발 같으시던 눈빛이며 아까 그 젊은 대원에게 말씀하실 때의 어딘가 엄해보이던 낮빛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윤로인은 머리를 숙이고 대답을 드렸다.

《장군님, 이 무식한 늙은것이 여쭙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저 속이 씨원하고 피가 뿡니다. 그런 말씀을 더 많이 쓰시구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2년전에 보천보거리에 뿌려주신 포고를 우리는 지금도 모여앉으면 외웁니다. 인민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듯 조용히 듣고계셨다. 윤로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흥분하여 계속하였다.

《정말이지 왜놈들이 산림간수놈들을 내세워 가난한 조선사람에게는 온전한 기동감 하나 까딱 못베게하면서두 제놈들을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심은 나무를 마구 베게 할 때는 눈에 불이 나구 제 다리를 자르는것 같이 아픕니다. 나무인들 왜 서럽지 않겠습니까? 톱자리에 돋는 진물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겁니다. 이제 산림이 온 조선백성의 재산이 되면 저는 산림을 보호하는 일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심정을 말하고난 로인은 자기가 주책없이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장군님, 참말 도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진대나무에서 일어나시여 주위를 몇걸음 거니시다가 멈춰서시였다.

《이제 하신 말씀이 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로인은 황홀한 시선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쳐다보았다. 방금 여쭙 자기의 생각이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일어난 생각이였고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것이였다.

《알겠습니다. 인민들이 얼마나 우리 혁명군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하고 선전문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방금 아버지께서도 바로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판사람들의 산림에 대한 당당한 권리와 뜻있는 소원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견입니다.》

윤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몹시 기뻐하시며 수첩에 몇자 적기까지 하시는것을 놀라게 쳐다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화제를 바꾸어 이 근방 부락들과 새로 담은 《갑무경비도로》와 산들에 대해 물으시고 인민들의 형편과 적들의 포대와 초소를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부락에 《함바》가 몇채나 있으며 베개봉이나 삼지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다 알고계시였다.

《수고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첩을 접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윤로인은 자기의 말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도움이 되였다는것을 리해할수 없었다.

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근로하는 사람들을 존대하시며 그들의 말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것만 확신할수 있을따름이였다. 그래서 그는 여태 고생하면서 살아온것이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였던것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일어나서 경애하는 장군님 앞으로 다가가 깊숙이 허리를 굽히였다.

《장군님! 저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장군님을... 장군님을 뵈왔으니...》

그는 자기의 마음을 뜻대로 표현할수 없었다.

《아닙니다. 장생불로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는것도 보시고 아이들이 우리 글을 배



우는것도 보셔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인의 팔을 가볍게 잡으시였다.

《허리를 펴십시오. 우리 조선사람은 늙어서도 허리를 펴고 살 날이 옵니다. 오래 사셔서 새 조선을 세워봅시다!》

《장군님! 저두 늙은 몸이지만 싸우겠습니다. 늙었다고 조선이 해방될 때를 기다리구만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윤로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였다.

《웁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조선사람은 당당히 머리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조선사람이라고 세계에서 뒤떨어지고 짓눌린 민족으로 살겠습니까?... 그럼 가서 저녁을 잡수시고 폭 주무십시오. 가만... 손이 몹시 트셨습니다!》

그동안 풍막을 짓고 고깔불까지 피운 전령병들은 무엇때문인지 초조해서 저편 천막뒤에서 서성대고있었다.

불길은 너울거리며 윤로인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옆모습을 비쳐주었다. 로인은 자기의 트고 퍼진 손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에 닿아있는것을 그제야 깨닫고 황급히 손을 빼내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거듭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났다.

여기저기서 고깔불이 타오르고 하모니카반주에 맞춰 부르는 나직한 노래소리, 총창이 부딪치는 소리, 채봉기소리, 칼도마의 장단소리가 들려왔다.

윤로인이 그새 지은 자기들의 풍막에 돌아왔을 때 같이 왔던 로동자들은 어느새 알았던지 장군님을 다시 만나뵈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모여들었다.

윤로인은 말할수가 없었다. 가슴속에 무엇이 가득찬듯 느닷없이 어깨를 짙 벌리고는 고깔불을 물끄러미 지켜볼뿐이였다. 그러다가도 무슨 생각에선가 깨어나서는 자기의 가슴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허리를 쭉 펴곤 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불길이 타올랐다.

모두들 로인의 입이 열려지기를 기다려 숨을 죽이고있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분이시지.》

로인의 이야기는 혼자소리처럼 시작되였다.

《그렇구말구, 허리를 쭉 펴구 가슴을 한껏 내밀구들 살게나. 여보게들 생각엔 진짜 위대한분은 어떨것같은가? 내 말을 알아들겠나? 대답해보게, 이진 참 뭐라구 하면 좋을지...》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이어 한 대원이 들어와 윤로인에게 경례를 했다. 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생나무때문에 말씀을 들은 이 전령병을 곧 알아보았다. 그는 대원의 림름하고 침착한 표정보다도 그가 쓴 모자가 벌써 머리에 꼭 맞게 고쳐진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띠우며 일어섰다.

《아까는 거 미안하게 뻘쬄다. 내가 찍은걸... 거 괜히... 어힘.》

전령병은 약간 주춤했으나 침착성은 잃지 않았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아직... 그건 제 불찰입니다. 아버님, 손에 이걸 바르십시오.》

전령병은 자그마한 병을 꺼내놓고 윤로인의 손을 잡았다.

《그게 뭐가? 내가 바르지.》

《아닙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하며 솜에다 기름을 묻혀 윤로인의 손에 바르기 시작했다.

《이진 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신 노루기름입니다. 손이 튼데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며칠 두고 바르십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약을 발라주고난 전령병은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갔다

윤로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전령병에게 인사할 것도 잊고있었다. 고깔불빛이 비친 윤로인의 손등에는 노루기름과 함께 눈물방울이 반짝이고있었다.

새 잎과 손들이 돋고있는 청봉밀립의 싱그럽고도 구수한 냄새, 노루기름냄새와 함께 시큼하고도 향긋한 김치냄새가 떠돈다.

고깔불이 탁탁 뒤는 소리와 어느 대원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신선하고도 축축한 공기를 흔들었다. 나무가지와 우듬지들사이로 별들이 보인다. 류달리 크고 밝아보이는 하나의 별이 북쪽하늘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거기에는 백두산이 솟아있으리라.

주체57(1968)년

#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박희구

이웃보다 류달리 더 가까운  
너무나 낯익은 모습들입니다  
때없이 내 자주 만나보는  
제일 정깊은 얼굴들입니다

기뻐도 찾고 어려워도 찾으먼  
그 사연 다 아는듯 반겨맞는분들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불타오르는 붉은 기발 밑에 나를 세워  
노래를 주고 새힘을 키워주는 혁명선열들

저 투사의 하늘을 향한 나팔은  
심장의 메아리로  
희망찬 나의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며 행군하는 저 투사의 눈길  
벗을 든 나의 창가에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여기 항일유격대의 모든 투사들

나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영생합니다  
저 전위투사대오의 불타는 충성의 숨결로  
하나같이 숨쉬고 약동하며 나래치는  
나의 일터 나의 도시 나의 조국입니다

눈을 감아도 선히 떠오르는  
너무도 낯익고 너무도 정든분들  
이 나라 천만인생의 피줄을  
수령결사옹위의 붉은 기발에 이어주고  
위훈으로 빛나는 충성의 자욱으로  
후대들을 이끌어주는 혁명1세대들

이 땅우에 태어나고 또 태어날  
나라의 미래들도 혁명가로 키워줄  
영원한 혁명의 모습이어서 늘 우러르며 삽니다  
조국이 닳고 인민이 닳는  
영원한 30년대의 모습이어서...

## 밤 10시

곽명철

바로 이 자리구나  
못잊을 그밤 10시  
보천보의 밤하늘을 깨뜨리며  
우리 수령님 멸적의 충성을 단호히 울리신 곳이

상상도 못했으리라  
밤 10시 그 시각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조선의 복수탄이  
제놈들의 아성을 벌둥지처럼 파헤쳐놓을줄은  
가슴에 쌍이교쌍인 원한이  
마침내 화산마냥 터져  
제놈들의 소굴을 불바다로 만들어놓을줄은

밤 10시  
아직은 밝아올 려명이 멀리에 있었건만  
그 시각 일제의 발굽아래 신음하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엔  
백두에서 밝아온 해방의 서광이  
찬연히 비끼기 시작했나니

밤 10시  
바로 그 시각에

그처럼 기고만장하여 날뛰던 일제가  
운명의 사형선고를 받았더라

밤 10시  
바로 그 시각에  
환희로이 이 땅에 찾아올  
해방의 8.15가  
력사에 굳건히 약속되어있었어라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건만  
바다너머 쫓겨간 침략자 일제  
또다시 제침의 칼을 갈며  
침략의 군화끈을 날마다 조이고있나니

일제와는 기어코 결산을 하고야말  
굳은 의지를 안고 사는 우리 인민  
지금 이 시각도  
위대한 선군령장이  
또다시 멸적의 령을 내리실  
그 《밤 10시》를 하루같이 기다리고있다

## 장군님의 기쁨

주체90(2001)년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북방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강도의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약동하는 공장의 혁명적열기를 온몸으로 뜨겁게 느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기대엎을 지나실 때였다.

무척 나이가 어려보이는 한 선반공청년이 문득 둘러싼 기대를 세우더니 위대한 장군님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는것이였다.

그 청년은 모자를 벗어쥐고 《경애하는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허리 굽혀 정중히 인사를 올리더니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우리는 보기 드문 닭고기와 닭알을 먹고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처 다듬지도 고르지도 못하고 가식없이 터쳐 놓은 한 노동자의 가슴속 걱정의 분출이였다.

순간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리 약속은 없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시면 누구나 다 꼭 아뢰이고싶었던 진정이였다.

눈물이 그렇그렇한 선반공청년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렇다면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그의 소박한 인사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받아주시였다.

기대의 동음때문에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동무가 새로 지은 닭공장에서 나오는 닭고기와 닭알을 먹는다고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알려주시였다.

도안의 공장들에 한 세대에서 여러명씩 다니는 집도 적지 않은데 그런 집들에는 한번에 10kg이 넘는 닭고기와 많은 닭알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공급되고있다는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공장을 돌아보시였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자강도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날이 펴 어두워져야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일군들은 첫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 단위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셔야 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얼마나 피곤하시랴 하는 생각으로 그이께 이제는 좀 쉬셔야 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요즘은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여도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오히려 힘이 솟는것 같다고 말씀하

시였다.

끝없는 정력과 열정에 넘치신 눈빛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기계공장을 돌아볼 때 어린 선반공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기대를 세우고 자신에게 찾아와 하는 말을 듣고 노동자들을 위하여 닭공장을 지어주기를 정말 잘하였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감회에 젖은 말씀을 하시였다.

평범한 노동자의 무릅없는 인사를 그토록 잊지 못하시며 값높이 받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걱정으로 설레였다.

바로 그 전날 아침 강계닭내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렇게 기뻐하시였다.

아담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건물의 안팎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평양 어느 거리가 왔다가 울고 가겠다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이 식당에서 내는 요리품종에는 자신도 맛보지 못한 요리까지 있다고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이 좋은 식당에서 닭내포요리에 술도 한잔씩 받쳐주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자금을 더 들여서라도 닭공장을 하나 멋있게 짓자고, 그러면 이런 닭내포국집이 하나 더 생겨날수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밖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닭내포국집을 다시한번 돌아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현대적인 닭공장들을 수많은 일떠세워주시고도 무엇인가 부족하싯듯 사색을 거듭하시여 닭내포국집이라는 새로운 봉사망을 전국 도처에 꾸리도록 하시고 인민들에게 더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찬바람을 맞으시며 자강당을 또다시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일군들이 이런 생각을 더듬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계닭공장 알날이직장을 돌아볼 때 닭알이 쏟아져나오는것이 정말 볼만하였다고, 인민들에게 닭고기와 닭알을 많이 공급해주시 그들이 대단히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헌신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행복관!

평범한 한 선반공의 소박한 인사말에서도 인민이 누리는 행복의 크기를 헤아리시며 더없는 기쁨을 느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 아, 그날은

김진주

그날은

그이께서 우리 집에 오신 날이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려

우리 사는 집에 오신 날이었다

그날은

그이께서 우리 학교에도 오신 날이었다

아이들의 학부형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려

그렇게 공장과 농장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나

다 찾아주신 날이었다

아, 6월 19일

우리의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은

태양과 같이 넓으신 그 품에

온 나라 인민을 다 안으신 날이었다

그날부터

진정 그날부터

그이의 사랑으로

우리 당은 더 파사로웠고

그 위대한 사랑속에

나의 운명은 더 밝게 빛났거니

나에게 숨결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뛴뛰는것

나에게 맑은 눈빛 깨끗한 웃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빛으로 아름다운것

나의 희망 나의 열정도

그 사랑으로 꽃피고 불타는것 아니던가

이 사랑 없이

내 어이 살수 있으랴

내 어이 시련의 언덕들을 헤쳐넘어

선군의 승리를 자랑하는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었으랴

천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고

천만의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당의 사랑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이 사랑을 지켜

준엄한 결전의 그날이 오면

결사옹위의 제일전사로 이 한몸 서슴없이

바치려니

아, 사랑으로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다 안아주신 6월 19일

이날이 있어

이 강산의 해와 별은 더더욱 찬란하고

승리의 세월은 무궁토록 이 땅에 흐르리라

## 새벽에 있는 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택에 계실 때면 늘 그이의 안녕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별히 마음쓰시었다.

해방후 어느 여름날에 있는 일이다.

깊은 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서 보조근무를 수행하고있던 한 보조병은 불이 환히 켜진 세면장의 창가를 주의깊게 살피며 보조교대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보조교대를 끝내면 세면장의 전등불부터 끄려는것이였다.

새벽 2시가 지나 보조교대를 끝낸 그는 걸음소리를 내며 급히 세면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정숙동지께서 빨래를 하신 듯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나오시며 보조병에게 어서 그 자리에 서라고 급하게 손짓을 하시였다.

영문을 몰라 주춤거리는 그에게로 다가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귀속말로 구두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장군님께서 방금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발뒤축을 들고 앞축으로 조용히 걸어다니라고 말씀하시였다.

보조병은 얼굴이 붉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아오신지 얼마 안되니 쉬시라는것을 자기는 왜 모르고 걸음소리를 냈을가 하는 생각으로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보조병이 잦아드는 목소리로 세면장에 불이 켜

져있기에 그것을 끄러오던 참이였다고 말씀드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참 기특한 생각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피곤하겠는데 어서 들어가 쉬라고 이르시였다.

보조병은 김정숙동지의 살뜰한 사랑에 목이 메여 밤이 펴 깊었는데 이젠 주무시라고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은 일없으니 보조병동무가 빨리 돌아가 휴식하라고 거듭 재촉하시였다.

보조병은 발뒤축을 세우고 조용히 돌아서려고 하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도 허리를 굽히시고 가만 가만 걸으시여 다시 세면장으로 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휴식에 방해가 될까 넘겨되시여 조용히 걸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리르며 보조병은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세면장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거기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빨래를 계속하고계시였다. 어찌나 조용조용 하시는지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조병은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김정숙동지께서 빨래를 하시는줄 알았지 귀로 듣고서는 전혀 알수 없었다.

10리밖의 소리도 들린다는 이른새벽이였으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안으시고 빨래를 하고계시는줄은 아무도 몰랐다.

### <가사>

## 장군님 계시는 평양아

정성환

등근달 떠오르는 강행군의 실참에  
병사들은 평양하늘 우리러 바라보네  
잘있느냐 조국의 심장 장군님 계시는 평양아  
초병들은 한마음으로 그대의 안녕을 바라네

군복은 땀에 젖고 장구류는 무거워도  
평양을 생각하면 발걸음 가벼워라

그리워라 조국의 심장 장군님 계시는 평양아  
병사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대가 있네

온 나라 품에 안은 정다운 수도여  
우리는 그대위해 불바다도 헤쳐가리  
번영하라 조국의 심장 장군님 계시는 평양아  
병사의 총대우에 그 모습 영원히 빛나리

◁령도자와 작가▷

## 현실체험이 낳은 열매

이 땅에 만발한 소설문학의 화원속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에 의하여 시대의 성과작으로 창작완성된 장편소설 《새봄》도 있다.

작가 김규엽은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을 반영한 장편소설 창작을 시작하여 여러해동안 고심하였으나 끝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창작가들의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모임에서는 지난 시기 창작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총화되었는데 장편소설 《봄의 서곡》(새봄)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작가는 불명예스럽게도 부진작가로서 누구보다도 심각한 자체총화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작가는 작품으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한다.

모임이 진행되는 기간 작가는 걸잡기 어려운 빈민속에서 모태기였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자기가 왜 소설창작에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푼득히 깨닫지 못하였다.

주체61(1972)년 9월초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회의에 참석하시여 그 기간에 진행된 모임을 계속지어주시면서 문학예술전반 특히 혁명문학건설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창작가들이 개성적인 작품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들이 열정에 불타지 않고 박식하지 못한다에 있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깊이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작가는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가슴이 뭉클해났다.

현실체험, 바로 그것이였다.

자기의 소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놓고보면 토지개혁이라는 거창한 변혁과정에서 생동한 산 인물들의 형상으로 안겨오지 않는다는것이었는데 이것은 작가가 현실체험을 깊이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다.

사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농촌에 현실

체험을 나가기는 하였으나 리당위원회나 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아니면 작업반선전실에서 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아 신통한 이야기거리만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니 구수한 땅냄새 풍기는 소설을 쓸수 없었다.

현실체험을 깊이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작가는 새로운 결심밑에 농촌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다시금 깊이 학습하는것으로부터 새로 시작하였다.

낮에는 농장원들과 함께 모를 내고 김을 매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장편소설의 초고를 다시 써나갔다.

작가는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친숙해진 작업반원들속에서 동형근, 장과부, 문태갑 등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원형을 찾아낼수 있었으며 대장간장면을 비롯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오는 여러 장면들의 묘사도 구체적으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작가는 현실속에서 장편소설 초고집필을 드디어 끝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에게 풍치 아름답고 온갖 조건이 다 구비된 우산장창작실에서 전적으로 추고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였으며 장편소설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빨리 심의본을 인쇄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봄의 서곡》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보고받으시고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작가가 미처 판단하고 결심하기 어려운 문제의 방향도 명철하게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더 잘 살리는 문제로부터 생활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으며 작품의 제목도 내용을 한마디로 대변할수 있으면서도 농민들에게 친근감이 나고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고 생동한 표상으로 안겨오게 《새봄》으로 고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새봄》을 공화

국창건 30돛기념도서로 출판하도록 하시고 소설이 나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시어 작가로 하여금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게 하시였다.

주체67(1978)년 12월 어느날 작가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끄른 장편소설 《새봄》을 친히 읽어 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다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한시바빠

작가에게 알려주고 그를 고무격려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장편소설을 청년들이 다 읽도록 신문에도 전재하고 방송에도 내보내도록 하라고 이리시였다.

진정 작가자신도 더는 건질수 없다고 맥을 놓았던 장편소설 《봄의 서곡》은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속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장편소설

《새봄》으로 새롭게 수정완성되어 시대의 명작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 그도 몰랐네

리연희

그도 몰랐네

하늘아래 첫동네라

벽동에도 심심산골

이름없는 산촌의 분교마을에

고스란히 청춘을 물으리라고

20여년...

힘겨워도

떠날수 없었네

제가 떠나면

분교는 텅 비어버릴듯

해빛 눈부시던 저 창문들

아이들 눈동자되어 금시 흐리어질듯

누구든 해야 할 일앞에

누구보다 먼저 자책을 하며

아담하게 교실도 새로 꾸리고

창가아래 고운 꽃도 옮겨 심었네

그 무슨 힘이었던가

밤마다 운동장도 더욱 넓혔네

그날엔 몰랐네

땀을 묻어 밀거름도 듬뿍이 묻어

사과나무가지에 새움이 틀 때

아이들 가슴에도 고향의 사랑

봄싹처럼 고이 자랐던것을

사나운 눈보라 찬비 뿌려도

아이들 업고 걷던 잔등엔 땀이 흐른 그

몰랐네

고난의 날, 꽃봉오리 그 마음들 먼저 시들가

생일상을 차려주던 그 저녁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비껴진줄을

한덩이 광물표본을 찾아 수백리

하나의 동물표본을 찾아 수천리

그길에서도 몰랐네

크지 않은 교실에도 온 나라의 재부로

어린 가슴에도 조국의 자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고있는줄

수도에서 머나멀리 떨어진 고장

외진 산골마을이여도

아이들 가슴엔

아름답고 풍요하고 사랑스런 고향

크나큰 조국의 한부분으로

소중히 안겨주고싶었던 사람

그도 몰랐네

다만 해야 할 일밖에

너무도 한일 없는 자신이

시대의 영웅이 되리라고

선군시대 숨은 영웅!

오늘은 그 모든 사연 묻는 물음에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뿐

다시 묻는 사람들앞에서도

조용히 웃으며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였노라고

그는 알고있었네

영웅의 래일을 묻는 말에도

그저 아이들 이야기뿐

아이들을 위해 그 고장을 사랑했노라고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한생을 바치리라고



김형준

## 기행의 붓을 들며

언제나 시대의 첨단에서 시대를 노래하는것이 시인의 마음임은 어쩔수 없다.

그래서인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취재길에 피륙 들린적있는 장수산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창작시간의 째깍과 생활의 여가시간만 있어도 그 틈새에 예리하고 길죽한 《지레대》를 박고 마음을 뚫기쳐 기행의 걸음을 놓게 한 10여년전의 소원이 오늘에 이루어진셈이다.

그때에 내가 찾은 장수산에 대한 표상은 높은 벼랑, 맑은 물, 유정한 새소리. 조화롭게 이루어진 계곡의 열두굽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92(2003)년 6월 9일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나날 장수산의 열두굽이를 다 돌아보시고 인민의 유원지로 보다 훌륭하게 꾸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사랑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황해금강》 장수산!

오늘도 명승으로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변모될 장수산을 노래하고싶어 나는 서둘러 단풍계절 장수산을 향해 기행의 붓을 들고 나섰던것이다.

## 1. 장군님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대화폭

《장수산기행취재단》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자칭 명명한 우리들의 일행은 전례가 없는 집단으로

무어졌다.

황해남도 재령군 문학소조원들과 그 소조의 책임자인 현직작가 정동무를 비롯한 우리의 일행은 어찌보면 가을철의 좋은 날을 택하여 장수산으로 즐거운 들놀이가는 가정으로 보이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우리의 일행에는 학생소조원들도 있었다.

우리가 탄 빠스는 재령읍을 떠나 장수산으로 달리였다. 빠스안에는 문학신인들과 학생소조원들의 흥겨운 노래와 기지가 있는 즉흥시로 하여 흥성이였다.

하지만 취재차로 가는 나의 마음은 자못 흥분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나는 은근히 흥분을 누잠히며 장수산에 대한 자료취재수첩을 펼쳐들고 자료들을 읽어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산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우고있습니다.》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재령 지구의 명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63(1974)년 6월과 주체92(2003)년 6월 9일에 다녀가심…

…장수산은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해주쪽으로 60여리가량 떨어진 서림리에 자리잡고있는 산으로서 해발 745미터의 하늬봉을 주봉으로 보적봉, 보장봉, 관음봉 등 크고작은 산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규암으로 된 지역이 지각운동과 단층 및 침



식작용에 의하여 여러가지 모양의 봉우리들이 생겨나 금강산과 비슷하다 하여 《황해금강》이라고 불리움... 또한 옛날에 중국의 한 사신이 조선의 금강산으로 가다가 장수산경치를 보고 금강산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갔다 하여 《황해금강》이라고 하였다는 기록도 있음.

장수산은 계절마다 그 풍치가 독특하여 봄에는 《홍악》, 여름에는 《청악》, 가을에는 《풍악》, 겨울에는 《백악》으로도 불리우며 옛 문헌인 《삼국사기》에는 평과 너구리가 많다고 하여 《치악산》으로도 불리웠다고 함.

장수산은 물이 맑고 기기묘묘한 바위와 계곡미가 유별하지만 수종이 풍부하고 수림이 우거져 더욱 유명한데다가 머루, 다래, 칙덩굴들이 벼랑을 튼튼히 뛰거나 하듯 열기설기 기여오르고 골짜기 깊은 곳에는 산삼을 비롯한 약용식물이 많음...

장수산에는 너구리, 노루, 메돼지들과 다람쥐, 박쥐, 청서, 철서 그리고 새들이 사철 보금자리를 틀어 새 소리 끝없는데 우리 나라의 1종1속의 천연기념물인 《향수꽃나무》가 법적보호를 받고 있으니 장수산은 말그대로 우리 나라 중부산악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자연동식물원을 방불케 하고 있음...

《야, 다람쥐!...》하고 아이들이 차창밖으로 머리를 내어밀고 웨치는 바람에 나는 취재수첩을 펼친채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장수산입구 오른쪽에 펼쳐놓은 병풍처럼 높이 솟은 수직절벽가에 잔치날 칠보단장을 곱게 한 새색시처럼 얹혀있는 자그마한 건물이 눈에 띄는것이였다.

높이 120미터의 절벽가에 매여달아놓은듯 하다 하여 일명 《다람쥐》이라고 불리우는 《현암》이다.

누가 불가봐, 아니 누구의 손길, 발길이 닿으면 그것은 벌써 《현암》이 아닌듯이 짐승도 톱을 걸기 저어하는 아찔한 벼랑가에 자리잡은 《현암》.

건물은 작아도 그가 박혀있는-벼랑의 배경으로 하여 기묘함과 건축학적가치, 유산적의의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이 숭고하고 고상한것이였다.

이로 하여 《현암》 앞에서는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감탄의 한 감정속에 융해되고마는것이다.

이 벼랑앞에서 《아! ...》하고 웨치는 감탄사가 꽃씨앗이 되어 심혼에서 뿔겨난 **입김**에 날려가 벼랑가에 뿌리내린듯 벼랑가에 다문다문 피어난 들국화와 이름모를 가을철 못꽃들로 하여 《현암》과 그를 품은 벼랑은 미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자연의 절경앞에서 흥분을 누얹히지 못해하

는 나를 보며 정동무는 《현암》에 깃든 전설을 들려주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자연에 완전히 매혹된 나의 모습에서 자기를 함께 보려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리라.

《...옛날옛적 이 고장에 의종고 마음착한 오누이가 살았다고 하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사는 고장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꾸릴것인가를 의논하고 누이동생은 저기 저 절벽가에 그리고 오빠는 하늬산에 집을 짓기로 약속하였다네. 그리하여 누이동생은 자기의 성미대로 아찔한 벼랑중턱에 아기자기한 집 한채를 지었는데 그 집이 바로 저 《현암》이고 오빠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하늬산정점에 웅건하고 멋진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찾아가면 가는 거리만큼 멀어져 아직도 그 집을 찾아가본이 없다질 않나. 아마 귀중한것일수록 아끼려는 그 마음에서부터 생긴 전설인지 아니면 아직도 찾지 못하여서인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에 불과하지만 여기 장수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장수산에 깃든 전설들과 연혁사를 모두 들어주시고 저기 극장의 대형무대막같은 바위와 거기에 자리잡은 《현암》은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에 세워진 건축물유산으로서 금강산의 《보덕암》과 함께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관로정이 《현암》에까지 이어진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 안내와 해설을 담당한 명승지관리소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 《현암》에 오르시여 청신한 여름경치를 펼친 채령벌과 나무리벌을 부감하시면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실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 올라가보지 못하지만 후날에 오면 꼭 올라가보시겠다고 그러나 오늘 내가 올라가보지 못해도 우리 인민들이 올라가본다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다네...》

《아! 인민》...

《이민위천》을 자신의 평생좌우명으로 삼으시고 6월의 무더위속을 헤쳐 장수산을 찾아주신 인민의 아버지, 그이께서 그날 장수산 열두굽이의 첫 굽이에서 남기신 인민이라는 그 말씀속에 나도 있고 온 나라 인민이 있어 뜨겁게 젖어드는 나의 눈앞에 《현암》의 절벽바위는 《인민사랑의 열두굽이》, 《선군혁명의 빛나는 열두굽이》, 《강성대국건설실록의 열두굽이》, 굽이굽이 열두굽이가 열두장으로 펼쳐지게 될 인민사랑의 대서사시의 무대막으로 생각되였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대서사시적화폭을 보게 될 흥분을 안고 장수

산열두굽이를 찾아 첫걸음을 옮기며 시 한편을 남겼다.

### 《현암》에 부치여

누가 보면 발길 닿아  
지닌 절개 앓길가봐  
절개를 다듬은 벼랑우에  
보일듯말듯 《현암》.

고색질은 기와장은  
일고 잦던 세월의 파도인가  
울긋불긋 고운 단청은  
봄맞은 고목의 백화만발인가

가는 세월 씨실 삼고  
오는 세월 날실 삼아  
장수산이 고이 수놓은  
한송이 절개화 《현암》

지닌 미 높은 절개  
천만길손 알았던가  
기와우에 덧쌓이는건  
감탄사의 락엽뿐!

천만굽이 선군길을  
명산에 이으신 우리 장군님  
천만가지 아름다움속에  
하나를 찾아내신 《현암》!

## 2. 장군님의 평가받은 《계곡미의 녀왕》

환상과 랑만은 시인의 날개와도 같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환상도 랑만도 지어냄도 아닌 그대로의 《황해금강》 장수산의 열두굽이를 감동없인 들을수도 볼수도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 불휴의 헌신으로 엮어진 선군시대의 서사시적 화폭의 열두장으로 명명하여 노래하려고 붓을 들었다. 내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중 그 하나씩을 골라 여기에 옮겨놓은듯 한폭의 대형원경화를 방불케 하는 장수산의 아름다운 화폭!...

### 《따웅-》

나의 심혼을 흔드는 장수산 《호랑이》의 울음 소리에 놀라 앞을 보니 《황해금강 장수산》이라고 새긴 높이 5미터 뒹직한 화강석문주뒤에 대낮에도 두눈에서 불을 내쏘며 톱을 치켜든 호랑이가 우리를 마중하고있다.

백두산의 《호랑이》인가, 장수산의 《호랑이》인가. 아무튼 이 강산을 지키는 《호랑이》이니

《호랑이》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웨치는듯싶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장수산명승지에 올리는 행복의 노래와 웃음을 지키는 장수산의 파수요!》

이끼덜인 칼벼랑우에 우뚝 올라 삼천리강토를 굽어보는듯 한 모습과 서슬푸른 톱을 추켜든 자세, 우리의 행복을 침노하려 덤벼드는자가 있다면 단숨에 쳐갈겨 지구밖으로 뿌려던질듯 한 기상을 보며 우리는 탐승의 자욕을 옮기었다.

우리일행의 해설을 담당한 장수산 명승지관리소 강사는 장수산열두굽이의 첫 굽이에서 감동여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날 장수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여기에 인민들이 하루에 몇명이나 찾아오는가고 거듭 물으시면서 인민들이 찾아와야 명산이지 인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명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해설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자욕자욕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목메이면서 우리는 지난 임진조국전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전설과 투쟁기가 깃들어있는 《삿갓굴》을 지나 옛날에 룡이 하늘로 올랐다는 《룡난소》에 이르렀다.

바위는 바위마다 전설을 품고 솟아 더욱 신기해보였고 물은 물마다 전설을 싣고흘러 더욱 유정해보이는 명산에서 우리는 《룡난소》에 깃든 전설을 듣게 되었다.

...아득한 옛날 장수산을 지키는 룡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수산하늘가에서 심술 사나운 《어비악마》가 한번 마시면 300년을 산다는 《300년장수샘》을 빼앗으려고 장수산에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때 언제나 의협심과 정의감에 불타는 장수산의 룡이 열길 푸른 물이 고여 빙빙 도는 소에서 불끈 솟아올라 《어비악마》를 물리치고 《300년장수샘》을 지켜냈다는것이다. 그때 룡이 하늘로 오르면서 꼬리를 열두번 휘저었는데 그때마다 굽이가 생긴것이 오늘날의 장수산열두굽이라는데였다.

우리는 그날에 《룡이 낸》 흔적을 따라 첫 굽이를 지나 둘째 굽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오르시여 장수산경계를 부감하시였던 전망대에 올랐다.

바위중턱을 딛고선듯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벼랑, 머리들고 우를 쳐다보아도 벼랑, 지나온 굽이길과 올라갈 굽이길이 눈앞에 숨었다 나타났다 숨박꼭질하는 이 풍경은 말그대로 동화속의 요지경세계를 방불케 하였다.

그날 수천년력사가 기다려 마지않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명산의 《웃음바위》는 기쁨의 웃음을 한껏 터치고 《세심폭포》는 천길 뛰어내려 무지개를 그리니 《병풍바위》는 장군님의 안경을 바라며 《10장생도》를 펼치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기 전망대에 오르시여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시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셨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으며 그 아름다움에 하나를 보태여도 하나를 덜어도 그것은 벌써 아름다움이 아닌것이다. 내 조국의 아름다운 경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심혈을 다바쳐 가꾸신 사회주의경치인것이다.

해설강사는 그날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그려보듯 감동젖은 눈길로 두번째 굽이에 펼쳐진 황홀한 경치를 쓰다듬듯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장수산은 금강산과 칠보산과도 비슷한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장수산의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황해금강>이라고 부르면서 금강산을 동부산악지대에 군림한 산악미의 왕자라고 하면 장수산은 서부별방지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계곡미의 녀왕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장수산은 계곡미의 <녀왕>칭호를 받을만 하다고 장수산의 아름다움을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산악미의 《왕자》와 계곡미의 《녀왕》이 있는 내조국 금수강산!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르셨던 전망대에서 장수산절경을 한눈으로 바라보며 천하절경의 조국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놓고보면 지정학적특징이 인간의 성격과 외모에도 깊이 침투된것만은 사실인듯싶다.

우리 민족이 지닌 강毅한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외유내강의 우리 녀성들이 국제무대에서 받은 수많은 《녀왕》칭호는 그것을 잘 말하여 주지 않는가!

뜨거워지는 가슴을 식혀주려는듯 《향수꽃나무》 향기를 품은 장수산의 《골바람》이 선들 불어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준다.

말이 난김에 장수산의 명물 《골바람》이야기를 덧붙인다.

장수산의 열두굽이는 랑전으로 깎아 세운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솟아있어 오르는 바람이 왼쪽 벼랑에 부딪치면 다시 오른쪽벼랑이 받아넘기여 마치 바람도 메아리치는듯 하여 계곡엔 언제나 선들바람이 잘날이 없다고 한다. 그 바람세가 세지도 약하지도 않아 탐승객들의 잔등에 맺힌 땀

방울을 씻어주기에 알맞춤하게 순하고 착하게 불어 좋지만 더우기는 얼굴에 고운 화장을 한 녀인들이 땀에 뭍들여 가꾼 화장이 지워지지 않을가 은근히 신경을 쓸 필요없이 애인이 곁에서 살랑살랑 부채질하는듯 하여 또한 장수산의 《골바람》은 애인이 부쳐주는 《부채바람》이라고들 하며 사랑과 애정을 불태워주는 《사랑바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당이고, 우리는 정각을 내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셨던 자욱을 따라 다음 굽이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나 발은 내짚었으나 마음은 뿌리내렸으니 이런 난사를 어찌하랴.

길은 길마다 자석으로 되였는지 걸음을 옮길수 없고 바위마다 자석이 되어 끌어당기는지 한번 준 눈길 거둘수 없어 마음을 다잡지 앓다가는 선채로 바위로 굳어질듯싶다.

이러한 생각을 뚫으며 오르는 굽이길에 보이는 것마다 명소인데 참으로 볼수록 신통하다는 우리 장군님의 만점평가를 받은 《자라바위》와 《독수리바위》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아니본척 하면서도 누구몰래 다시 훑쳐보는 《쟁기바위》도 《피바위》도 있다.

어찌 그뿐이랴. 급히 갈길을 왜 왔느냐고 애절히 옷깃을 부여잡는 다섯굽이를 지나니 기다린듯 어서 오라 반기는 여섯굽이의 널찍한 휴식터가 다리쉽하고 가라고 우리를 부르는것이였다.

나는 그렇게도 신통한 명산의 명소들을 보고 그냥 갈수 없어 《자라바위》에 시 한편 부치였다.

### 《자라바위》에 부치여

룡난소 깊은 물속  
바위썩에 잠든 자라  
아직도 굳잠이나  
물에 들어 깨우려니

옥거울 깨어진듯  
얼른거리는 룡난소  
살펴보니 잠든 자라  
어디 숨어 없어졌노

하늘가에 올랐느냐  
고개들어 바라보니  
벼랑가 바위썩에서  
나를 보고 짹짹 웃네

장군님 너를 보고  
신통하다 칭찬하니

통난소에 몸 단장하러  
잠간 내려왔던거나

### 3. 장군님 그려주신 《12장생도》

금수들도 키워준 은인을 안다는 말이 있다.

여섯굽이에 오르면 좌측의 아찔한 벼랑에 산비둘기가 무리져 날며 못잇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구구 울어예는데 두줄기의 억센 소나무가지에 내려앉은 16마리의 하얀 산비둘기는 영원한 보금자리를 여기에 틀고 우리를 반기고있다.

여섯굽이에 형상한 산비둘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뜻하여 조각한것이다.

여기 여섯굽이에서 명산이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은 조국이 받아안은 또 하나의 사랑의 력사를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 여섯굽이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산천을 부감하시다가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재부중 재부이며 국보중 국보인 명소 《사자바위》를 찾아주시였다.

이 고장에서 한생을 살면서 산과 바위의 모양새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전설을 만들어낸 그들도 보지 못했던 명소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시었던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산의 풍격을 완전무결한것으로 갖추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우뚝 솟아난 명소 《사자》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우리의 장군님은 애국. 애족, 애민의 최고화신이시다.

애국에 불타는 눈에는 이 땅에 혼한 돌도 은금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듯 애국, 애족, 애민의 우리 장군님 인생철학을 우리는 하나의 명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었다.

오! 세월이여, 너 끝없이 흐른다 하라. 그 흐름 속에 산천도 변한다 하라.

하여 바위가 모래되고 산이 바다되는 그 세월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인민의 나라로 빛내이며 오늘의 이 영광된 천 시대를 노래하며 살것이다. 그 노래속에 장수산의 《사자바위》가 생겨난 이야기도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에게 전설이닌 혁명실화로 전해가며 살것이다!...

젖어드는 눈길로 《사자바위》를 바라보니 사자가 갈기를 날리며 석동천 맑은 물을 먹으려 벼랑을 타고 내려올듯싶었다.

그날부터 석동천마을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출근길에 《사자바위》머리를 보면 장군님 계신 곳을 알게 된다는것이였다.

《사자바위》가 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면 이튿날 아침보도에 틀림없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해 지구 어느 초소 아니면 공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사자바위》가 머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분계선초소를 찾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는것이였다.

역시 호기심이 많은것은 작가의 타성이라고 할가. 정동무는 해설강사에게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는 《독수리바위》전설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우리의 일행은 걸상에 앉았다.

이제 우리 《독수리바위》전설을 듣고 다음굽이로 가자.

《...옛날 옛적세월의 이야기랍니다. 옛날부터 구월산은 성격이 호방한 미남이고 해주의 수양산은 생긴그대로 몸집이 좋지만 또한 시기심이 많은 마누라산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이 장수산은 인물맵시 이룰데 없이 아름다운 처녀산이라고요.

어느날 구월산이 마누라 수양산을 찾아가던 길 옆에 황홀하게 아름다운 처녀가 있어 슬그머니 바라보니 그 처녀가 바로 이 장수산이였다나요...》

강사도 우스운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부터 구월산은 수양산으로 가던 걸음을 장수산으로 자주 옮기게 되였답니다.

이것을 눈치챈 수양산은 자기의 돌도 없는 심복인 수양산 독수리를 장수산에 파하여 구월산의 거동을 살피게 하고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즉시에 날아와 자기에게 알리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수양산의 심복인 독수리마저 장수산처녀의 미모에 반하여 자리를 뜨지 못하다나니 결국 <독수리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답니다...》

해학도 있고 기지도 있는 강사의 말에 배를 그리안고 웃고나니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져 우리는 다음 굽이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이 이야기의 결속은 열두굽이에 넘긴다.

전설이라고 어찌 무심히 들으랴. 명산엔 명소가 있어 빛을 뿌리고 명소는 명소마다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어려있어 하나의 전설과 해학에도 미래에 대한 낙관과 랑만이 흘러넘쳐 가슴 뿌듯해짐을 느끼게 하는 장수산은 역시 명산중의 명산이요, 절경중의 절경임을 느낄수 있었다.

《장수산의 진미를 느끼려거든 일곱번째 굽이로 오라!》고 웨치듯 일곱번째 굽이는 참으로 황홀한 경치를 펼치였다.

정교하게 다듬은 바위들을 줄치고 쌓은듯 아찔하게 솟은 절벽은 마치 평양의 광복거리나 통일

거리에 우뚝우뚝 솟아오른 초고층건물을 방불케 했다.

어찌 그뿐이라. 그 절벽틈새에 뿌리를 박고 푸른 아지를 펼친 소나무들, 그 소나무가지에 앉아 꺼깅-꺼깅 까투리를 부르는 살찐 장평의 울음소리, 절벽을 감돌아흐르는 석동천의 맑은 내물은 얼마나 유정스러운가.

경치는 거기에만 있지 않노라고 절벽을 타고 교예하듯 부지런히 쏘대는 다람쥐와 청서들도 겨울나이준비하느라 랑볼이 터지게 개암이며 도토리따위를 물고 인적에는 안중이 없는듯 돌아치는 모습 또한 장관이다.

원래 구월산은 9월의 단풍으로 유명하다면 장수산은 단풍이 그리 질지 않은 산이어서 청산에 어찌다 연하게 물들은 단풍은 녀성들이 연하게 연지를 살짝 바른 입술처럼 유정한데 그 입술을 열고 《그대 오기를 못내 기다렸노라.》하는 친근한 말소리가 청산에서 울려나올듯 하여 더욱 애모쁜 산천... 역시 일곱번째 굽이는 명산의 화랑이었다.

석비레로 다짐한 길좌측에는 하안벽에 백두밀영고향집을 형상한 《장수각》이 병풍바위를 배경으로 서있고 그 옆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장수산에 남기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전해주는 현지도사적비가 질량 42톤에 216개의 기단들로 세워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곱번째 굽이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시고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내와 해설을 담당한 일군이 아직도 앞에는 다섯굽이, 십여리의 로정이 남았으니 재령군내 인민들이 지성을 다하여 꾸린 《장수각》에 들리시여 잠깐 쉬실것을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내 인민들의 지성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꾸린 《장수각》에 내가 먼저 들어갈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먼저 들어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또다시 명승지관리소일군들을 보시고 인민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오는가, 그들이 와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고까지 일일이 물어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근로자들이 민족음식을 가지고와서 먹는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명승지를 통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 일군에게 장수산의 경치가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은가고 물으시었다.

단풍든 가을경치가 좋다는 그의 대답을 듣고나

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아니라고, 장수산의 경치는 서리꽃이 피는 겨울경치가 제일이라고 가르쳐 주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나무는 나무마다 겨울의 서리꽃을 활짝 피우려고 대지를 그리안고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앙증스레 빨듯 뿌리를 깊이 내려 땅의 즙을 세판게 빠는듯 하였다.

과연 장수산은 명산은 명산이었다. 폭과 종심은 그리없지만 백두산의 겨울미, 금강산의 산악미, 묘향산의 청신미, 칠보산의 절벽미, 구월산의 단풍미에 산천의 친절미와 인간사랑의 경치, 애국애족의 경치, 선군시대의 경치로 하여 장수산 열두굽이는 이 산천에서 우리 인민들이 천만년을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가꾸시고 안겨주신 주체시대의 《12장생도》로 보이었다.

우리의 감격은 실로 컸다. 이 감격을 그 무엇으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우리는 나무결상에 앉았다. 그리고 단 몇시간 동안에 받아안은 충격적인 사실을 간추려 정리하고싶어서였다.

이때 정동무는 나의 곁에 다가와 앉으며 말을 건넌것이었다.

《기행이 시작인데 벌써 <멀미>가 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게 내 뭐라던가. 떠날 때 인단 몇통을 가지고 떠나자고 하지 않던가. <멀미>가 날수 있다고.》

《<멀미>라니. 기자생활 30년에 차도 배도 비행기도 다 타보았지만 <멀미>한적이 한번도 없는 날세.》

《두구뵈세. 어디 <멀미>를 하지 않는가.》

옳거니, 그렇다면 이것이 정녕 무슨 《멀미》란 말이 아닌가?!

《산천 <멀미>?!》

나는 여직껏 글을 쓰고 읽으면서 멀미에 대하여 알고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물리적충동에 의해 생기는 육체의 이상으로만 알고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형상적표현으로서는 행복과 사랑에 도취된 《행복의 멀미》, 《사랑의 멀미》등의 말은 많이 쓰고 들어왔지만 그 진폭이 가장 큰 멀미중 멀미는 《산천멀미》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 《산천멀미》여, 나를 마음껏 《피롭혀》다오!

내 한생토록 이 선군조국의 《산천멀미》에 취해살도록!

그 《멀미》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여다오.

나는 일곱번째 굽이에서 시 환편을 초하였다.

## 장수산에 부치여

길은 길마다  
자석으로 되였는지  
짙은 밭이 땅에 붙어  
쉬이 뗄수 없고

바위는 바위마다  
자석되여 당기는지  
한번 보면 그 눈길  
쉬이 거둘수 없네

산천이 유정타  
마음 다잡지 않으면  
정은 흘러 바다로 가고  
몸은 굳어져 바위로 되리

에라!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지  
바위되여 굳어지면 어떠리  
바위도 내 나라의 바위요  
이 몸도 내 나라의 몸인데!

## 4. 장군님 계시여 더욱 빛나는 명산

우리는 취재의 짧은 시간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 사람을 서로 알게 하는것은 시공간이 역시 필수적인것임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오랜 나날의 생활을 통하여 친구를 알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것을 장수산취재과정에 다시한번 체념하였다.

그것은 산천이 보증하는 인간관계의 영원한 뉴대라고 말할수 있다.

산천의 보증이란 말은 어찌보면 좀 허황하고 어딘가 모르게 낭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리라.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한해계획이 농사일이라면 백년계획은 치산치수에 있다고 하였다 한다.

그것은 비록 자기대에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대들과 먼 앞날을 위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여준다.

그러니 산천을 가꾸고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애국과 매국을 갈라내는 엄정한 기준으로 보는것이 가장 정확할것이다.

나는 취재길에서 만난 재령군 미술원동무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한번

편히 쉬신 날이 있었습니까. 하여 우리 군내 인민들은 장수산명승지에 장군님을 단 하루라도 모시고싶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명승지건설에 떨쳐나섰습니다.

저 물에 약간 잠긴 10미터의 수증길을 보십시오. 저 길은 전선길 굵이굵이 먼지이는 길과 비오는 진창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장수산에 오실 때 저 수증길을 지나시면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먼지들이 말끔히 씻겨지라고 우리 건설자들이 생각하여 닦은 길입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50년대 비단필로 수놓아진 태성의 새벽길이 2000년대 여기 산천길에도 이어졌거니, 길이여! 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인민이 마음의 비단필로 수놓아온 애국충정의 천만리...

강성대국으로 이어진 억만리!...

장수산명승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령군내 전체 인민들의 로력적투쟁을 높이 평가하시여 친히 감사까지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감사를 받아안은 재령군과 황해남도안의 전체 인민들은 장수산유원지를 보다 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열두굽이 골짜기마다 돌격대의 천막이 일떠서고 천막우에 나뭇기는 돌격대의 기발은 장수산의 골바람에 힘차게 펄럭이었다.

한그루의 나무를 자연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옹벽을 쌓고 길은 에둘러야 했고 밭과로 하여 새들과 짐승들이 놀라 달아날가 두려워 메와 곡괭이로 한치한치 열어나가는 길은 간고하나 보람찬 강성대국령마루로 이어진 길이였다.

우리는 취재길에서 장수산의 경치뿐아니라 그 경치를 가꾸고 지키고 빛내여온 인간들의 억세고도 순결한 애국의 모습을 보았다.

장수산의 등산도로는 다른 명승지도로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길한복판에 교통보안원처럼 우뚝 솟아 바람에 나무가지를 흐느적이며 등산객들을 반겨주는 나무들이다.

한그루의 나무를 원상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옹벽을 쌓고 다리를 놓아 길을 둘러던 나날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깊은 사연들이 깃들어있었던가에 대하여 한가지만 전하려고 한다....

도에 회의를 갔던 군당의 한 책임일군은 돌아오던 길에 유원지건설장에 들렸다. 그것은 이미 전에 제기되었던 등산도로 한복판에 있는 나무처리문제때문이었다.

그 나무를 없애고 곧장 길을 내면 공사기일은 수십일로 앞당겨지고 자재도 노력도 그만큼 절약

되는 것이었다.

그가 도착하니 벌써 나무를 옮기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있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나무밑에 대대내 중대장들과 소대장들까지 다 모이게 하였다.

여기서 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장수산의 나무 한대, 바위 하나라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난관을 피하여 쉬운길로 간다면 결국 명승지의 가치는 손상되고 행복의 명승지는 그만큼 줄어들것이지 아닌가?!

먼후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명승지를 꾸린다면 본래의 장수산은 없어지고 다른 장수산이 될것이라고 절절히 알기 쉽게 해설설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기려는 생각만을 앞세웠던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한그루의 나무를 위해 100여미터의 생소한 길을 내기로 하였다.

개운한 마음을 안고 읍으로 돌아오던 일군은 장수산초입에서 차를 세웠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다가 길옆에서 나무가지를 뚝 꺾어 지팡이를 만들어 그것을 짚으며 걸어오는 낯익은 돌격대소대장을 보았기때문이었다.

그는 식료공장 기술공정원이었다. 그도 차에서 내린 일군을 보자 길옆에 비켜서며 꾸벅 인사를 하였다.

그는 소대장의 어깨에서 배낭을 받아 내려놓으며 어데 갔다오는 길인가고 물었다.

소대에 며칠째 간장, 된장이 떨어져 공장에 간장, 된장을 가지러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다.

땀범벅이 된 배낭에서는 장냄새가 풍기고 배낭우에는 오던길에 자기 집에 들려 터밭에서 뽑아왔을 풋마늘이 엮혀져있었다.

배낭끈이 파고들었던 어깨는 땀에 젖어있었고 터진 신발 앞코숭이엔 엄지발가락이 약간 나와있었다.

그리고 나무지팡이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은 젊은이손답지 않게 쇠살도 넘었을 사람의 손을 보는듯 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일군은 눈썹리가 뜨거워졌고 가슴이 아렸다.

아침에 떠나 100여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내쳐왔을 소대장에게 따뜻한 말을 못해줄망정 가슴아픈 추궁을 해야 하는가.

소대장은 저 장짐을 무거운줄도 모르고 걸어왔을 것이다. 오래간만에 된장을 넣고 끓인 나물장국에 된장에 풋마늘을 꼭꼭 찌어먹으며 기뻐할

소대원들을 생각하며 100여리길을 한달음에 왔을 것이다.

내가 가슴아픈 말을 한다면 저 소대장은 얼마나 실망할것인가. 더우기 나는 저 소대장을 잘 안다. 《함마공의 노래》를 지어 대원들을 고무했던 혁신자, 랑만가소대장이 아닌가.

아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한다.

그는 추궁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했다.

그는 추궁이 아니라 량심을 호소했다.

그는 추궁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했다.

《소대장동무, 아침에 떠나 돌파서 100여리를 내쳐 온 동무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꼭 말을 해야 하겠소. 동무가 지금 뒤고있는 그 지팡이나마는 어데서 꺾은 나무요. 여기 장수산의 나무겠지. 그것이 비록 동무의 손에 꺾이여 지팡이로 되었지만 그 나무의 10년 아니 100년앞날을 생각해보았소? 우리는 오늘을 위해 오늘에 사는 삶이 아니라 래일을 위해 오늘에 사는 삶이란 말이요. 동무는 장수산유원지건설돌격대원의 자격이 없소.

나는 인간적으로 동무를 용서한다고 해도 장수산이 동무를 용서하지 않을것이지요. 이 장수산에 불어보고 동무의 결심을 내리시오!》

이렇듯 혼하디혼한 한대의 나무를 두고 애국의 정을 양보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기에 이 산천의 나무들이 새겨안은 돌기들은 세월이 준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친 인간들의 애국의 마음의 돌기가 나무에 옮겨진것이 아니겠는가?!

한대의 나무에 깃든 사연을 듣노라니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

그렇게 기다리던 식량부대

아침에야 돌아왔다-

얼은것이란 소 두마리뿐

빨찌산들이 소를 잡을 차림을 하느라 썩-썩 칼가는 소리와 푸- 푸 모닥불 피우는 소리도 바람에 실려온다.

...

《늪가 소를 죽였는가?》

대장이 낮게 묻는다

...

《대장도 우리도

나홀째나 굶게 되니...》

...

《가마속의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대하가 되려나 바다가 되려나...》

천리수해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여기 장수산의  
무성한 나무숲을 바라보니 또다시 눈앞에 어려오  
는 모습이 있다.

산천이 어찌 계절맞아 저절로 무성해진다고 하  
며 도란도란 흘러가는 석동천의 물소리도 새겨들  
으면 분명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지 어찌 알겠는  
가.

산천을 사랑하라.

어린시절 네가 먹으며 자란 토방의 흙이 몸에  
내려 애국의 앙금이 되고 어린시절 고무신에 담  
아 퍼마시던 고향산천 내가의 맑은 물이 너의 몸  
을 덮히는 피가 되었으며 산천을 아끼고 사랑하  
라는 말은 네가 사는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 말인것이다.

또다시 나의 눈앞에는 장편서사시 《백두산》  
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을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정녕 조국산천의 나무 한대, 풀 한포기, 돌 하  
나라도 무심히 스쳐볼것이란 하나도 없다.

거기에 우리 선조들의 넋이 깃들어있고 혁명선  
렬들의 피가 스며있으며 전세대들의 땀이 스며있  
는 조국의 한부분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  
국을 일떠세우고 온 세상사람들이 부럽도록 살고  
야말것이다.

못사람들이 입을 모아 굴에 담고 노래에 담은  
아메리카의 아마조나스계곡이나 유럽의 장미계곡  
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한들 장수산의  
계곡에 비기랴.

아마조나스계곡과 장미계곡은 몇몇 권력자와  
돈많은자들에게 물질적부는 줄수 있어도 계곡에  
흐르는것은 타락과 변태의 탁류만이 어제든 오늘  
도 래일도 흐르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돌려보라. 석동천가에 나뭇기는 돌격대

의 붉은 기발과 산발에 울리는 힘찬 마치소리 그  
리고 비단필을 퍼놓은듯 검불 하나 없는 등산길  
우에 등산복차림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끝없는 흐  
름과 행복넘친 너인들의 치마자락 스치는 소리는  
창조와 건설,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대교향악  
의 대위선처럼 울려오지 않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화된 미의 완전결합이라고 말할수 있  
다.

《자연은 끝없는 미의 세계이며》, 《자연은 예  
술보다 더 숭고하다》 라고 옛 성인들은 일러왔  
다.

그러나 우리는 산천경계의 자연적미에 앞서 그  
것을 지키고 가꾸고 창조해내는 인간들의 모습이  
구현된 창조물만이 아름다움중 아름다움이라는  
진리를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이 땅우에 펼쳐진  
《선군8경》이 잘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행원들과 함께  
오르셨던 여덟번째 굽이에서 유원지건설돌격대의  
책임일군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보이주  
신 《무당소》를 원상대로 꾸리는 작업을 하고있다  
고 하면서 발파를 하지 않고 순수 삽과 곡괭이, 정  
날로 작업하는 자기들의 명칭을 《장수산문화총발  
굴대》라고 지었다고 우스개소리를 하는것이였다.

듣고보니 과연 신통한 형상적명칭이였다

발파해서는 더욱 안되고 망탕 메질해서는 유적  
의 원상에 손상을 줄수 있기때문에 힘겨워도 조심  
스러운 발굴작업에 심혈을 바쳐가고있는것이였다.

그것으로 하여 돌격대명칭도 그렇게 자칭 달았  
을것이다.

그들의 작업모습을 보느라니 1871년에 도이쉴  
란드 고고학자 슈리만이 뉘르그에의 서해안 히사  
리크언덕에서 9층도시유적을 발굴한 사실을 가지  
고 쓴 소설 《트로이발굴기》의 주인공들의 고심참  
담하나 흥미진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찾아낸것은 찾아내지 못한것의 그 일부이다.

명소와 유적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아득히 흘러온 태고의 세월을 향해 곡괭이와 지  
레대로 육박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애국  
의 뿌리를 무궁한 세월으로 내리려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애국심을 보게 되었다. 나라는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토대하여 생겨난다.

때문에 문화와 력사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  
니며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수산을 찾으신 날 먼  
옛날 량반귀족들이 하늘소를 타고와 취흥에 바  
위에 남긴 퇴색된 글까지도 《글쓴랑》유물로 보  
존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지 않았던



가.

장수산의 명승굽이 마지막굽이에 이르니 취재도 고조되었다.

열두굽이에 우뚝 세워진 장수산 석동려관과 농민휴양소의 아담한 모습이 명산과 어울려 마치 태고와 현재의 접경에 력사의 증견자로 선듯 하여 감개는 더욱 무량한데 강사동무는 저 멀리에 안전하게 반듯이 누워있는 산발을 가리키며 저 산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고 묻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여섯굽이의 이야기로 되돌아간셈이다.

분명 산은 명산이로되 범상한 모습이 아님은 틀림없다.

시작은 절벽을 이루듯 좀 작은 봉우리우에 조화롭게 바위들이 자금자금 앉음새들과 갑자기 떨어질듯 절벽을 이루었다가 다시 서서히 치달아오르던 산정에 봉긋이 솟아있는 두개의 봉우리.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더니 두개의 봉우리보다 더 높고 큰 봉우리가 길게 연장선을 그으며 오르는 모습이 산너머 흰구름을 배경으로 더한층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강사는 저 산이 《막달봉》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여섯굽이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면서 《막달봉》이란 반듯이 누워있는 임신막달의 녀인형상의 산인데 미남 구월산과 미녀 장수산사이의 잉태한 저 《막달봉》이 이제 때가 되어 《해산》을 하면 또 하나의 《장수산》이 이 땅우에 생겨날 것이라고 하면서 말끝을 웃음속에 감춰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놓고보니 《막달봉》은 저절로 생겨난 산이 아닌듯 어찌면 그리도 반듯이 누워있는 임신부의 모습과 신통할수 있으랴.

머리며... 가슴이며... 배며...

자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창조한 《인간모체》 조각품유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 분명 우리의 선조들이 산을 헐고 바위를 깎아 창조해낸 거석유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3세기에 제작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근교에 있는 길이 305미터의 옆으로 누운 부처는 마땅히 《막달봉》에 비하면 애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참으로 명소는 명소마다 의미깊은 뜻을 품고 있어 장수산이야말로 명산의 완전미를 갖춘듯싶다.

해설강사동무는 아직도 길 험한 장수산열두굽이를 모두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막달봉》과 《록죽봉》, 《하늬산》 모두에 등산길을 개척하여 그 길의 결속을 《은파호》에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40리등산을 마치고

《은파호》에서 수영도 하고 배놀이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셨다니 정녕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그

끝은 어데란 말인가!...

등산길 40리, 아니 400리로 펼쳐질 그 길이 나의 눈앞에 어려왔다.

보장봉과 보적봉사이애 꽃바구니같은 관광악도가 구름을 헤치며 뚝뚝 떠나고 관음봉꼭대기에서 내리는 관성렬차가 굽이굽이 수십리길을 누비며 내려달을 《은파호》의 기슭과 서리꽃이 활짝 핀 석동천기슭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 그날은 먼 앞날의 꿈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의 시적환상이 아니라 머지않은 현실로 장수산에 펼쳐질 것이다...

감개무량하여 시상에 잠긴 나를 보며 해설강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기자동지. 몇년후에 꼭 오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은 머지않은 앞날에 꼭 실현되고야말것입니다!》

그는 자기자신에게 말하듯, 아니 그날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에게 말하듯...

## 기행의 붓을 놓으며

옛사람들은 명산이 명인을 낳는다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엄정히 말해서 명인이 명산을 낳는다고 말을 해야 옳을 것이다.

만일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만일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고 빛내주지 않으신다면, 만일 우리 장군님께서 태일의 조국을 그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름다운 강산은 적막강산으로 빛을 잃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국이며 조국은 곧 장군님이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기행의 취재를 여기에서 마치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대서사시의 화폭 《이민위천》의 사랑으로 막을 올린 대로천극장의 막은 내리지 않았다.

어찌 막을 내릴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 맑고 푸른 하늘을 지붕으로 올리고 천년암반을 무대로 삼고 인민을 자주세계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 영원한 인민사랑의 대서사시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장군님사랑의 화폭으로 이 땅우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재령에서-

## 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

류 만

위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주체문학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변모되었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영원히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는 문예사상과 리론이 새롭게 정식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힘있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주체문학은 새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문학의 그 어느 분야를 보아도 시풍년, 가사풍년, 소설풍년, 아동문학풍년... 마치도 풍요한 별판을 바라보는듯 한 심정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투쟁하고 전진하며 승리해온 60년에 걸치는 기간 언제나 우리 문학의 화원에는 크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졌지만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오늘 주체문학의 성과는 더없이 훌륭하고 귀중하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에 언제나 함께 있었으며 장군님께서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문학을 즐기찬 발전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주체적문학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었으며 명작창작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때로는 전선길에서, 때로는 야전차안에서 우리 작가들이 올린 미숙한 작품을 친히 보아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작가들이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체험을 깊이 하면서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작품을 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우리 문학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영웅적현실과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주체문학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의 나날

들에 우리 인민은 열렬한 수령흥모로 세차게 고동치는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백두산3대장군으로 높이 우러르면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숭고한 풍모를 열렬히 칭송하며 그것을 따라배우려는 한결같은 지향으로 마음을 뜨겁게 불태웠다.

시대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은 이러한 시대적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창조는 우리 주체문학에서 기본으로 된다.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을 사상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훌륭히 창조함으로써만 주체문학은 자기의면모를 뚜렷이 파시하고 그 위용을 펼쳐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문학에서 일관하게 지향되고 발전하여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형상창조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줄기차게 진행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속에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위대성,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며 열렬히 칭송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함께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는 열렬한 사상감정으로 충만되어있던 수령송가문학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바탕으로 깔면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못잊을 추억의 노래,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과 수령님의 유훈관철의 길에 불타는 충성의 노래로 울려 퍼졌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그에 련이어 창작된 수령칭송의 서사시들,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수령칭송의 수많은 시가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리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오늘도 주체시문학의 주도적인 서정으로 뜨겁게 끓어치고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의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더욱 폭넓게 형상하여 그린 서사시적화폭으로 지향되면서 여러편의 장편소설로 그 열매를 주렁지웠다. 항일

무장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천지》와 《붉은 산줄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과 건당, 건군, 건국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반영한 장편소설 《개선》, 《열병광장》, 《삼천리강산》, 전후 사회주의협동화와 복구건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업적을 반영한 《대지의 전설》, 《번영의 길》, 《인간의 노래》, 1211고지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반영한 장편소설 《푸른 산악》 등 작품들은 그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총서작품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각이한 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와 조국과 역사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과 숭고한 사랑을 깊이있게 형상화하면서 수령님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선 혁명전사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가운데서도 특히 장편소설 《영생》은 아버지수령님의 생애의 마지막시기를 진실하고 감동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영생》의 창작으로 소설문학에서 수령영생문학의 새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수많은 단편소설이 창작되어 수령형상소설문학과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다채롭게 가꾸어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문학에서 이채로운것은 장막희곡 《소원》이 창작된것이다. 《소원》은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배경으로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후계자로 내세우신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며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데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시는 고매한 품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함으로써 현실주제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극작품으로써 훌륭한 사상에술적경지를 보여주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룩한것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창조문제를 선군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숭고한 경지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반공화국책동을 벌리고있고 우리 혁명앞에 커다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인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온갖 도전과 겹쌓이는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면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뛰어난 선군령장으로서의 특출한 정치실력을 뚜렷이 과시하시였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하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시여 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신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 불타는 충성은 활화산처럼 끓어번졌다.

이러한 격동적인 현실에 토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한 시작품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력사적사건을 반영하여 시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추대시 《10월의 환희》, 장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서》, 가사 《우리의 김정일동지》, 《정일봉의 우뢰소리》 등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와 함께 가사 《하늘처럼 믿고삽니다》, 《2월은 봄입니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 인민들에 대한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열렬히 칭송하면서 그것을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노래한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쉽없이 걸고 걸으시는 전선길,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서 절절한 체험세계로 심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시 《철령》,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 시초 《최전선에서 부른 노래》, 《강원땅의 새 노래》, 가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서사시 《철령을 넘어》, 장편기행시 《강성대국행진곡》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총대로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선군령장의 강철의 의지와 담력, 위인적 품모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창조사업은 소설문학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띠면서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언제나 전선시찰의 길에 인민군병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정치군사훈련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듯이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명장으로서의 위인적품모와 고매한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그린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와 《총대》 등 장편소설들과 수많은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창작됨으로써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

하는 사업은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함께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형상과제로 되는 수령형상문학의 성과를 풍부히 하면서 새 세기에도 주체문학의 면모를 특징짓는 데서 기본으로 되고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었다.

지난 시기에도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되고 문학의 여러 형태에서 다양하게 실현되어왔지만 많은 경우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영웅적이며 아름다운 성격적품모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체현한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으로 그 형상화를 지향하고 실현해왔다.

선군시대 우리 작가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작품의 형상적품위를 더욱 높이고 그 형상세계를 새롭게 탐구개척하여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건국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와 품모를 깊이있게 그리면서 김정숙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응심깊게 반영한 장시《인민의 어머니》와 서사시《어머님의 그 위업 영원하리》를 비롯한 시와 가사작품들, 《충성의 한길에서》 중 장편소설《바람세찬 항구》 그리고 장막희곡《어머님의 념원》 등이 창작되었다.

당의 령도밑에 이처럼 우리 작가들은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소설, 시, 희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문제를 보다 새롭고 품위있게,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다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백두산3대장군형상작품들은 주체문학의 확고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하는 우리 주체문학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작품들마다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정신과 혁명적군인정신이 차고넘침으로써 선군시대 현실주제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보여준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반영은 당의 령도밑에 발전하여온 우리 주체문학의 특징의 하나이지만 특히 그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높이 발휘되어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

의건설을 다그쳐가는 영웅적생활과 투쟁속에 깊이 숨쉬고있었다.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해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반영하여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적기가 주체시문학의 한장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와 함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현실과 그 나날에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세계와 영웅적투쟁을 반영하여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가사 《우리는 잊지 않으리》, 《강성부흥아리랑》, 《승리의 길》, 《준마치녀》와 장편기행시《강성대국행진곡》 등 많은 시작품들과 장편소설《열망》을 비롯하여 활발하게 창작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 작품들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맥박친 이 세상에 우리가 결심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강한 자존심, 우리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결사관철의 신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관 등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가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간고한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심오하게 형상되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에서의 이러한 생활세계는 일찌기 우리 문학에 있어보지 못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 그것을 뚫고 승리해가는 영웅적투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돌파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섰는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불멸의 화폭으로 된다. 이것으로 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은 주체문학의 특색있는 한 모습을 빛나게 아로새겼다.

사회주의현실주제와 함께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비롯하여 계급교양주제, 력사주제, 조국통일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몫 바쳐싸운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력사적사건을 반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한 소설창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짧은 기간에 수십편의 장편소설이 창작되었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 우리의 주체

문학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전형으로 내세운 경이적인 사변으로 되며 소설문학이 새롭게 도약할수 있는 풍만한 밑거름으로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주체문학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총대중시사상, 군사중시선을 적극 구현하여 선군으로 들끓는 현실과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은 오늘 우리 주체문학의 사상적핵이며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주체문학의 기본정신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주체문학에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심장으로 받들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총대를 앞세우고 군사를 선행시키면서 전진해왔으며 총대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도 다그치고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겨가는 혁명적신념과 락관에 넘친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과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뚜렷이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 당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반영하고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한 작품들이 특히 시문학 분야에서 활발히 창작되었다.

시대정신을 그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영해나설수 있으며 강렬한 열정의 분출에 의하여 창작되는 특성으로 하여 문학의 다른 형태보다도 시문학이 우리 당이 펼친 선군정치를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가사 《우리 집은 군인가정》, 《먼저 찾아요》, 시초 《군민의 노래》와 서사시 《백두의 총대 영원불멸하리》 등 많은 작품들에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찬양과 함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투쟁하고 생활하며 군민일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현실에서 체험된 숭고한 사상감정이 생활적으로 심오하고 감동깊게 형상되었다. 선군정치가 펼쳐지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시적일반화는 주체시대의 문학의 주도적인 서정세계를 더욱 심화하고 풍부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선군정치가 펼쳐지는 현실을 반영하는데서 국문학창작에서도 주목할만 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당의 령도밑에 극작가들은 주로 경희극적양상의 작품창작에 힘을 넣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과 상하일치의 숭고한

동지세계를 심오하게 형상한 희곡 《약속》, 《축복》, 《동지》, 어려운 때일수록 혁명적락관주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을 깊이있게 반영한 희곡 《웃으며 가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나아갈데 대한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한 희곡 《편지》와 선군을 받들고 따르는 길만이 살며 승리하는 길이고 선군을 버리면 죽는 길이라는 진리를 깨우치면서 선군에 대한 절대적믿음과 신념을 형상한 희곡 《철령》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투시하고 선군정치가 빛나게 실현되어가는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 걸쳐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주체문학은 그 내용에서나 형상에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새세기의 첫 걸음부터 문학발전의 높은 봉우리를 훌륭히 장식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하는 우리 주체문학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반영하여 그 내용에서 커다란 변화와 혁신적면모를 보여주었을 뿐아니라 그에 맞게 문학형태와 형식발전에서도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며 새롭고 참신한 형식을 탐구리용하는데 커다란 창조적관심을 돌리었다.

시문학에서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이야기줄거리를 가진 서사시와 함께 시인의 다면적이며 풍부한 체험세계에 기초하여 보다 정서적으로 시대와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일반화를 지향한 새로운 형식의 서사시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서정서사시, 장시와 함께 다양한 양상의 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풍경시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많이 창작되었는가 하면 담시, 정론시, 풍자시와 교훈시, 기행시, 단상시 등도 창작되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시초와 련시창작이 활발하였으며 정서적내용을 부각하려는 시인의 의도에 따라 송시, 추대시, 축하시 형식의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참으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여온 우리 문학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선군시대를 반영하는 주체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더욱 훌륭히 과시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원군, 원민의 나라

사공일금

퇴근준비를 서두르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들려달라는 부탁이다.

거리에 나서며 오늘 또 이 친구한테 단련깨나 받겠군 하는 시큰둥한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다.

시내 어느 한 창작기관에서 미술가로 일하는 친구는 직업과는 달리 분주스럽다 할 정도로 활동반경이 크고 열정적인 패남이다.

집에 들어서니 아나나다를가 친구는 다짜고짜 나를 화실로 쓰는 옷방으로 이끌었다.

《날 좀 도와주게, 여러 달동안 고심하는데 도무지 좋은 상이 떠오르지 않네.》

친구는 자못 고민스럽다는듯 얼굴을 찡그려보이며 여러장의 초안으로 그린 속사품이 붙어있는 벽쪽에 나를 세워주었다.

《전시회가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 이꼴이니 야단 아닌가.》

친구에게서 드문히 당하는 일인지라 이런 일에 어지간히 익숙된 나는 좀 이죽거려볼 심산으로 속사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러다 인차 마음을 고쳐먹었다.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속사품들인데 어떻게 작품을 들였는지 초안이라기보다 하나의 완성작에 가깝도록 생동하게 그린 그림들이었다.

초겨울의 찬물속에 발을 잠그고 길에 나선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아 돌다리틀 건네주는 병사의 모습, 멀어져가는 군인들의 행군대오를 따라서며 손저어 바라는 사람들의 정에 겨운 모습들.

군민이 한데 어울려 방축을 쌓는 모습들...

그밖에 또 그러루한 속사품들이 여러장 있었다.

하나같이 구도가 짜이고 주제가 두드러지게 잘 선택된 장면들은 톨동감과 온감이 확연히 느껴질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게 형상되어 있었다. 어느 그림이라 할것없이 대번에 눈길을 붙잡는, 그야말로 잘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나는 감동어린 눈길을 친구에게로 돌렸다.

그러나 친구는 여전히 찌프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댄다.

《왜선지 날이 갈수록 그림들이 범박하게만 느껴지네. 발견이 없고 뜻이 깃들지 않아보인단 말일세. 사색이 빈곤한탓이지. 좀 조언을 주게. 이제 포화돼버렸네.》

친구는 진심으로 자기 작품들에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림들을 마주하였다.

뜯어볼수록 매 속사품마다에서 일관하게 따듯

하면서도 응심깊은 감정을 응축시키려고 모지를 쓴 흔적이 여실히 느껴질뿐이다.

하지만 친구는 불만해하는것이다. 하긴 심분리해할만 한 일이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군민일치의 미풍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놓은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연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속에 숭배인 뜻과 감정을 한폭의 그림에 담아낸다는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인민의 생명재산을 위하여서는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들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존엄을 지키는 길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는 우리 군대이며 군대를 위해서라면 피와 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인것이다.

정말 세상에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처럼 피로 맺어지고 정으로 얹혀진 그런 군대, 그런 인민이 또 있을까.

더우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미제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오늘의 벽찬 선군시대가 꽃피워내는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미풍이 마련한 이야기들은 또 얼마인가.

나는 친구의 심정을 마음속으로 깊이 긍정하면서 뭔가 방조를 아끼고싶지 않은 의욕을 느끼었다. 나는 친구에게 후날을 약속하고 거리로 나섰다. 무엇인가 끝없이 생각에 잠기고싶은 저녁이다. 문득 나의 눈앞에는 오래전에 어느 한 외국 잡지에서 보았던 한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군사훈련을 하고있는 군인들을 바라보는 그 나라 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 나라 군대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하나같이 무료하고 무표정하였다. 마치 타국인을 바라보는듯 한 무관심한 눈길들은 지어 뺨담해보이기까지 하였다. 편집자가 어떤 의도에서 그 사진을 게재하였는지 그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름못할 서글픔을 자아내는 사진이었다.

그때는 그러루하게 스쳐지났던 그 사진이 오늘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준다.

예로부터 군대란 자기 조국의 령토와 인민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는것을 사명으로 하여왔다.

때문에 인민들이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적인 애정은커녕 한가닥 흥심마저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람이나 그 어떤 공민적  
인 의무감이라고는 없이 한푼의 돈을 위해 총을  
멘 그들을 인민이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는가.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나라 총도 부끄럼없이  
메고 다른 나라 인민들을 살육하는 침략전쟁터에  
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그런 군대를 어느 누가 사  
랑할수 있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보라.

얼마나 긍지롭고 소중한 우리의 군민관계인가.  
일찌기 항일의 피바다속에서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그 어떤  
적도 이길수 없다고 하시며 유격대원들을 인민  
사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시며 인민사랑으로  
혁명군대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것을 군건설위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원칙  
의 하나로 되게 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

이렇게 마련되고 오늘에로 이어진 군민일치사  
상은 그 어떤 적도 단매에 꺼꾸러뜨릴 필승불패  
의 무기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온 세상에 이름 떨치게 되었다.

그길에 강도 일체를 타승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렸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속에서도 사회주의의 한길을 줄기차게  
달려왔다. 오늘을 보라, 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  
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구호를 들고, 인민  
은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불타는 열정을 안  
고 군민이 어깨걸고 한마음한뜻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선군의  
오늘을...

그 길에 군대와 인민사이에 오고간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그 얼마이며 만사람을 격동케

한 위훈은 그 얼마인가.

내 마음속에는 얼마전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  
대는 원민을 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  
랑과 자애에 넘친 가르치심이 다시한번 뜨겁게  
되새겨진다. 얼마나 뜻깊은 가르치심인가.

원군, 원민... 이 말속에는 군대와 인민은 친혈  
육이라는 아버지의 다심한 당부가 뜨겁게 어려있  
으며 군대와 인민은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하나  
의 생명체라는 깊은 뜻이 어려있는것이다.

원군, 원민... 조용히 뇌일수록 가슴 벅찬 환희  
가 끝없이 솟구친다. 원군, 원민, 이 말은 이 세  
상 가장 고결한 사랑이라는 말이며 영원한 승리  
라는 말이며 가장 숭고한 아름다움이란 말이다.

문득 멀리 교외상공에 화광이 번뜩인다.

새로운 경공업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군인건설자  
들이 이 밤도 또 지새울 잡도리인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삼파 곡팽이를 둘러멘 사람들이 활  
기찬 걸음으로 내일을 스친다.

어데선가 처녀들이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교외쪽으로 멀어져간다.

기쁜 일이 있어도 먼저 찾아요

어려운 일 있어도 먼저 찾아요

...

우리 장군님 사랑하시는 군민의 정이 담긴 노  
래이다. 나는 저도모르게 발걸음을 돌리었다.

저 앞 탑식고층살림집 친구네 집 창가에 친구  
의 모습이 그린듯이 비끼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  
며 걸음을 옮기였다. 이제 나는 그를 불러내여  
군인들이 일하고있는 건설장으로 함께 나갈것이  
다.

참 좋은 저녁이다.

## 유모아

### 두 허풍쟁이

두 허풍쟁이가 서로 만나 자기네 교장이  
얼마나 추운 곳인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가: 《우 리 거기서는 얼마나 추운지 한변  
숨쉬면 입김이 눈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다네.》

나: 《우리 넌 말일세. 어찌나 추운지 말하면  
말들이 얼어붙어서 데굴데굴 굴러떨어진다네.  
할수없이 그걸 주어다가 불에 녹여야만이 들을수  
있지.》

### 기차안에서

두 부인이 기차에 올랐다.  
그들은 같은 차칸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  
기 시작했다.

김: 《어디로 가는가요?》

리: 《기도시로 가지요, 당신은요?》

김: 《기도시로 가지요.》

리부인은 그만 아연해졌다.

리: 《아유.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보  
세요. 우린 서로 반대방향으로 가면서도 같은 기  
차, 같은 차칸에 앉아있군요!》

## 감자꽃바다가 설레인다

김승남

하얀꽃 연보라꽃  
떨기떨기 어우러져 활짝 피어  
홍치며 설레이는 백두삼천리벌  
네 파도쳐가는 끝은 어딘가

하나같이 싱싱하게 핀 천만송이  
달콤한 꽃향기로 벌나비 부르고  
천만꽃송이 하나같이 정겹게 웃으며  
나를 반기는듯

내 어디서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너의 한끝을 다 볼수 있을가

어찌보면  
백두고원의 꽃구름이 하얗게 내려앉은듯  
들끓한 감자꽃향기 하늘땅 목메이게 풍기며  
어찌면 그리도 훈풍에 설레이는것이나

대홍단 넓은 벌에  
감자꽃바다 펼쳐주시려  
우리 장군님 자주 찾아오신  
그 거룩한 발자취 잊지 못해  
고마움에 목메여 걱정애 설레이는것이나

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장군님의 밝으신 미소 어리어  
포기마다 눈부신 감자꽃바다  
절경중의 절경인 선군8경을 펼쳐놓았구나  
백두고원의 대지에  
황홀경의 바다를 펼쳐놓았구나

백두산위인들의 넋이 어린 땅에  
항일선렬들의 피가 스민 땅에  
이랑이랑 감자꽃물결을 일으키며  
춤추며 설레이는 꽃바다  
너 없이야, 너의 설레임 없이야  
그 무슨 선군시대 대홍단이라

아, 꽃바다!  
대홍단 감자꽃바다는  
계절의 꽃바다여도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꽃바다는  
계절없는 꽃바다, 세월을 넘어 영원할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꽃바다여라!

## 노래하는 꽃바다

리명근

알찬 열매 땅속깊이 품어안고서  
대지위에 하얀꽃잎 펼치였구나  
그 부름도 사랑스런 감자꽃바다  
우리 사는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홍단수의 물결소리 담아안고서  
꽃잎들이 정다웁게 설레이누나  
그 소리도 정에 겨운 감자꽃바다  
우리 사는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아침이면 해빛안고 활짝 피더니  
저녁이면 달빛안고 은빛이구나

그 모습도 아름다운 감자꽃바다  
우리 사는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가꿔가는 자랑담아 꽃이 폈으니  
너도 웃고 나도 웃는 꽃치지여라  
그 기쁨이 넘쳐나는 감자꽃바다  
우리 사는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수령님의 뜻을 안고 펼쳐진 대지  
장군님의 사랑속에 꽃피난 대지  
그 영광이 노래가 된 감자꽃바다  
우리 사는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것은 문학창작의 출발점으로 된다.

문학에서 인간은 복잡한 갈래를 이루는 생활의 다양한 흐름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화폭의 중심 위치에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느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느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성격을 위주로 내세우지 않으면 작품이 인간학의 본성에도 맞지 않게 된다. 작품에서는 성격을 그린다고 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건이 그에 복종되는것이 아니며 고분고분 따라오는것이 아니다. 문학작품에서 성격과 사건의 관계를 잘못 풀면 사건이 성격을 물어버릴수도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것을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들려고 한다. 문학작품을 읽어도 인물의 성격에 끌려 읽지 아가자기한 사건적인 이야기나 보자고 읽는것이 아니다. 문학은 반드시 성격위주의 방향으로 나가야 현대적미감에 맞을수 있다.》

## 연백벌의 해질녘

김충기

해는 금시 떨어질듯  
연백벌 한끝에 불타는데  
2모작 포전에서 감자수확하는  
처녀의 마음에도 불이 붙었네

포기마다 주렁주렁  
이랑마다 듬뿍듬뿍  
송골송골 이마의 땀 흠칠새도 없이  
수확기를 몰아가는 처녀

-이 많은 감자를 언제 다 썰가  
기쁨 절반 걱정 절반  
지는 해를 붙들며  
처녀는 굵든 수확기를 재촉하는데

불는 불에 키질하는듯

건너편 포전에서 발동소리 높이며  
신나게 모기계를 몰아가는  
병사 그 일손엔 성수가 났네

-오늘중으로 이 앞벌을 다 해치울테니  
처녀가 들으라는듯 더 높이 울리는 발동소리  
땅크몰고 산발타던 그 숨씨로  
푸른 들을 누벼가는 젊은 병사

안타까운 처녀의 그 마음 아는듯  
일욕심 많은 병사의 그 마음 아는듯  
지는 해 못떠나 걸음 멈추고  
뜨는 달 서둘러 동산에 솟는  
아, 드바쁜 연백벌의 해질녘  
군민의 정 뜨거운 연백벌의 해질녘

## 이 봄날, 이 가을!

리동수

동트는 새벽부터  
저녁별 뜰 때까지  
가을하는 포전  
모내는 포전

함께 왔구나  
흰눈덮인 한겨울에도  
진한 땀으로 걸구어온 이 벌에  
가을하는 기쁨  
모를 내는 흥겨움이 한데 어울려  
봄, 가을이 이 땅에 함께 왔구나

알알이 여문 보리단 추어올리며  
줄지어 들어서는 트랙토르를 향해  
탈곡장이 좁아진다고  
아니할 걱정으로 목청이 높은  
우리 분조 아낙네들 저 모습 보소

아득히 넓어진 논배미마다  
모내는 기계로 푸른 모를 심어가며  
노래도 봄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우리 농장 처녀들 어여쁜 저 모습도

어떻게 찾아온 봄이고 가을이더냐  
눈비오는 천리전선길 헤치시며  
자욱자욱 이 벌에 넘치도록  
해빛같은 사랑을 주신 우리 장군님

새로 열린 물길따라  
새로 정리한 드넓은 이 벌에  
춤을 추며 흘러온 달디단 물  
이랑이랑 적시며 찾아온 봄이다

전선도 기본전선이라시며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새 종자, 새 기계  
한해에도 두벌가을 맞이하도록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주신  
그 사랑에 받들려 찾아오는 가을이다

정녕 해빛도 따사로운  
이 봄날, 이 가을  
이 벌 가득히 넘치는것은  
두벌농사 기쁨을 이 땅우에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덕에  
풍작으로 보답할 한마음뿐이여라

## 선군시대 숨은 영웅에게

변정욱

북변의 한끝  
한겨울의 찬바람은 사나와도  
따사로운 봄빛마냥  
이 나라 천만가슴을 후덥게 더웁히며  
들려오누나

북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능금알처럼 빨갭게 익은 저 얼굴들마다에는  
한가득 행복의 미소가 피었구나  
이 땅, 이 하늘도 저 애들을 축복하는듯  
산에 들에 눈꽃이 하얗게 피고  
내 조국의 하늘은 끝없이 맑아라

얼마나 환희에 넘친 얼굴들이나

얼마나 기쁨에 넘친 모습들이나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웃고 떠드는  
북방은 170명 어린이들  
우리 어찌 무심히 바라볼수 있으랴

저 밝게 웃는 웃음속엔  
어머니 바쳐온 속깊은 사랑이 어려있어라  
무수한 낮과 밤들에  
고난을 헤쳐가는 조국을 생각하며  
그 많은 아이들을 말아키운  
어머니의 남모르는 수고가 스며있어라

진정 행복한 날에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이였다면

풍족한 살림에  
누구나 줄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 마음 이리도 뜨거움에 젖지 않으리

시련에 시련이 덧쌓이는 어려운 나날  
여리고 작은 가슴들에 잠시라도 그늘질세라  
품안아 속태운 날과 달들은 그 얼마며  
기울인 정 지새운 밤 또 얼마였으랴

옷장의 가지가지 옷들이며  
책장에 쌓여있는 학습장들에도  
부엌의 크고작은 찬박들  
선뜻 믿기 어려운 하루 세끼 식사표에도  
무겁게 실려있는 그 사랑을 어이 다 헤아리라

생각할수록 눈시울이 후더워오는구나  
제가 낳은 몇자식을 키우자 해도  
가지많은 나무처럼  
근심을 못놓는이가 어머니라는데  
170명 모두에게

친혈육의 정 꼭같이 나눠준  
선군시대 숨은 영웅이여

정녕  
너인의 작은 두손으로 하많은 일감을 다 안고  
선군조국의 끝끝한 아들딸들을  
한품에 키워낸 어머니  
그 어린 가슴들에  
뜨거이 고동치는 조국애의 피줄기  
수령결사옹위의 숨결을 억세게 이어주었구나

아, 사회주의 이 강산에  
만발히 피여웃는 170꽃송이  
그모두 합치면 그대로 꽃바구니  
이 나라 한 평범한 어머니가  
애국의 지성을 다 바쳐 가꾼  
조국에 드리는 충성의 꽃바구니 아니더냐  
그 향기 세월을 넘어  
선군시대의 훈향으로 끝없이 넘쳐나리라

## ◇수필◇

# 봄은 가을에서

부지깽이도 바빠 편다는 봄철이다. 그래서인지  
한참 기다려서야 힘들게 만난 관리위원장은 《2  
작업반장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작가선생에게  
좋은 취재가 될겁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어디론가 달려가버렸다. 약간 인사불성이라고 여  
길수도 있겠지만 그의 몸시도 미안스러워하는 표  
정은 (정말 바빠 그러니 부디 양해해주시요.)라  
는 딱한 심정을 백마디 말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나타내고있어 언짢게 여길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2작업반으로 향했다. 머리우에  
서는 종달새가 우짖고 길바닥의 빨간 진흙에서는  
상긋한 흙냄새가 풍겼다. 아지랑이너머로 바라  
보이는 낮은 산들이며 주위의 모든것이 봄을 노  
래하는듯 했다.

작업반실은 비어있었다. 거기서 나를 맞아준것  
은 대문밖만 한 작업반속보관이었는데 거기에는  
《가을걷이전투에서 련일 혁신!》이라는 글발과  
모범적인 농장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었다.

봄철에 때아닌 가을걷이전투라니?... 나의 머리  
속에서는 한순간 작년 가을에 썼던 속보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아닐가 하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이 떠올랐으나 인차 지워버렸다. 속보는 새

## 정철학

로 불린것이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  
론가 뛰어가는 나 어린 농장원처녀가 눈에 띄이  
었다.

(이 농장에선 모두 뛰어다니는가보군.) 나는 이  
렇게 생각하며 처녀를 소리쳐불렀다.

《처녀동무, 나 좀 봅시다.》

처녀는 얼른 내앞으로 뛰어왔다.

《2작업반장동무가 어디 있소?》

《절 따라오세요.》

처녀의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밀보리가울겉이  
전투장이였다. 무연히 펼쳐진 밀보리밭에 목적이  
드리워진 이삭들이 봄바람에 흔들리우는 모습은  
정말 불만하였다. 거기다 속보판이 있었는데 거  
기에는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봄하늘에 울리는 가을의 노래소리.》

속보앞에 서있는 나에게 농장원처녀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작업반장동지는 방금철에 모판에 가셨답니  
다.》

《모판이 어디요?》

《저-기예요.》

무르익은 밀보리밭사이에 파아란 벼모들이 야

들야들한 잎을 내밀고있는 모판의 광경은 도시에서 나서자란 애젊은 나에게 일견 신비한 느낌을 자아냈다. 마치 계절이 조화를 부려 가을에서 봄으로 켜켜 건너뛰는듯 했다.

모판에서도 작업반장을 만날수 없었다. 금방 퇴비생산전투장에 갔다는것이였다. 그곳을 향해 나도 이제는 뛰기 시작했다. 한가스레 걸어나니 다가는 어느 세월에 작업반장을 만나볼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작업반장은 없고 대신 《봄철의 거름더미는 곧 가을의 쌀더미이다!》 라고 쓴 속보판만이 나를 맞아주었다. 작업반장은 탈곡장으로 갔다는것이였다. 또다시 봄에서 《가을》로 달려간 반장이였다.

부랴부랴 탈곡장으로 달려가니 이번에도 한발 늦어 작업반장은 없고 대신 관리위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2작업반장은 이자 비료를 실으러 갔습니다. 결국 작가선생은 오전한것 랑패만 보셨구려.》

그러나 실지 《랑패를 본》 나는 밝게 웃으며 곁에 서있는 탈곡장속보판에 다가갔다. 방금전에 새 종이를 붙여놓은 속보판안에 한 농장원이 붓을 든채 무슨 글을 쓸것인지 궁리하는중이였다.

내가 몇자 적겠다고 청하니 그는 꽤히 붓을 내주었다. 나는 붓을 쥐고 탈곡장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난가리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예로부터 봄에는 씨뿌리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는법이라 일러온 이 땅에 어찌하여 오늘과 같은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피뎀는 심장마다에 반아안고 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뛰고 또 뛰었기에 이들은 이해의 봄을 가을에서 시작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제 가을이 오면 그들은 또 가을의 대지우에 봄씨앗을 심으리라. 그렇다.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가슴속깊이 새겨안은 우리 농장원들의 마음속에는 봄과 가을이 따로 없다. 그들의 몸은 언제나 드바쁜 봄에 살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풍요한 가

을에 있는것이다.

이제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여 알찬 열매를 안아올 가을에 가서는 강성대국건설의 봄도 앞당겨 맞이하게 되리라!

나는 힘주어 속보판에 붓을 달렸다.

《강성대국건설의 봄은 가을에서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르자!》

등뒤에서 관리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 작가선생이 다르군요. 글씨도 명필이거니와 내용이 참 기쁘막합니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관리위원장동지는 이제 또 어디론가 가야 하겠지요?》

《손님대접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하시는건가요. 제 식당에 다 말해놔오니 가서 점심을 드십시오.》

《아니, 전 관리위원장동지와 함께 다니겠습니다.》

《하, 전 뛰여다녀야 하는데요...》

《저도 뛰지요.》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한동안 소리내어 꺾꺾 웃었다. 그렇게 흐뭇한 마음중에도 슬며시 뭔가 이름할수 없는 뜨거움이 차오른다.

내가 이 농장에 온지는 불과 몇시간 안되고 만나본 사람도 얼마 없지만 나는 봄과 가을사이를 드바빠 뛰여다니는 이들의 모습에서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60돐을 맞는 올해를 기어이 풍요한 수확의 해로 되게 하려는 온 나라 농장원들의 뜨거운 열의를 가슴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봄과 가을사이는 멀다. 하지만 풍요한 가을속에 강성대국건설의 봄을 그려보는 이들,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속에 봄과 가을은 언제나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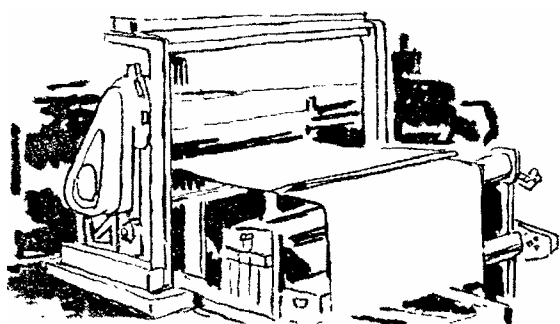
나는 온 한해 이들과 함께 지내며 가을에 가서 설레일 알찬 이삭속에 나의 적은 팟방울도 보태고싶은 벅찬 충동을 느끼며 저만치 앞서간 관리위원장의 뒤를 따랐다.

## 성구, 속담

### 말과 침묵

- 녀자에게는 침묵이 장점이다.
- 달콤한 말에 독이 있다.
- 말로는 배를 못채운다.

- 말은 마음의 열쇠.
- 칼자리는 아물어도 말자리는 아물지 않는다.



# 운명

염성영

## 1

김형민은 창문을 향해 마주서있었다. 마음이 가볍지 못했다. 바싹 당긴 고무줄처럼 팽팽하던 월계획을 마무리한 지금에 와서까지 마음이 가볍지 못한것은 무엇때문인가. 현장에서 지새운 간밤의 피곤때문인가. 지배인의 《손탁이 묶어졌다》는 뒤소리때문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도리를 저었다. 2년전까지만 해도 김형민은 기술부기사장으로 일했었다. 평이 좋았다. 40대의 건장한 그에게 해박한 기술이 안받침되어있었고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실적을 내어 손탁이 센 일꾼이라는 평이 차례졌다. 염색직장의 고온, 고압처리공정을 현대적기술로 개조하여 앉아몽개던 현행생산을 부쩍 추켜세우고 국가에 리득을 준 사실로 그의 명성이 더한층 커졌다. 지배인으로 발탁되어 일약 승진한 계기도 모름지기 그때문이 아닌지?

헌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속에서 한입, 두입 건너 지배인의 손탁이 묶어졌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수군수군하는 뒤소리가 그의 귀에라고 들어 오지 않을수 없었다. 생산을 높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것은 지배인의 손탁이 묶어졌기때문이라는것이다.

듣기가 거북했다.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 그만 큼이라도 공장을 돌리는게 대순줄 알라고, 독립채산제라는게 뭐 제 돈주머니만 불구는것인줄 아느냐고 되게 편잔을 주고싶었지만 인차 생각을 달리했다. 그들이 새 지배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말을 내돌렸으랴싶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민망스럽게 여겨졌다.

헌데 지금은 월계획을 깨끗이 마무리한 뒤가 아닌가.

형민은 창문을 열어젖혔다. 맑고 신선한 새벽 기류가 폐부를 찌른다. 갓 솟은 태양이 눈부시다. 이슬에 젖은, 망울을 터친 정원의 꽃나무들에 철썩무지개가 아롱진다.

형민은 피곤을 쫓아버릴듯 부석부석한 얼굴을 손바닥으로 몇번 쓸었다. 선자리에서 허리를 굽

혔다 폈다 한 다음 심호흡을 하였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다. 무엇때문인가.

형민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출입문쪽 원탁우에 놓인 소철화분이 생기를 잃은채 부채살처럼 긴 잎사귀를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있다. 수료를 받으러 왔던 기요원이 이따금 물을 주곤 했는데 월말전투를 하면서 그럴 기회마저 잃었다. 시들어 버린 소철잎사귀때문인지 너털청한 방안이 별로 한산하고 어수선하게 느껴졌다.

(웃감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쫓기며 일해가지고 지배인을 계속 할수 있을까?)

형민은 불품없이 떡잎진 화분에서 자신의 운명을 보는것 같아 마음이 언짢았다.단순히 지배인으로 남아있는가 아닌가 하는데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김형민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운명문제로 감수되었다.

(출로는?... 방도는?...)

신통한 궁냥이 떠오르지 않았다. 묘연했다.

형민은 창밖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겨갔다. 봄빛이 무르익는다. 신록이 짙어가는 구내길로 직포공처녀들이 덩이져 밀려간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 까르르 웃음꽃을 피운다. 짐을 싣고가던 지게차운전수총각이 처녀들뽀뽀에 바싹 다가서며 새된 경적을 울린다. 질겁한 처녀들이 길 좌우쪽으로 새무리처럼 뿔뿔해진다. 그리고는 총각을 향해 주먹질을 하다가 또다시 웃음보라를 날렸다.

활기에 젖은 구내길로 어깨가 처져서 걷고있는 저사람은 누구인가? 지수빈이다. 염색기술준비실 기사, 31살의 로총각, 고집불통이고 말버릇이 고약한 젊은이...

형민은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이 왜 가볍지 못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간밤의 일이었다. 염색직장 고압탱크에서 식식 뿜어나오는 더운 김을 목덜미로 느끼며 온도계의 눈금을 지켜보고있을 때였다. 공장계획부원이 달려와 열띤 목소리로 방금 월계획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지수빈이 다가왔다.

《기사동무. 밤을 밝힌 보람이 있소. 월계획을 마무리했다누만.》

《그렇습니까? 지배인동지가 수고했습니다.》

지수빈도 기뻐했다.

《그런데 찬물에 의한 염색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소리요?》

김형민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수빈이 말하는 염색방법이란 첨단기술을 전제로 하고있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다. 어찌 보면 고온, 고압에 의한 염색방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었다. 복잡한 설비개조와 엄청난 투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이 방법은 아직 가능성담 보도 없었다.

김형민은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제나름의 모지름을 써보는 그의 욕망을 긍정하면서도 아직 많은 미해명문제를 안고있는 그의 기술적주장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해오고있는터였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쓰디쓴 실패의 체험을 통하여 찾아낸 결론이기도 했다.

《동무는 염색기사가 맞소?》

《염색기사이기때문에 제기하는겁니다.》

《답답하오. 답답해. 첨단기술이라는게 뭐 애들이름이요? 하루이틀새에 척척 도약할수 있는거라면 얼마나 좋겠소? 제발 건주정은 하지 마오. 우리 형편에서는 지금의 염색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오.》

지수빈이 긍정했다.

《저는 지배인동지가 몇년전에 염색직장에 도입한 고온, 고압처리공정이 새롭고 대담한 우리 식의 기술혁신이었다는걸 인정합니다.》

《듣기 싫소. 내가 그런 소리들 듣자고 하는 말이 아니요.》

《하지만 기존지식에 만족하고 속박될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한 혁신은...》

김형민이 갑자기 지수빈의 밑을 중도에서 잘라버렸다.

《내가 소심하다는거요?》

《아닙니다.》

《그럼?》

《보신하고있지요, 즈자르면서.》

《말버릇이 고약하구만.》

김형민은 손상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금시 얼굴이 불기우리해졌다. 전신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아무렇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첨단기술로 도약해야 합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지수빈이 자기의 실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고한 자세로 맞섰다.

《저는 지배인동지가 행동으로 말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김형민은 지수빈의 얼굴을 쳐다봤다. 왜서인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띠끔했다. 흥안의 시절 자신도 기술문제를 두고 일군들과 맞선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이 되고보니 리해가 되었다. 무슨 일이나 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기마련인데 일개인의 목소리에 지내 귀를 기울이다가는 일을 망쳐놓기가 심상인것이다. 지배인이란 어디까지나 공장의 생산을 책임진 사람이 아닌가. 공장의 운명이자 이 지배인의 운명인것이다.

(그런데도 뭐 보신한다고?)

김형민은 간밤에 있던 일을 돌이켜보며 지수빈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헌데 어깨는 왜 축 처졌을가? 그 도고성은 다 어디로 가고 혹시 애인한테 실련당한 피로움때문일까?)

한달전, 출장지에서 돌아온 형민은 방직연구소의 연구사 송은심이 갑자기 학위론문을 포기하고 연구소로 올라갔다는 소리를 염색기술준비실장한테서 들은 기억이 났다. 처음에는 자신도 얼떠름했다. 처녀가 준비하고있는 학사론문이란 고온, 고압조건의 염색공정에 쓰이는 새로운 촉매제연구였다. 형민은 그가 대견했다. 우리의 새 세대 기술자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느낌때문이었다. 그래서 툴툴치 처녀를 도와주었다. 지수빈이 더 극성이었다. 서로 맞붙어다니는 그들을 두고 사람들속에서 야릇한 미소와 함께 색다른 말도 끼여돌았다. 그런 처녀가 온다간다 소리없이 훌쩍 떠나갔는지 않는가. 그 누구의 배웅도 없이.

(참 사랑이란 묘한거야. 불처럼 뜨겁다가도 얼음처럼 차구. 그렇다고 어깨까지 처질건 뭔가. 사내너석이.)

손기척소리가 울렸다. 계획과장이 들어섰다. 얼굴에서는 노상 웃음이 가실줄 모른다.

《뭐가 만족해서 그러오?》

《월계획을 넘쳐하지 않았습니까?》

계획과장이 지배인앞에 수표할 문건을 내밀었다.

《만족하기는 아직 이르오.》

지배인이 수표한 문건을 내주는데 자재과장이 들어섰다.

《지배인동지, 피복공장들에서 저마다 가공천을 보내달라고 독촉이 불갑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천을 쌓아놓고 안주는 줄 아는 모양이지?》

《염색직장창고에 물감을 들이지 못한 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걸 알고있습니까.》

《지금이 어느때요? 그만한 조건에서도... 아니

아니, 됐소.》

김형민은 구구한 변명이 싫었다.

《보체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간씩 보내줍시다.》

《허, 나도 그랬으면 좋겠소. 달라는대로 망탕 켜주다가 두손 털고 나왔겠소?》

《염색기사 지수빈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수빈이?》

《예. 새로운 염색방법을 연구한다던데.》

《알겠소.》

김형민은 더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자재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따르릉!-》

책상위의 전화종이 야무지게 울렸다.

《형민인가? 나 송진국일세.》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군직물공장 지배인이었다.

《자네 아직도 남한테 손내미는 고약한 버릇 못 고쳤나?》

《예끼, 이 사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네.》

《그럼 뭐가?》

《임자네 공장에 기술진영이 프르르하다는 소리를 들었네. 젊고 똑똑한 기술자 두어명 보내줄수 없겠나?》

《허허, 제법 썸이 든 소리를 다 하구. 어디서 들었나? 은심이가 말하던가?》

김형민은 그렇지 않아도 그의 딸에 대한 소식을 묻고싶던차였다. 송진국지배인의 딸이 바로 송은심이었던것이다.

《지금 연구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나?》

《허, 그걸 나한테 묻나? 그애야 임자네 공장에 내려가 연구사업을 하고있지 않나. 금옥같은 딸을 뒀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떠졌나?》

《말이 많아졌군.》

《어제 방직연구소에서 전화가 왔네. 새로운 염색촉매제연구때문에 얼마간 평양에 올라와 있겠다고 하더군. 그것이 성공하면 임자가 무척 좋아할거라면서. 근데도 모른척 하나?》

《허허, 깜깜이로군. 지금 그 애 마음이 괴로울걸세.》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린가?》

김형민은 전화를 받다말고 인기척에 머리를 돌렸다. 언제 왔는지 지수빈이 곁에 서있었다.

《동문 뭐요?》

지수빈이 머뭇거리며 인차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확정되어 방안에 지루지루 울렸다.

《형민이, 왜 대답이 없나? 탄전을 부릴 생각을 말라구...》

《후에 토론하세.》

김형민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왜 왔소?》

《제기랄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지수빈이 넓다란 앞책상위에 손에 쥔 종이두루마리를 펼쳐놓았다. 어제 밤 화제에 올랐던 산업색방법에 대한 공정도였다.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소? 기사장동무와 토론하시오.》

《먼저 지배인동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맙소. 지금 나한테는 시간이 없소.》

김형민은 급히 옷걸개앞으로 걸어갔다. 작업복을 벗고 외출복을 갈아입었다. 경제부문 일군협의회에 참가해야 했던것이다.

다시 전화종이 울렸다. 그는 가방을 옆구리에 낀채 전화를 받았다. 지령실에서 문의해온 전화였다.

《현장으로 내려가 제 눈으로 보고 결심하오. 책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김형민은 지수빈과 함께 방문을 나섰다. 그는 바쁜 몸이었다.

## 2

승용차는 포장도로를 따라 살같이 달렸다. 질여가는 봄의 훈향이 시창으로 물씬 풍겨든다.

경제부문 일군협의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김형민의 머리속은 사뭇 착잡했다. 좌석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실은 그는 눈을 감은채 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하나하나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협의회에서는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대하는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 관점문제를 두고 심각한 비판이 있었다. 요행 이름이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자책은 컸다. 회의마감에 단위별로 추가적인 생산과제가 시달되었다.

《방직공장 지배인동무의 얼굴이 왜 그렇게 무거워졌소?》

협의회를 지도하던 부부장이 형민을 향해 물었다. 엄청난 과제앞에 저도 모르게 이마살이 찌퍼러졌던 모양이다.

《어깨에 실린 짐이 무겁소?》

《예, 뼈근합니다.》

형민은 자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에도 계획을 간신히 해낸 그였다.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에 또다시 막중한 과제가 어깨우에 덧지워진것이다.

《뼈근하다는걸 보니...》

부부장의 눈에 실망의 빛이 어렸다.

김형민은 입이 굳어졌다. 계획을 줄여달라고 우는 소리를 할수 없었다. 제 어깨가 가볍자고 남의 어깨에 덧짐을 올려놓을수 없었다.

《동무들! 승리의 열쇠는 동무들의 손에 쥐여져있소. 당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동무들이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사업을 창조

적으로 결괏값이 전개할 때 못해낼 일이 없소. 새것을 지향하여 부단히 탐구하고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바라오.》

김형민은 협의회결속에서 그루를 박던 부부장의 말이 지금도 귀가에서 맴돌았다.

(내가 너무 구태의연한것이 아닌가?)

형민의 눈앞에는 문득 지수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존지식에 만족하고 속박될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젊은이, 소설의 어느 한 대목을 읽는것같던 그의 목소리가 왜 느닷없이 되살아나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증자르면서 보신한단 말이지?)

형민은 마음속으로 자기를 더듬어보다가 인차 부정해버렸다. 엉터리없는 가설을 정설로 증명하려는 그의 시도가 너무도 가석하게 여겨진때문이다.

(고약하거든! 말버릇이.)

김형민의 눈앞에는 지수빈이 대신 송은심의 얼굴이 떠올랐다. 푸른 잎 새싹처럼 생기발랄하고 웃음 많던 처녀, 고온, 고압에 의한 연색에서 효율적인 촉매제연구로 가슴끓이던 처녀, 학위론문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기라도 한듯 온갖 심혈을 쏟아붓던 처녀... 연구사의 학위론문은 형민에게도 파악이 있었다. 그것이 완성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공장현형에서도 생산을 얼마간 높일수 있을것 같았다.

(그 처녀연구사가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걸 그랬어!)

김형민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청거리는 자신을 느꼈다.

(헌데 은심이가 촉매제연구를 계속한다고 했지? 평양에 도로 올라가긴 했지만 미련은 버릴수 없었던 모양이지.)

김형민은 의연히 송은심이한테로 마음이 켜였다. 처녀가 떠나간 뒤 연구소에 알아볼 생각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온 자신이 뉘우쳐졌다.

(이제라도 연구소에 제기하여 은심이를 다시 데려와야겠어!)

김형민은 송은심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수록 지수빈에 대한 고까운 감정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처녀의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휘저어냈길래 은심이가 공장을 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가 싶었다. 하면서도 한편 기성리론에 포로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보려는 지수빈이 긍정되기도 했다. 과학과 기술

의 시대에 그런 열정도 없이 세월을 보내는 기술자식객이 아직도 있단말인가.

서로 모순되는 생각들이 갈피없이 엇갈리는 속에 형민의 머리속에서는 지나간 일이 떠올랐다.

홍안의 시절 경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방직공장 공무직장에 배치된 그는 소재운반공으로 일했다. 가공된 제품은 은빛이 번쩍거리는 작은것이였지

만 날라오는 소재는 각이한 규격의 철덩어리였다. 무거운 가공소재는 그의 어깨를 사정없이 파고 들었다.

《힘드냐?》

어느날 무거운 소재를 자재창고에서부터 작업장까지 가까스로 메여다 내동댕이치고 숨을 할딱거리는데 지나가던 홍반장이 띄여보고 물었다. 가공작업반장 홍아주머니는 선반기를 귀신같이 다루는 직장의 이름난 혁신자였다. 그의 손에서는 아무리 까다로운 기계부속도 척척 가공되어나왔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하고 남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 그를 반원들은 몹시 따르고 존경했다.

《멍이 들것 같아요.》

형민은 불부는 소리를 했다. 홍반장이 부어오른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었다.

《악골이로구나.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갈걸 그랬어.》

《형, 일이 힘들어서 가는게 대학인가. 기술을 배우러 가지.》

홍반장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그려졌다.

《네 말이 옳다. 대학은 기술을 배우러 가는 곳이다. 우린 빨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잘살수 있고 나라도 강해질게 아니냐. 힘들면 쉬엄쉬엄하려무나.》

《싫어요. 누구든 제 몫을 해야게 아니예요.》

홍반장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기술혁신을 해야지요 뭐. 월총화때 보면 생산계획수자는 말하면서도 기술발전계획수행문제에는 왜 한마디도 없나요?》

형민은 도전적으로 나왔다. 공장참모부에서부터 직장,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시달한 생산과제에는 누구나 눈을 밝히면서도 그와 함께 내려온 기술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낯을 잘 돌리지 않는다. 누구나 기술이 중하오, 기술을 모르면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소 말은 곧잘 외우면서도 실행단계에서는 언제 그랬느냐싶게 아닌보살을 하고있는것이다. 마치 현행생산계획수행이 기술발전계획수행을 대신하기라도 하는것처럼. 그래도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있으면서도.

《그런 <둘러리>계획은 해 뭇하나요?》

《<둘러리>계획이라니?!》

홍반장의 눈이 둥그래졌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계획이 <둘러리>나 같지 뭐예요? 한바탕 해볼래요.》

《누구하고?》

《간부들하고요. 지금처럼 똑함만 믿고 기술혁신을 무시하다간 래일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깨에도 멍들거예요.》

그날 저녁 형민은 직장장을 만났고 기사장을 찾아갔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그



렇게 당돌해질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왔다. 그 일이 있은 후 형민에게는 버릇이 없고 까다로운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빨난 송아지처럼 마구 헤덤비는 자기를 두고 홍반장만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래서 전처럼 생각키우는대로 아무 말이나 탕탕 할수 없었다. 이러한 의기소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해 가을, 홍반장이 자기손에 대학추천서를 쥐여주었던것이다.

《기술을 맘껏 배우거라. 장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둘리리가 아니라 프르르한 신랑쟁이가 되거라. 그리고 공장을 잊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거라.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니까.》

대학으로 떠나는 날 홍반장이 역전에까지 따라나와 배려주었다. 대학 1학년시절 평양에 불일이 있어 올라왔던 홍반장이 학습장, 필기도구와 함께 먹음직스러운 사과 한배낭을 메고 기숙사를 찾아왔다. 내가 사과를 무척 좋아했던것이다. 홍반장이 손에 울긋불긋한 사과를 쥐여주며 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공장을 잊지 말라고, 기술을 배운다고 일이 다 저절로 되는게 아니라고 재삼 당부했다.

형민은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이 찍힌 방직공장을 잊을수 없었다. 웅심깊은 홍반장의 부탁을 잊지 않고 살아왔었다.

아득히 흘러가버린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노라니 저도모르게 지수빈에 대한 생각이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웬일이요?》

형민은 눈을 뜨며 좌석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켰다.

《고장이요?》

《아닙니다. 쉬는것 같길래...》

《고맙소.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소.》

형민은 좌석등받이에 몸을 실었다. 승용차는 다시 살갈이 달렸다.

(승리의 열쇠를 쥐고있다고 했지? 그래그래, 이것을 지향하여 부단히 탐구하고 언제나 생기와 활력넘쳐 전진하라고 했어.)

협의회에서 그루를 박던 부부장의 말이 지수빈의 목소리로 바뀌다.

《기술혁신도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합니다. 운명을 걸고서.》

형민은 마음이 켜기였다. 오늘 아침 종이두루마리를 들고 찾아온 그를 너무 땀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나무 껍듯 단마디로 일죽해버릴것이 아니라 리해가 되도록 차근차근 일깨워주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앞선 세대의 고견을 바라는 그 마음이야 가룩한것이 아닌가.

《이 친구야, 그런 오새나 차려서 뭘하겠나? 오늘들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자기 실적을 내야지!》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운전사가 눈이 둥그래서 반문했다. 형민은 부지중 튕겨나온 목소리에 놀라며 게면쩍은 미소를 지었다.

《운전사동무, 염색기술준비실의 젊은 기사동무를 알고있소?》

《지수빈동무말입니까?》

《웁소. 그 동무가 어때?》

《꽤남아지요. 무대에 나서면 무슨 악기나 첼척 다룰줄 알구 기술과 배구팀에서는 기본조직자랍니다.》

《조직자라니?》

김형민은 운전사가 입고있는 흰 와이샤쯔킷에 눈길을 박으며 물었다. 목깃에 찍힌 밤색반점이 유표하게 눈에 띄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덜통스러울가?)

그 와이샤쯔는 얼마전 운전사의 생일날에 그의 안해가 기념으로 준것이였다.

《공돌리기조직 말입니다. 강타도 맵싸지만 상대방의 빈구석을 노리고 살짜공을 넣는게 더 매력있지요. 이를테면 전형적인 기술형의 조직자입니다. 성에서 내려온 처녀연구사도 그의 명석한 두뇌에 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형민은 운전사가 아직 송은심이 떠나간 사실을 모르고있다고 생각했다.

(전형적인 기술형의 조직자가 왜 처녀의 마음 하나 후려내지 못했을까?)

형민은 떠나간 은심이라도 야속했지만 처녀의 마음속을 그러잡지 못한 수빈이를 리해할수 없었다.

(사람이 너무 외롭이거든! 그게 탈이야. 그러니 처녀한테 채우지.)

형민은 자신이 실련당하기라도 한듯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나이찬 사람이 그게 뭐람? 늙은 어머니는 손주녀석을 기다릴텐데. 참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지. 수술치료를 받는다고 했어. 가봤어야 하는건데. 내가 너무 막대기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뻔거든.)

형민은 지수빈이 지금쯤 병원에 가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승용차가 갈림길에 이르렀다.

《어디로 가오?》

《집으로 갑니다.》

《차를 돌리시오. 공장으로 가야겠소.》

《지배인동지, 오늘은 공장적인 휴식일입니다.》

《알고있소.》

앞머리를 돌린 승용차가 공장정문을 가까이하고있을 때였다.

《운전사동무, 나를 좀 도와줘야겠소.》

《뭘말입니까?》

《병원에 좀 갔다와야겠소. 지수빈동무의 어머

니가 입원치료를 받고있소. 언제쯤 수술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오..》

형민은 차를 멈추고 주머니를 뒤졌다. 간이매점에서 사이다와 빵 한구력을 사들었다.

《치료를 잘 받도록 하오. 내가 보내더란 말은 하지말고..》

걸음을 옮기려던 형민의 시선이 다시 운전사의 와이샤쓰목깃에서 멎었다. 유표하게 찍힌 밤색 반점이 눈에 거슬렸던것이다.

《동무 와이샤쓰깃이 왜 그 모양이요?》

형민은 운전사가 벌써 새옷을 마쳐놓은것이 못마땅스러웠다. 안해의 성의를 몰라주는것 같아서였다.

《제 불찰입니다. 며칠전 염색기술준비실앞에서 큰 물통을 안고가는 지수빈동무와 맞다들렀습니다. 힘에 부쳐하길래 좀 도와줬는데 물통의 물방울이 튕겨난것 같습니다..》

《염색기사가 물통을?》

《예, 그런데 별일입니다. 그것이 무슨 물방울인지 와이샤쓰를 아무리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형민은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운전사에게 일렀다.

《병문안을 마치면 동무도 집에 돌아가서 꼭 쉬오..》

### 3

김형민은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천천히 공장정문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이 있는 2층계단을 밟으려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사업을 돌이켜보며 가끔 자기를 정돈하기에 습관된 그였지만 지금따라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던것이다.

정방기, 직기, 각종 기계설비들의 동음이 멎은 공장안은 귀가 멍멍할 지경으로 조용했다. 공장이 이렇게 한적한 때도 있었는가싶다. 이따금 건물의 한쪽귀퉁이에서 실토리를 옆에 놓고 뜨개질을 하던 경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수인사를 할따름이다.

(태일부터 다시 만부하를 걸어야지.)

형민은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공장을 한바퀴 쭉 돌아본 다음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복도를 따라 얼마쯤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쟁그랑!..》하고 유리그릇같은것이 깨여지는 소리가 귀아프게 들려왔다. 염색기술준비실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경비원의 실수러니 생각하고 몇걸음 옮겨졌던 그는 그냥 지나칠수 없었다.

김형민은 염색기술준비실의 문을 열었다. 시험대우의 수조가 박살나고 거기에 담겼던 푸른 색깔의 혼탁액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리는게 눈에 띄

었다. 누군가 몹시 지친 기색으로 바닥에 널린 유리파편을 천천히 주어모으고있었다. 지수빈이였다.

《웬일이요? 다친데는 없소?》

《없습니다. 새 첨가제시험을 하다가 그만...》

지수빈이 허리를 펴며 계면쩍은 어조로 변명했다.

《오늘은 공장휴식일이 아니요..》

《지배인동지도 이렇게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염색실험이요?》

형민은 쌀쌀한 어조로 물었다. 지수빈이 의외로 활기를 띠며 대답했다.

《예, 첨가제 3호가 1호보다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실머리가 잡히기...》

《가만..》

형민은 그의 말에 흥심이 없는듯 중도에서 가로챘다.

《기사동무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지?》

《예..》

《곧 수술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소?》

《3일후에 수술합니다. 하던 일을 마치고 곧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린다는 생각도 해야지..》

지수빈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렇하니 피어오르고있었다.

형민은 왜서인지 코허리가 시큰했다. 서둘러 지수빈에게 물었다.

《어떤 실머리가 잡혔소?》

《첨가제 3호를 먼저 쓴 다음 1호를 쓰고 보조 첨가제의 순서까지 바꾸면 염색반응속도가 예상외로 달라질겁니다..》

《순위를 바꾼다?...》

형민은 가슴이 가시 않았다. 지수빈의 안타까운 눈길에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염색기사입니다. 공장의 운명을 책임진..》

《동무가?》

김형민은 지수빈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지배인을 앞에 놓고 아무런 꺼리낌없이 공장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졌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다같이 공장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한 소리이겠지만 그 어조나 표정이 너무나도 태연자약한것이다.

《그런데 송은심연구사는 왜 보냈소? 그것도 공장의 운명을 책임진때문이요?》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갔다구?》

김형민은 다시 지수빈의 얼굴을 쳐다봤다.

《연구사들이 현실속에서 보다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종자로 골라잡고 연구사업을 다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심동무

는 논문제마를 바꾸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은심 동무는 연구소와 토론하고 이미 해오던 연구과제를 뒤로 미루고 산업색방법에 의한 촉매제연구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배인동지가 출장중이어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을뿐입니다.》

김형민은 침묵했다. 도대체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지수빈과 으니암니하기도 싫었다. 그와 말씨름하려고 찾아온것이 아니었다.

순간 형민의 눈앞에는 이상하게도 운전사의 흰 와이샤쯔목깃에 찍힌 밤색반점과 함께 그가 하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별일이라고 했어. 와이샤쯔를 아무리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지. 하다면 찬물조건에서도?...)

김형민은 더 생각해볼수 없었다.

《지배인동지, 우리는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하고?》

《말공부쟁이들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데서 과학기술을 운명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입니다. 당의 뜻을 사생결단의 각오로 받들 대신 실속없이 빈소리만 하는 사람들하고 말입니다.》

(허, 성미가 불같은걸!)

형민은 좀처럼 굽힐줄 모르는 그의 과학기술적 주관이 놀라왔다. 그만한 담력과 배짱이 없어야 무슨 일을 치랴싶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입가진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있다. 말은 하면서도 누구나 다 과학기술에 몸을 내대고있는 것은 아니다.

《사생결단이란 말이 그 무슨 구호입니까? 토론문의 미사려구입니까?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외울뿐 실천에 옮길줄 모른단 말입니다.》

김형민은 머리를 끄덕이며 점차 자기의 사색세계로 빠져들어갔다. 동안이 지나서야 문득 생각난듯 지수빈을 향해 물었다.

《기사동무, 지금 동무자신이 말공부질을 앞세운다고 생각되지 않소?》

《예?》

지수빈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민은 그것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다. 그 순간 머리속으로 섬광과도 같은것이 평곳 스쳐지나며 새로운 령감이 떠오르고 불같은 충동이 일었던것이다.

《실머리가 잡혔으면 다시 시험해봐야지.》

《정말입니까?》

지수빈이 급히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김형민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를 지지해주고싶었다. 자신의 머리속에 떠오른 령감이 그렇게 마음을 돌려세웠던것이다.

김형민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조용히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말버릇이 사나운줄 알았더니 대바르고 씨알이 박힌 친구로군!)

형민은 그를 물리해한 자신이 돌이켜졌다. 그런 지수빈에게 매혹된 은심이가 리해되었다.

(헌데 이 친구를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할텐데...)

손기척소리가 났다. 나들문이 열리더니 승용차 운전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사과구렁이 들려있었다.

《원일이요? 병원에는 안갔겠소?》

《갔었습니다. 지수빈동무의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김형민의 눈길이 사과구렁이에 가 박혔다.

《이건 수빈동무의 어머니가 지배인동지에게 보내는겁니다.》

《뭐요?》

운전사가 영문을 몰라하는 김형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간호원의 안내로 입원호실에 들어서니 수빈동무가 살고있는 인민반사람들이 한발 앞서 병문안을 왔더라는것, 인민반장이 아들대신 운전사가 나타난것을 알고 못내 서운해하자 수빈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니라고 밀막더란것. 그 녀석이 제 어미가 수술한다는걸 알게 되자 찾아오곤 하는데 지금 하는 연구사업이 더 중한것이니 제 어미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있다면 말은 일에 전념하라고 했더라는것이다.

《사과구렁이는 왜 들고 왔소?》

《수빈동무의 어머니는 지배인동지가 보낸 효모빵을 맛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아들이 보내왔다는 지함속의 사과중에서 큰것만 골라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지배인동지가 젊었을적에 사과를 무척 좋아했다면서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김형민은 깜짝 놀랐다. 그 녀인이 누구길래 자기의 식성까지 꿰들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지배인동지는 수빈동무의 어머니를 잘 모릅니까?》

운전사가 물었다.

김형민은 말문이 막혔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 어머니는 지배인동지를 잘 알고있습니다. 방직공장 공무직장에서 작업반장을 할 때 1년간 함께 일했답니다.》

《그럼 흥반장이?...》

형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뿔난 송아지처럼 헤덤비던 흥안의 시절,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바로 딛도록 손잡아 이끌어준 그 녀인을 여태 모르고 지내오다니? 대학졸업장을 받

아침 그날 형민은 방직공장을 찾아갔었다. 투정질하던 공장을 잊을수 없었고 자기를 대학으로 떠밀어준 고마운 사람들을 잊을수 없었다. 그때 흥반장은 이미 나이가 지나 구성에서 사는 딸아들네 집에 가 없혀산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편지 한두장을 띄웠을뿐 지금껏 감감 잊고 살아왔던것이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배인동지는 젊어서부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끝내 성공했노라고, 기사가 되고 부기사장이 되고 지배인이 되었노라고 자기네 작업반에서 큰사람이 나왔노라고 자랑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직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딸아들집에서 몇달전에 이사를 왔답니다. 고기도 제 놀던 물이 좋다고 공장을 잊지 못하겠더라는겁니다. 찾아오려고 맘먹었다가도 늙은 몸의 의탁이나 하려다니는것 같고 바쁜 사람한테 짐이 될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었답니다.》

형민의 머리속에는 병원에 온전사를 보낼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갔어야 할걸 그랬다는 때늦은 후회가 치밀었다.

《하지만 한번 찾아오겠답니다. 지배인이 된걸 축하도 해주고 아들녀석이 제구실을 하는지 알아도 볼겸.》

온전사가 사과구력을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감미로운 향기가 방안에 가득찼다.

(사과는 왜 향기로운가?)

김형민은 사과구력에서 좀처럼 눈길을 땔수 없었다.

(나에게 그런 향기가 있었던가?)

## 4

아침부터 물길공사장에 나가있던 김형민은 저녁무렵에야 돌아왔다. 노동자들과 함께 곡괭이를 휘둘렀더니 어깨가 빠근하고 온몸이 녹작지근하였다. 공장참모회의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는 전화로 공무직장장을 찾았다.

《김형민이요,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옷감의 원가가 얼마지 아오? 얼마라구? 잘 모르겠다? 그럴수밖에요 공무직장장은 원가야 회계실에 물어보면 제격 알텐데 왜 하필 자기에게 묻는지 모르겠다는듯 프칙한 태도였다.》

《직장장동무가 오늘 그 옷감의 원가를 얼마나 높여놓았는지 아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야 천짜는 직장도 아닌데.》

《동무도 기사지?》

대답이 없었다.

《동무는 왜 물길공사장으로 나오지 않았소? 왜

기계가 할 일을 노동자들의 폭힘으로 대신하려고 하오? 소형굴착기 한대면 두세시간에 처리할 토량을 수십명씩 달라붙어 절반도 축내지 못했소.

동무는 노동자들과 함께 소형굴착기창안문제를 토론해보았소? 기술발전계획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둘러리>계획인줄 아오? 기사라는 사람이 안되겠소. 참모회의때 봅시다.》

김형민이 숨둘릴 틈을 주지 않고 공무직장장을 다불러대고났을 때였다. 지수빈이 병글거리며 방안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도면두루마리가 쥐여져있었다.

《왜 왔소?》

《수정한 ㅅ염색공정도입니다.》

지수빈이 언젠가처럼 지배인의 앞책상우에 도면두루마리를 펼쳐놓으려고 했다.

《그만두시오.》

지수빈이 흠칫 어깨를 열었다.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소? 기사장동무와 토론하시오.》

《예?》

지수빈의 의아한 눈길이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동무는 말하지 않았소?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한다고.》

《제가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김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배추밑동 도리듯 짝 잘라 말했다.

《아니요. 동무는 옳게 말했소. 무척 힘든 말을 해줬소.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말을.》

《고맙습니다.》

《무슨 소릴. 그 말은 내가 동무한테 하자던 소리요.》

형민은 지수빈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문제는 말투나 행동거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때문에 누구와 맞섰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자신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야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봐주십시오.》

지수빈이 다시 종이두루마리를 펼치려고 했다.

《동무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소?》

《그런게 아닙니다. 지배인동지는 ㅅ염색을 예견하여 벌써 물길보수공사를 벌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조직해준 기술협의회는 또 몇차례구요.》

《발라맞추는건 좋은 버릇이 못되오. 명심하시오, 금물이라는걸.》

김형민은 지수빈을 향해 무뚝뚝하게 내왔다. 겉으로는 푸접없이 대했지만 속으로는 그에게 여간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바로 딛도록 이끌어준것이 흥반장이었다면 그는 중년기에 이른 자신의 운명을 채심하도록 제때에 채찍을 안긴 젊은이었다. 현실을 투시해보는 예리한 안목, 부정과 타협할줄 모르는 올곧은 성미.

어려운 모퉁이에 자기를 먼저 내대는 걸바른 마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청년인가. 글썄 이런 청년이 흥반장의 아들일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대나무그루터기에서 대나무가 솟는다고 지수빈이 오늘처럼 대바르고 제 몫을 하는 기사로 되기에는 그의 어머니 흥반장의 숨은 노력과 엄한 신칙이 있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껏 제 몫을 어떻게 해왔는가. 공장의 운명이자 지배인의 운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대담하게 기술혁신할 생각을 못했다.

지금처럼 한자리에서 맴도는 방법의 재래식 기술혁신만으로는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새것을 지향하여 부단히 가슴 끓이며 첨단기술로 결괏있게 도약할 생각을 못했다. 단순한 기술부족, 두뇌차이때문에?...

그의 머리속에는 공장을 잊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던 흥반장의 말이 고괏치며 떠올랐다. 이제 보니 지배인의 손탁이 묶어졌다는 소리를 듣게도 되었다.

김형민은 방안을 거닐다가 지수빈에게서 시선이 떴었다.

《왜 그렇게 서있소? 기사장동무와 토론하라고 하지 않았소?》

《?...》

지수빈이 그냥 몸돌바를 몰라했다. 지배인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모양이다.

《동무는 내 말뜻을 그렇게도 모르겠소?》

《예?》

《우리는 첨단기술로 도약해야 하오. 대담하고 통이 크게. 헌데 공장에 나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김형민의 눈앞에는 짧은 순간에 형형색색의 군상들이 스쳐지나갔다. 아무 일도 치르지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허풍쟁이들, 국가에서 쥐여준 기술자격증을 함속에 보관한채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식객들,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고 목에 피대를 돈구어 웨치면서도 과학기술을 나라의 운명, 조국의 운명과 귀착시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동무는 정확히 표현했소. 사생결단이란 말은 그 어떤 구호나 토론문의 미사려구가 아니요. 헌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외우고있단 말이요. 문제는...》

김형민은 잠간 이야기를 끊고 탁자우의 주전자에서 물 한고뿌를 따랐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각성시켜야 하오. 그들

의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하오. 독불장군이란 없소.

먼저 공장의 기술자대중이 발동된다고 생각해보오. 어떻소? 내 말뜻을 알겠소?》

《알겠습니다.》

지수빈이 활기에 넘쳐 대답했다.

김형민은 고뿌의 물을 마시려다가 급히 돌아서는 그를 멈춰세웠다.

《가만, 어디를 가오?》

《?》

《시제품생산은 어떻게 됐소?》

《제대로 되어갑니다.》

《왜 진작 그 말부터 하지 않소?》

《아직 시제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공연히 말을 앞세웠다가 코를 때울것 같아서.》

《허허... 은심동무한테서는 아직 소식이 없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낮차에.》

《그래?》

김형민은 연구사가 되돌아온것이 반가왔다.

《지배인동지를 먼저 찾아왔다가 방이 비어서.》

《그럼 좀 기다릴 노릇이지. 성과가 있던가?》

《예, 큼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촉매제를 찾아내기 전에 서로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음!-》

김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생각이 깊어졌다. 웬일인지 목덜미가 화끈 달아오르고있었다.

《연구사동무가 지금 어디에 있소?》

《염색기술준비실에 있습니다. 그 동무가 연구한 새첨가제와 우리가 찾아낸 3호를 합치면 착색반응이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시험중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왜 여기로 왔소? 거기에 참가하지 않고.》

《이제 곧 가겠습니다.》

지수빈이 급히 돌아섰다.

김형민은 그가 사라진쪽을 지켜보다가 혼자서 머리를 끄덕이었다.

(은심이가 지금 시험을 하고있단 말이지. 그러니 저들은 이미전에 운명의 배를 함께 탄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김형민은 자신이 돌이켜졌다. 하마트면 무슨 창피를 당할번 했는지 모른다.

《그냥 좀자르고있을수 없지. 나도 저들을 따라가야 해! 지체말고.》

김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비록 멀다 해도 누구나 가야 할 보람있고 행복한 길이었다. 그는 결괏있게 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운명의 길이었다.

당창건 60돐, 조국해방 60돐을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의 불길높이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에서-

## ◇수필◇

# 먼길을 가는 사람들

김명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먼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루에도 몇십리씩 높낮은 산발들을 넘나드는 지질탐사대원들로부터 시작하여 큰강을 막아 언제를 일떠세우고 또다시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 떠나는 발전소건설자들 그리고 풍년가을을 향하여 이른새벽부터 포전길을 밟아나가는 농장원들...

하지만 조국의 대지에 큰 자욱을 남기는 위훈자들의 발걸음은 땅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하에서도 조국을 위한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천연의 암벽을 밀어제끼며 한치한치 걷는 그 길은 멀지 않아도 그 자욱이 가지는 위훈의 크기에 대하여 나는 얼마전에 찾은 어느 한 탄광에서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널리 알려 지지 않은 공훈광부를 만나 그에 대한 글을 쓰는것, 이것이 취재목표였다.

헌데 쉽게 만날수 있으리라던 생각은 틀어지었다.

《그 동무는 지금 막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나선 경부문당비서동무의 말이었다.

갱입구에는 우리를 태울 인차가 대기하고있었다. 비서동무가 등을 떠밀었으나 우리는 선뜻 오를수 없었다. 탄부들이 오랜 기간 구슬땀을 흘리며 열어놓은 갱을 인차에 앉아 쉽게 들어갈수 없었던것이다.

《우리는 걸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인차를 떠나보내고 비서동무의 뒤를 따라 갱으로 들어갔다. 한겨울에도 훈훈한 기운이 도는 기본갱은 지하로 끝없이 뻗어들어갔다. 울리굴이 있는가 하면 내리굴이 있고 옆으로도 갈래굴이 수없이 뻗어나갔다.

새 굴길이 나질 때마다 비서동무는 갱에 깃든 력사와 탄부들이 걸여온 빛나는 자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이 길에서 공훈광부가 거의 한생을 바쳐 일했다고 하니 그는 진정 얼마나 먼길을 걸어온셈인가.

(그를 어서 만났으면...)

나의 마음은 조바심쳤다. 허나 우리는 몇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탄부들의 투쟁모습을 지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착암기를 기관총처럼 틀어잡고 암벽을 뚫는 착암공들이며 탄을 뭉테기로 떨어뜨리는 채탄공들, 캐여낸 탄을 쉬임없이 실어내는 벨트콘베아운전공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굴진중대 3소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는 방금 발파를 하여 떨어뜨린 버력을 광차에 실어내고있었다. 버력적재기작용을 쓰며 삽날을 폭 박아 버력을 번쩍 쳐들어련이어 광차에 쏟아놓는다.

《저 동무가 바로 그 탄부입니다.》

부문당비서동무가 나이지긋한 운전공을 가리키었다. 나는 한동안 났없이 그의 작업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썹이 짙고 코마루가 두드러져 퍼그나고집스러워보이는 탄부는 얼굴에 구슬땀을 흘리며 련속적으로 버력을 처리해내고있었다. 그 거물을 움직이는 동작이 얼마나 민첩하고 정력에 넘쳐있는지 20대의 팔팔한 청년을 련상시켰다.

그의 걸쭉 일숨씨를 지켜보는 사이에 높이 쌓여진 버력더미는 없어지고 갱은 또다시 한메터 전진해들어갔다.

부문당비서동무가 그를 교대해주어서야 우리는 탄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여기서 몇해나 일했습니까?》

《30년 되지요...》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는 말수가 적은 아با이었다. 허나 우리는 퍼그나 놀랐다.

(30년.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탄을 캐울것인가...)

이번에는 그에게 하루에 갱을 몇메터나 《걸어》가는가고 물었다.

탄부는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으며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그저 마음뿐이지요.》

그는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인듯 싶었다. 얼마나 소박하고 진정에 넘친 말인가. 나

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하를 뚫고 나가는 일이 땅우에서 걷는 걸음과 같은가.

그들이 걷는 길은 단지 길이로만 계산할것이 아니다. 그들이 흘린 구슬땀과 애국의 마음에 의해서 쌓여지는 재부의 무게로 계산되리라.

그들이 수천척지하에서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여 캐여낸 석탄이 있어 조국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고있지 않는가. 그들이 캐낸 석탄은 그대로 열이 되고 힘이 되어 발전소를 돌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갖가지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게 하며 인민들의 복된 생활을 꽃피워주고있다.

(먼길을 가는 사람들!)

나는 마음속으로 뇌이었다. 탄부들이야말로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길에서 진정 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싶다.

그들이 걷는 한걸음한걸음은 단지 암반을 뚫고

나가는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다. 인민의 기쁨을 커가게 하는 길, 나라의 경제력을 키워가는 길,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앞당겨가는 보람찬 투쟁의 길이다.

그 걸음이 비록 험치는 않아도 흘린 땀이 진하고 바치는 마음이 뜨겁기에 더욱 소중하고 값있게 여겨지는 탄부의 길.

하지만 이제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그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혁명천만리길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끝없이 행군길을 다그쳐가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 숨은 영웅들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도 우리 탄부들은 뜨거운 애국의 열의를 폭발시켜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고있다.

## ◇수필◇

# 피묻은 망치

김광수

얼마전 나는 최동무네 집에 갔다가 자루가 긴 망치 하나를 보았다.

항간에서 《딱따구리》망치라고 불리우는데 산발을 탈 때 지평이삼아 짚고나일수도 있고 한끝에는 쇠망치가 달려있어 돌덩이도 썰수 있다.

나는 그 망치를 보면서 집에 지난 시기 누가 탐사부문에서 일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고 지나치듯 말했다.

흔히 탐사대원들이 산을 오르내릴 때 지평이로도 쓰며 광석을 채취하던 생각이 나서였다.

내가 망치를 들고 흔들어보이며 하는 말에 최동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런 말을 물려주는것이였다.

《그 망치엔 우리 할아버지의 피가 스며있네. 대를 이어가며 잊지 못할 일제놈들에 대한 피땀한 원한이 어려있는 증거물이기도 하지.》

나는 최동무에게서 그 《딱따구리》망치에 깃든 피땀한 원한의 력사, 해방전 일제놈들이 조선인 광부들에게 가한 원한의 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어둑컴컴한 금광의 어느 한 막바지갱안, 호박씨같은 가스등불이 흔들림없이 긴장하게 두사람의 격투를 지켜보고있었다.

사생결단의 대결이였다.

피흐르는 두사람의 얼굴이 카바이트등 불빛에 협상하게 비쳐져 어룡거렸다.

감독 겐지놈이 입안의 피를 내뱉으며 뇌까렸다.

《네놈을 죽여버릴테다. 과업을 선동했지...》

《이 쪽발이야, 누가 죽는가 해보자.》

치고 차고 맞붙어 덩구는 치열한 피의 격투.

이런 때 아버지를 찾아오던 어린 소년광부가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어린 광부는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도울수 있을가 하고 고양이처럼 몸을 도사렸다.

몸이 황소같은 겐지놈이 아버지를 타고앉아 목을 조이다가 옆에 뿌려졌던 자기의 《딱따구리》망치를 들어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억-》하는 광부의 비명소리.

살기가 뻗친 눈으로 좌우를 살피며 희번덕거리던 겐지감독놈은 쓰러진 광부를 질질 끌어 한쪽 구석에 있는 수직갱에 집어던졌다.

《흥, 귀신도 모를테지...》

이 순간 소년광부는 총알같이 달려나가며 겐지놈을 수직갱안으로 확 밀어넣었다.

《악...》하는 겐지놈의 비명소리, 몸뚱아리가 굴간돌벽에 《툭툭툭툭》부딪치는 소리가 한창 나더니 조용해졌다.

소년광부는 아버지의 피와 살점이 묻은 《딱따구리》망치를 움켜쥐며 피타게 웨쳤다.

《아버지!!》

이것은 최동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은 일

제식민지통치시기에 있었던 한토막의 이야기였다.

《일제놈들은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이야. 피의 결산을 우린 아직 못했어.》

최동무는 피묻은 망치를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피묻은 망치!)

그 증견물을 보며 나는 일제놈들에 대한 증오로 치가 떨렸다.

일제놈들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최악의 역사는 얼마나 뿌리깊은것으로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웅어리져 뱃혀있는것인가.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일제의 최악은 산천초목도 치를 떨게 한다.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의 조작, 대륙침략기지로 예측시키려는 일제의 간악한 책동,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극악한 무리들, 그후 40여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것이었다.

일제는 우리 인민을 파리목숨처럼 여겼다.

3. 1인민봉기와 6. 10만세운동, 《경신년대토벌》때 우리 민족을 생매장해죽이고 작두로 목을 잘라죽인 일제살인마들, 간포대지진시 감행한 조선인대학살만행은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서 인간의 체험과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범죄였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범죄적인 《731부대》의 생화학무기실험대상으로 삼고 무참히 살해한 귀족같은 만행들이 신천에 그대로 새겨져있고 《지하대본영》을 비롯한 많은 비밀군사기지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의 리유로 가장 악랄하게 집단학살한 행위들은 지금도 하늘땅에 새겨져있다.

## ○작가일화○

# 전쟁을 멈추게 한 스위프트

에스빠냐에서 새 왕을 내세우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까지 하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저마다 저희들에게 충실한 사람을 내세우기 위하여 암투를 벌려왔고 그러다가 마침내 군대까지 내몰아 전쟁까지 일으켰다. 오래동안의 이 전쟁으로 하여 영국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스위프트(1667~1745)는 침략적이고 반인민적인 영프전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840만여명을 강제편행하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삼았으며 추악성이 드러날것이 두려워 집단학살한 만행들.

생각할수록 지난 시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끝자면 끝이 없고 구천에 사무쳐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떠한가.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을 할대신 패망후 반세기가 넘도록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며 온갖 간악한짓을 다하고있다.

흐르는 세월속에 그 최악의 역사를 묻어버리기 위해 여우도 낯을 붉힐 잔피를 계속 꾸며내고있다.

우리보다 천여년이나 늦게 조선동해에 독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일본이 그 《령유권》을 운운하는가 하면 《가짜유골》사건까지 조작하여 일본 국민들속에 살벌한 대조선적대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있다.

그러나 역사는 공정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결산은 반드시 되여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일본군국주의놈들은 《딱따구리》망치의 끝을 더욱 예리하게 베풀어가고있다.

조선민족을 찍어넘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다.

대를 이어 칼을 버리는 간악한 일제, 백년숙적 일본군국주의와 그 결산을 톡톡히 하지 않고는 한하늘아래서 함께 살수 없다.

우리의 선군총대는 무자비하며 그앞에서는 어떠한 적도 배겨낼수 없다.

나는 최동무의 부모들의 피가 스민 살인흉기였던 《딱따구리》망치를 보면서 일본군국주의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두툼한 작품을 쓸 결심을 하였다.



## 작은것으로부터 큰것으로!

권선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의 독자는 어린이이다. 아동문학작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씌여지는것만큼 그 예술적가치는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데 있다. 어린이의 동심에 맞지 않는 아동문학작품은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아동문학작품의 생명이 동심에 있다는것은 너무나 흔히 해오는 말이며 그러면서도 종종 잊게 되는 말이다.

아동문학작품의 동심은 우리의 주인공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작품의 사상정서적공감으로, 어린 독자들을 떠미는 무한한 추동력으로 된다.

아동문학작품을 어린이 쓴다고 하여 창작가의 원숙한 정신미를 체현한 《어른스러움》을 아이에게 주입한다면 우리의 어린 독자들앞에는 색동옷에 딸랑이를 든 어른이 우습강스럽게 서있게 될것이다. 하기에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한편의 동요, 동시라 할지라도 문단에 내놓으며 아이들의 《눈치》를 살핀다.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누구에게나 묻고싶은 말이다.

작가의 높이를 작품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물음앞에 몇몇한 작가만이 우리 아이들의 친근한 벗으로, 다정한 선생님이 될수 있을것이다.

잡지 《아동문학》(주체93(2004). 1호)에 실린 동시《연피우기》(성연일작)는 아이들의 동심을 잘 살린 작품으로서 마치 아이들의 놀음놀이에 한몫 끼운 심정으로 읽게 된다. 연피우기가 한창인 드넓은 마당에 자신도 세워보며 절로 흥이 돋아 아이들과 함께 연을 띄우며 해를 지우고싶은 심정이였다.

어른도 읽고 좋아하는 작품, 아니 그보다 앞서 점잖고 틀진 어른을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동심세계로 한껏 떠밀어준 작품이므로 우리의 어린 독자들에게서 응당한 환영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설날기쁨 가득찬 푸른 하늘에  
우리 띄운 하얀 연이 잘도 오른다  
철이야 실꾸리를 더 가져와라  
해님 있는 곳까지 연을 띄우자

아이들의 기쁨이 그대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며 그 하늘가에 잘도 오르는 하얀 연은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한점 그늘없이 행복한 웃음만을 터치는 우리 어린이들의 발랄한 정서를 그대로 환기시켜주며 연피우기에 신이 난 아이들의 동심을 꾸밈없이 펼쳐준다. 아이들은 가없이 푸른 하늘을 자유로이 날고싶은 천진한 마음도 함께 싣고 연을 띄운다.

장난과 모험이 없이, 꿈과 희망의 엉뚱함이 없이 어찌 장난국은 어린 시절이라 하랴!

누구나가 맞고보낸 그런 어린 시절이다.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멀리까지.》

이런 경쟁심, 무슨 일에서나 지려 하지 않는 승벽심은 아동들에게 일반적으로 내재하는 심리현상이며 그로 해서 아동문학작품에서 어린이들의 동심이 더욱 잘 살아난다고 볼수 있다.

해님 있는 곳까지 연을 띄우게 실꾸리를 더 가져오라고 웨치는 아이들의 동심! 벌써 여기에서부터 시인은 아이들의 동심에 자연스럽게 《육박》하여 그들을 연피우기로 신이 난 푸른 하늘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다고 볼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한 시인에게 있어서 실꾸리를 더 가져오라고 청을 뽑는 아이의 형상은 다음의 사상정서적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로 되고 시인의 의도대로 독자들의 감정세계를 이끌어가는 《안내자》로 되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설날해님은  
우리에게 한살씩만 주고 가누나  
그래서 새해 맞아 너는 아홉살  
나도야 새해 맞아 겨우 열한살

이 시련에 흐르는 주인공의 심리정서는 무엇인가!

설날이 오면 아마 제일 좋아하는것이 아이들일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설날과 함께 뛰노는데만 아이들의 기쁨이 있을가. 설날이 오면 아이들은 한살 더 먹었다는것으로 해서 무엇보다 기쁠것이다.

하지만 시련에는 서정적주인공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도 아쉬움으로 해서 성차지 않는 어린이의 동심이 질게 흐르고있다.

어찌 보면 한살밖에 주지 않는 설날해님에게

불이 부어 겨우 열한살밖에 안되게 된 투정질이  
라도 한바탕 해보고싶어하는 동심이 도간도간 엇  
보였다.

그로 해서 작품이 아이들의 동심세계에 깊숙이  
들어갔다고 보아진다.

서정적주인공인 《나》를 비롯한 아이들의 아쉬  
움은 무엇이며 한살씩만 주고 가는 설날해님으로  
해서 불부는 형상의 묶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해명은 마지막편에서 주어지고있다.

푸른 하늘 저 끝까지 연을 띄워서  
설날해님 못가게 매놓자꾸나

저런, 환상의 수법에도 어벌이 이만저만 크지  
않다. 해님을 못가게 매놓자고 한다. 그것도 연을  
띄우는 실꾸리로...

절로 웃음집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서정적주인  
공의 형상이 매력적이며 그것으로 해서 더욱 귀  
엽고 사랑스럽다.

해님을 매놓아선 무엇을 할가?

기대와 흥심으로 이어지는 정서적흐름은 어린  
이의 동심에 젖은 목소리와 함께 연속적으로 이  
어진다.

어서 빨리 군대로 갈 나이가 되게  
한꺼번에 열살씩 주고 가래자

저런, 한살이 아니라 열살씩이나 주고 가라 한  
다.《욕심》도 이만저만 한 욕심이 아니다. 굴뚝같  
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같은 《욕심》이 아닐수 없  
다. 한살 나이도 성차지 않아 하는 어린이의 동  
심은 어른들이 혀를 찰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

《빨리 컸으면》하는 어린이의 동심이 《어서 빨  
리 군대에 가》고싶어 하는 마음에 깃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연 띄우기》로 시작된 서정적주인공의 동심은  
드디어 시대정신이라는 《항구》에 《땀》을 내  
리었다.

시는 《땀》을 내렸지만 독자의 마음은 끝없는  
상상의 대하를 유유히 헤가르고있다.

시에는 어른의 마음도 깃들지 않고 목소리도  
습배지 않았으며 점잖은 얼굴도 전혀 엇보이지  
않는다.

천진하고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동심이 매 시편  
에서 독특한 향기로 흘러나오고있으며 귀엽고 사  
랑스러운 얼굴이 엇보이던 끝에 선군시대 아이들  
의 《의젓한》 얼굴이 기특하게 안겨온다.

《작은것》과 《큰것》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연 띄우기에 신나는 《작은 아이》가 앞날의 영  
웅군대로 자라는 《큰 아이》로 불쑥 솟아올라 뚜  
렷이 부각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동문학에서는 사상을  
론리적으로 주입하려 하지 말고 흥미있는 형상속  
에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  
치시었다.

아동문학에서의 요란한 사상은 추상적인 사유  
가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소화하기  
힘든 돌덩이나 같다. 고양이에게 소대가리 맡기  
는격이라고 할지...

아동문학에서 예술적형상은 감정이 예민하고  
모든것을 감성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는 어린이의  
특성과 미감에 맞게 될수록 감각적이어야 하며  
음악적인 톨동감이 있어야 한다.

동시 《연 띄우기》는 아동들의 천진관만한 감정  
을 아기자기한 형상으로 펼쳐보이며 시대정신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린 본보기작품이라고 생각한  
다.

지난해 잡지 《아동문학》 1호에 실린 동시로서  
한해의 아동시의 격을 높여놓았다고 할수 있다.

오늘의 가슴벅찬 선군의 시대는 온 나라에 선  
군의 열풍을 불려일키며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  
가 되는것을 가장 큰 행복과 영광으로, 최대의  
리상과 포부로 여기는 고상한 료리를 낳고있다.

이로부터 우리의 어린이들속에는 어서 빨리 커  
서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고싶어하는 열망이  
강렬하게 지배되며 그것은 곧 놀음놀이를 해도  
군사놀이를 하고싶어하고 꿈을 꾸어도 미제놈 잡  
는 꿈을 꾸는 동심의 세계로 표현되고있다.

《밥을 적게 먹어도 군대에 못나가》, 《동무와  
다투어도 군대에 못나가》하는 식의 타이름으로  
아이들을 교육교양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쉬이 찾  
아볼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듯 온 사회에 차고 넘치는 선군사상, 선군  
의 열풍을 가장 단순한 아이들의 동심으로 반영  
하고 가장 작은 그릇으로 담아낸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작품은 아이들의 성장  
에 필요한 정신적양식을 주며 세계관형성단계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말없는 교과서로서의 사명  
과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동시 《연 띄우기》는 시대정  
신을 다정다감하고 아기자기한 동심의 세계에 용  
착시켜 감명깊은 시형상으로 진실하게 형상화한  
좋은 경험을 낳았다고 볼수 있다.

제목에서 보다싶이 어린이민속놀이를 시적소재  
로 하고있으며 그렇게 시가 시작되고 끝을 맺는

다.

그러나 동시는 《연퍽우기》가 아니라 《선군동이의 꿈》이라는 사상정서적내용으로 장식되고있다.

작고 평범하게 첫발을 댄 《연퍽우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선군동이의 꿈》으로 큰 걸음을 성큼 내짚었다고 할수 있다.

동시는 시적소재와 해결에서만 아니라 동심세계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작은것을 큰것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한살밖에 주지 않는 설날의 해님을 《못마땅해》하는 어린 아이의 동심이 어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내면서 한해에 열살씩 주고 가라고 해님을 실꾸리로 매두자고 하는 대담한 환상의 세계로 육박함으로써 작고 웅골차던 동심을 큼직하고 환희로운 《욕심》의 세계로 무리없이 끌고 갔던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작품이기에 동시는 《연퍽우기》에 신난 작은 아이들을 앞날의 영웅군대를 꿈꾸는 큰 아이로, 선군동이로 부각시켰다. 《선군》이라는 시대정신이 요란한 웨침으로 울리지 않는데 비해 오늘의 시대에 열렬히 호응하는 선군동이들의 뜨거운 숨결이 놀라울 정도로 강렬히 맥박친다.

생경하게 로출된 사상이 아니라 생활속에 침투된 시대정신으로 아이들에게 담썩 안겨주었으며 아이들은 역시 시인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작은것으로부터 큰것으로!》

아이들의 동심에 시대정신을 체현시킨 여기에 작품의 진실하고 감명깊은 형상력이 있으며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우는 사상정서적감화력,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소박하고 조용한 시형상으로 선군동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힘있게 부각한 훌륭한 작품이다.

잡지 《아동문학》(주체94(2005). 1호)에 실린 동시 《민들레와 고사포》(김청일, 라경호)도 두번째번 거듭 읽고싶어진다.

《민들레와 고사포》!

다람이옆에 놓인 코끼리처럼 너무나 엄청난 대비가 아닌가싶다.

해빛따스한 언덕에 곱게 피여 산들바람에 잎새를 하느적이는 민들레, 그결에는 엄엄함을 시위하듯 포신을 추켜들고 꿈쩍않는 고사포.

동심으로 새겨안기에는 너무나 큰 대조이다.

민들레와 고사포는 그 모양과 크기는 물론 시야에 비끼는 감정정서적느낌도 서로 판이하다.

한눈에 새겨보기에조차 숨가쁜 두 시적대상은 정서적느낌에서 더욱 큰 간격을 가지고있으며 아

득한 높이를 이루고있다.

동그런 포진지엔 고사포 우뚝  
그아래 전호가엔 민들레 방실

동그런 포진지에 우뚝 선 고사포와 전호가에 방실 웃는 민들레는 독자의 생각 그대로 어울리기 무척 힘든듯싶다.

보기에는 똑쟁이 무뚝뚝해도  
민들레는 고사포를 좋아한대요

《똑쟁이 고사포》, 《무뚝뚝한 고사포》라 이야기하면서도 민들레는 고사포가 좋다고 한다.  
(거짓말, 무뚝뚝한 똑쟁이가 무엇이 좋담.)  
도리도리 고개젓는 독자들에게 민들레는 《뜨겁게》이야기한다.

간밤에도 저희들이 단잠잘 때에  
고사포는 뜬눈으로 새웠다나요

원썩들이 몰래몰래 기여들가봐...  
꽃동네의 고운 꿈 흠쳐갈가봐...

민들레의 단잠을 지켜, 꽃동네의 고운 꿈을 지켜 뜬눈으로 새웠다는 고사포가 얼마나 정차고 고마운가.

그래서 민들레는 고사포를 무척 좋아한다고 가식없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민들레는 그 수고가 하도 고마와  
향기향기 꽃향기 드린답니다

어찌 보면 재미난 동화이야기의 한토막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공감의 세계가 있다.

고사포가 지켜주는것이 어찌 민들레의 단잠뿐이랴!

고운 꽃동산에 울긋불긋 곱게 핀 수천수만 꽃송이들의 단잠도 지키며 꽃동네의 갓가지 고운 꿈도 모두 지킨다.

하다면 해빛 따스한 꽃동산의 민들레는 누구며 좋아라 웃는 천만꽃송이는 대체 누구들인가?

작고 아담하면서도 재미나고 감동적인 동화이야기처럼 《무뚝뚝한 고사포》와 《방실 웃는 민들레》의 《사이좋은》 형상속에는 무한히 깊디깊은련상의 세계가 있다.

또 고사포를 좋아한다는 민들레의 《속살거림》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그

《속삭임》끝에 고마움으로 젖어들기도 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도 자래우는 감명깊은 형상세계는 그 얼마나 자연스럽게 싹터오는가.

민들레와 고사포에 전의시킨 시인의 사상적의도는 진실한 형상의 옷을 입고 누구나 알수 있고 느낄수 있도록 재미나면서도 뜻이 깊게, 아담하면서도 독특하게 펼쳐져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쉽게 새겨안는 그런 세계가, 그로 해서 더욱더 두터워질 사랑의 세계가 작은 동시에 깃들어있음으로 해서 읽고 읽어도 싫지 않다.

동시에는 인민들이 단잠든 깊은 밤에도 찬이슬 내리는 전호가에서 수호의 밤을 지새는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형상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고사포》의 형상으로 주어져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깊은 감명과 친밀감을 더해 준다고 해야 할것이다.

동심이 구현된 시형상으로 《민들레와 고사포》라는 엄청난 대상을 하나로 융합시킨 여기에 시의 생명이 있고 진실한 공감력이 있다.

일부 시들에서처럼 《군대아저씨들이 우리 행복 지켜준다》든가 《인민군대아저씨들 꽃봉오리 단잠 지킨다》와 같은 표현으로 직선적인 사상을 로출시켰다면 시는 재미나게, 감동깊게 안겨오지 않았을것이다, 《민들레와 고사포》를 시적대상으로 세워놓고 그를 서로 대조시키는것으로만 끝냈다면 역시 기발한 착상이기보다 엄청난 놀라운 《어울림》으로 의문시되고말았을것이다.

《민들레와 고사포》라는 대상에 감정을 부여넣고 언어를 주며 아이들의 동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무뚝뚝한 고사포를 좋아하는 민들레의 진심을 아기자기한 형상으로 둔구어낸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모양과 크기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민들레와 고사포이며 시야에 비껴오는 정서적느낌에서도 상반되는 민들레와 고사포이다.

그러나 시인의 손에서 특색있게 형상화된 민들레와 고사포는 놀랍게도 《사이 좋게》 어울리는 《딱친구》가 되었다.

서로가 돕고 위해주는 가룩한 마음과 함께 땀 뻘뻘 땀 없이 하나로 결합될 《의지》도 은근히 풍겨나온다.

이것은 결코 들가에 흔한 민들레와 전호가의 고사포에 한한 동화적이야기가 아니다. 포진지에 우뚝 선 고사포가 있어 그아래 전호가엔 민들레가 방실 웃듯이 이 땅을 지키는 총대가 있어 우리 아이들의 웃음도, 영원한 미래도 꽃필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들레가 향기향기 꽃향기 풍기듯 우리

의 아이들은 축하의 노래춤으로 꽃무대 펼치고있는것이며 그렇게 이어진 걸음들이 최전연초소에 까지 흐르고 흘러 혈연적뉴대를 맺고있는것이다.

땀해야 땀수 없는 혈육의 정,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싶은 선군시대아동들의 원군의 정, 군민의 정을 작고작은 그릇속에 숨쉴있게 담아냈다.

아이들이 잘 알고있는 민들레와 고사포를 그들의 단순한 심리적특성에 맞게 형상화하면서 아이들과 인민군대아저씨들, 조국의 미래와 선군의 총대로 이끌어올린 작품으로서 시대정신도 확연히 체현하고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아이들의 작품은 단순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단순한 이야기속에 두고두고 새겨안는 《깊이》를 심어야 하는것이 아동문학작품이다.

동시 《민들레와 고사포》는 재미나게 엮여졌다. 《뚝쟁이 고사포》를 좋아하는 민들레의 《속살거림》으로 시를 엮어 재미난 동화를 본듯싶다.

아동시에서 흥미문제는 보다 절실하게 나선다.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끌고가서는 정서적공감을 얻을수 없다. 꿀벌이 향기론 꽃을 찾듯이 아이들스스로가 꽃밭에 뛰어들어 향기에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적서 시의 세계에 절로 끌려들게 하여야 시인의 사상적의도를 쉽게 심어줄수 있는것이다.

동화나 소설처럼 재미난 이야기를 펼쳐나갈수 없는 아동시에서 동심적흥미는 재미난 이야기에서도 오지만 더우기는 동심에 폭 젖은 섬세한 표현에서 온다.

《동그런 포진지에 우뚝 선 고사포》며 《무뚝뚝한 뚝쟁이》라는 표현은 고사포의 실체를 잘 부각하는것은 물론 동심적흥미를 둔구는 시어로 된다.

맨 처음 시를 배울 때 읽어보았던 동요, 동시들이 아직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아이때에도 좋았지만 지금 보아도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명동요, 명동시들이 문단에 활자로 찍히운것이상으로 독자들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시내물이 졸졸  
노래하며 흘러가네

푸른 하늘아래로  
노래하며 흘러가네

한굽이를 돌아드니  
불탄 산에 새봄왔네

잔디풀은 다시 돋고  
진달래가 방긋 웃네

-동요 《시내물》  
(윤복진, 주체43(1954)중에서-

산골짜기의 좁은 샘에서 솟아올라 한방울 두방울이 합쳐지면서 시내를 이룬 내물은 흐르고 흐르며 물라보게 일떠서는 조국의 현실을 《놀랍게》, 《기쁘게》 감수하면서 나중엔 평양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 시내물에게 안겨오는 진달래와 잔디풀이며 물마시는 어린 양떼며 전기방아 뽕뽕 도는 물방아간이며 우릉우릉 트랙토르와 우뚝우뚝 새 공장은 얼마나 감동적인 아동심리인가!

흘러흐르는 시내물과 함께 계속되는 동요는 줄줄 노래하는 시내물처럼 자꾸만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

역시 동시 《민들레와 고사포》처럼 묘사시점은 시내물로 되어있지만 아이들의 가법고도 단순하며 생기발랄한 정서로 일관되어있다. 승리한 이땅에 복구건설의 노래 높던 조국의 현실이 작은 동요를 통해 노래처럼, 시내물처럼 흘러나온다.

비록 어른들의 생활이래도 동심화되어 반영될 때, 아이들의 시점에서 노래될 때 얼마나 감동깊은가.

풀 풀 풀풀이네  
스물두형제  
오롱조롱 떼지어서  
어디로 가나

사양공 우리 누나  
회의가는데  
풀풀이네 꼬마들이  
앞장을 서네  
...

누나는 살짜국  
숨었다 가네  
발두렁에 숨었다가  
몰래 내빼네

풀풀 누나를  
찾고 찾다가  
꿀꿀대며 돌아가는  
풀풀이네 꽤  
...

-동요 《누나와 풀풀이네》  
(윤동향, 주체47(1958) )중에서-

절로 벅글썩 웃음짓도록 재미나게 엮어진 화폭이다.

시인의 목소리는 것들임이 없이 사양공누나를 제일 잘 따르는 풀풀이네 패들에 대한 형상만이 펼쳐져있다. 사양공누나의 주인공다운 일숨씨는 풀풀이네 꽤의 재미난 형상으로 감명깊게 노래되고 있다.

수수께끼동요 《이름난 소가 무슨 소냐?》 (리원우, 주체44(1955)) 또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처럼 펼쳐지는가.

동요 《풍년벌의 잠자리》(리원우. 주체69(1980))에서도 볼수 있듯이 성공한 아동시,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른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시들은 모두 재미나게, 흥미있게 엮여져 있으며 더우기는 그 자그마한 이야기속에 깊은 뜻을 담고있다는것이다.

...  
너무너무 벼알이  
무겁게 달려  
땅에 땅에 벼이삭  
닿을듯 한데  
너마저 앉으면  
부러질라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동시중에는 크게 시작 한 시도 없으며 그로 해서 역시 크게 끝난 작품도 없음을 잘 알수 있다.

만풍년든 논벌의 잠자리 한마리가 결코 큰것은 아니다. 누구나의 흥심을 끝만 한 《구경거리》도 아니다.

그러나 시인의 섬세하고도 진지한 관찰에 의해 노래된 잠자리는 주체농법의 밭밭속에서 안아온 만풍년의 현실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우렁찬 《가수》가 되었다.

작은 잠자리 한마리에 만풍년든 벌 전체가 다 비끼게 한 여기에 아동시인의 진정한 창작적묘미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이야기된 두편의 동시 (《연떡우기》, 《민들레와 고사포》)를 아이들이 좋아하는것은 그것이 곧 자기들의 생활그대로이기때문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작은것을 통하여 큰것을 보여주며 작은것으로부터 큰 사상을 도출해내는 여기에 아동문학작가들의 참다운 생의 노래가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아동시인들은 표현 하나, 토 하나도 심중한 사색을 거쳐 다듬고 다듬은 후에도 선뜻 아이들에게 작품 내놓기를 몹시 《주저》 하였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눈동자에 한점 그늘이라도 비끼게 할가보아 백번 생각하고 백번 다듬었으며 순결한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되지 않게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청신한 목소리로 시를 엮었다.

동심의 문은 잠근어져있지 않다.

그러나 진실아닌 거짓이, 제포래 아닌 이상한 어른이 끼여든다면 더욱 꼭꼭 닫기는것이 동심의 문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에게로 통하는 길, 아동작가들의 마음들이들의 세계로 잇는 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는다.

열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동심의 문에 꼭 맞는 열쇠를 쥐기 전에는 아이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

아이들의 생활가까이, 그것도 사상정신적으로 어제날보다 훨씬 조숙한 선군시대아동들의 생활 깊이에 꼭 몸을 잠근 시인만이 어린이의 동심을 살린 진실한 시형상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누구에게나 하고싶은 말이다.

아이들가까이에서 동심을 탐구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아이들속에서 동심을 쫓는 《큰아이》가 되어 재미나는 노래를 엮어 보내주자.

문학창작을 지향하는 아이들의 명시집에서 자꾸만 보여지고 수많은 아이들속에 자기의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며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잊지 않도록 한구절한구절에 백자루의 품을 들여야 할것이다.

아이들의 친근한 벗, 다정한 선생님이 되어 마음의 키를 자래워준다는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허나 고충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렇게 고심한 밤이 아무리 많다한들 좋은 시 한편 받아들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과 밝은 얼굴에 대비조차 할수 있겠는가.

명예는 지니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아이들속에 친근한 그 붓끝이 아이들의 실망을 자아내지 않도록 다듬고 다듬어 구슬같이 엮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 아이들이 잊지 않는 시를...

작은 시로 해서 큰 마음들이 자라도록...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이 어서 마음에 《어른》이 들어앉은 《큰아이》들이 되도록...

## 초불바다

### 전승일

금시라도 웃음 머금고  
청고운 목소리로  
제단에서 홀 뛰어내릴것만 같은  
효순이, 미선이앞에  
백만 초불이 바다되어 타고있다

초불로 살릴수만 있다면  
초불로 효순이, 미선이 눈동자에  
다시 빛을 담아줄수만 있다면  
심장에 불 달아서라도  
온 천지를 초불바다로 뒤덮으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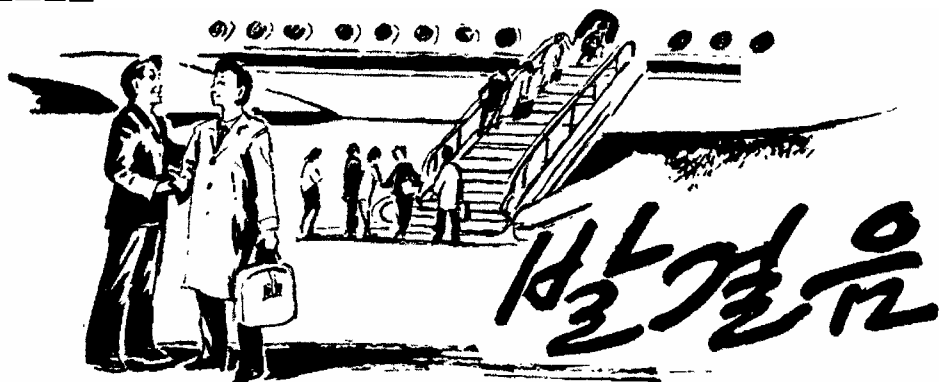
허나 초불바다가 타는  
이 눈물의 시각에도  
또다른 효순이, 미선을 찾아  
미제의 무한케도가

골목과 골목을 뒤져가고있지 않느냐

초불로는  
피문은 무한케도를 녹이지 못한다  
초불만으로는  
피를 찾아 날뛰는  
야수의 철갑을 태워버리지 못한다

오, 남녘이여 남녘이여  
두손에 불을 단 화약을 틀어쥐자  
화약의 바다되어 노도치고  
섬푸른 장검의 바다되어 솟구치자

침략자가 없는 하나된 통일조국이 오면  
아, 우리 효순이 넋이 살아나리  
아, 우리 미선이 넋이 살아나리



김순룡

1

아침차로 교시에 돌아온 연구사 립학철은 려장을 풀어놓자마자 집을 나섰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물결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줄지어선 은행나무들이 푸른가지들을 활짝 펼치고 서늘한 그늘을 던져주면서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한껏 복돋아주고있었다.

이 아침 사람들속에 끼여 걷는 학철의 마음은 더없이 기뻐다. 수도에 있는 중간시험공장에 가 있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오랜 전우인 박준식이 자기네 연구소 부소장으로 부임되어왔다는것이다.

군대선배이고 상관이었던 학철이는 준식이 벌써 연구소 부소장이 되었다니 어쩐지 좀 쑥스러운데가 있기는 하지만 한전호에서 싸우던 전우를 만나게 된다는 기쁨이 컸다. 더구나 지금같이 연구소에서 《옥호동1호》 생산에서 손을 떼고 식물질연구소에 망라될것을 요구하고있는 때에 비여있던 부소장자리에 친구가 들어앉게 되었다는 게 다행이었다.

박준식은 10년전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정세가 긴장한 때에 군대에 입대하였다. 학철은 그때 그의 분대장을 하였다.

학철은 군대에서 동갑나라인 준식이와 1년간 같이 생활하다가 제대되어 대학에 가면서 헤어졌다. 대학에 와 첫 1~2년간은 애먹었지만 3학년때부터는 제노라고 하는 학생들을 모두 따라잡고 최우수학생으로 졸업하였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는 연구소에 배치되어온 다음 물론 자기 사업에 헌신했다. 하여 몇년사이에 팽배에 건달성이 높은 여러 벼종자를 얻어낸데 이어 최근에는 《옥호동1호》란 새로운 전이식물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여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여 과학원에서는 촉망되는 그에게 최첨단과학기술의 하나인 식물질연구소에 참가할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철은 포기해나섰다. 리유인즉은 《옥호동1호》가 생산에 도입되어 은을 나타내기 전에는 다른 연구를 고려해달라는것이였다.

그 리면에는 다른 생각이 짙게 깔려있었다. 몇년동안의 과학연구사업을 하면서 과학연구사업이야말로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것과 같은 고심참담한 탐구와 자기희생적인 노력의 연속이라는것을 사무치도록 절감한 학철이였다. 더우기 연구소에서 학철에게 제기한 식물질연구에 대한 자료작업을 여러차례 해보는 과정에 식물질이야말로 첨단수준의 과학기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연구해낼수 없는 초물질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마디로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탐구와 불철주야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할수 없는 문제였다. 또 어찌보면 한생을 바칠수도 있는 연구사업이였다. 몇년사이에 이룩해놓은 연구성과도 작지 않고 학계를 놀래운 《옥호동1호》와 같은 쉽지 않은 성과도 기록하였으니 이제는 그 연구성과나 공고히 하면서 쉬고싶었던것이다. 다문 1~2년만이라도 새로운 연구사업에서 떨어져있고싶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연구사들이 새 기술원서들을 안고다니며 짬없이 자료채취를 하고 새 기술을 습득하려고 뛰어다닐 때 조용히 시험공장으로 내려가곤 하였다. 팽팽히 긴장되고 들끓는 연구소의 분위기와는 달리 시험공장의 분위기는 펍 여유있었다.

학철은 과학원 행정국에 들러 간단하게 출장보고를 한 다음 연구소에 와서 부소장방의 문을 두드렸다.

《예, 들어오십시오.》

약간 새된듯 하면서도 웅글은 낮익은 소리가 울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식이 무슨 자료를 보느라고 여념이 없다.

《준식동무.》

학철의 걸걸한 목소리에 준식이 고개를 들었다. 코마루가 서고 키폴이 후리후리한 학철을 보는

순간 준식은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일어서 달려나온다.

《아니 이게 누구니까?》

《준식동무!》

학철이도 반가와 바빠 다가오는 준식이앞에 두팔을 내밀었다.

준식의 왼손이 그의 손등을 뜨겁게 꼭 잡는다,

《분대장동지, 보고싶었습니다. 중간공장에 나가서 수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준식동무 보고싶어 행장을 벗어놓자바람으로 달려오는 길ियो. 정말 얼마만ियो.》

학철은 준식을 부둥켜안을듯 그의 두팔을 꼭 잡았다. 오른쪽팔이 차갑고 째깍하다.

《아니 어떻게 된 일ियो?》

《그렇게 됐습니다. 의수입니다.》

《왜, 어떻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쪽새팔에 놈들이 기여들었지요.》

《격전이 벌어졌소?》

《예, 그건 그렇구 분대장동지, 그새 어떻게 지냈습니까? 난 지금껏 세포공학연구소에 있었습니

다.》  
《언제 이야기라구 분대장. 분대장 하면서 이러우. 과학부소장동지!》

학철은 담뱃같은 준식의 실한 앞가슴을 주먹으로 툭 건드렸다.

《하하하.》

두사람은 가뭇게 웃었다.

《나도 아우. 최근에 체세포동물클론화가 학계에서 빅적 떠들기에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였드니 그게 바로 준식동무였던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동물 찾아가 축하하러던 참인데 이렇게 볼썽 우리 상급으로 부임해올줄이야.》

《분대장동지, 날 잘 도와주십시오.》

《또 분대장.》

《분대장동지를 만나니 반가와 그러합니다. 세포공학을 연구하다가 생소한 연구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렇게 분대장동지가 나타났군요. ...정말 군대때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이날 학철이는 머리를 싸매고 대학공부를 할때 이야기며 이곳에 배치되어와서 일해온 과정을 대중 이야기하고나서 《옥호동1호》 연구사업도 중간공장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새 연구과제를 맡기려고 하니 하던 연구를 마저 끝내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새 연구과제를 맡았던가요.》

《<ㅅ>물질이요. 그런데 그게 그리 쉽소.》

《물론 최첨단의 과학이지요. 그러나 해볼만 한

일이 아닙니까?》

《글쎄 믿고 맡기는건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연구만 해놓고 생산을 돌보지 않는 연구사가 어디 한둘이요. 소장동지도 반승낙은 하였소. 그래서 이렇게 시험공장에도 나가있는게 아니겠소.》

《좋습니다.》

준식은 도와줄것을 약속하였다.

## 2

부소장을 만나고 자기 방에 돌아온 학철은 그동안의 실험자료들을 정리하느라 얼마간 시간을 보내다가 동무들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거리에 나섰다. 도서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오니 《당신 기분이 붕 뚝어요.》하고 안해가 새물 새물 웃었다.

학철이는 부소장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인차 시험공장에 출장나갈 준비를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부소장칭찬을 하였다.

《그 동무 그동안 틀이 잡혔더군. 군대때하고는 영 판관이야.》

《한번 집에 데려오세요.》

《응, 그래야지.》

그런데 일이 반대로 갑자기 뒤바뀌어졌다. 실장이 출장을 중지시키길래 왜 그러는가 했더니 당장 ㅅ연구에 들어가야 된다는것이다.

알고보니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믿던 준식부소장이 자기 문제를 가로막아나섰다는것이였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줄것처럼 약속까지 해놓고 돌아앉아서 자기 일을 가로막아나섰다는게 학철이로서는 이해할수가 없었다.

일은 학철이 준식에게 자기 문제를 부탁한 그날 저녁에 벌어졌다.

저녁에 소장파 마주앉은 준식은 하루사업을 총화지으면서 학철이 이야기를 꺼냈다.

《각별한 사이란 말이지요. 부소장동무도 그런 생각이라면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나도 그 동무의 요구대로 해줄 생각을 하고있었소. 그 동무의 요구가 어지간하거든.》

《연구사가 자기의 연구의 끝을 보겠다는건 좋은 일 아닙니까?》

《글쎄 그렇기는 하오. 그렇지만...》

소장은 무슨 말을 더 할듯 하다 부소장의 앞에서 친구의 흠집을 드러내보이는것 같아 끝을 흐리었다.

준식은 정확한것에 늘 습관되어있었다. 더구나 연구사의 연구문제를 놓고 그걸 그냥 넘기려 하지 않고 소장에게 되물었다.

《그렇지만 뭘니까.》



《솔직히 말하면…》

소장은 침묵 끝에 유순한 눈매로 준식을 건너다 보면서 이마를 찌프리기 시작하였다.

《그 연구는 끝난거나 같소. 생산에 도입하는 것인데 공정기사한테 맡겨도 확신이 가는거요. 그건 그도 아오.》

《그러면서 왜 그런다는 겁니까?》

《사실 말이지 그 동무는 하던 연구를 계속한다고 하면서 지금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는데서 품을 빼자고 하오. 말하자면 어려운 과제 수행에서 물러서는 거나 마찬가지지.》

소장은 일이 벌어지게 된 동기를 설명하였다.

학철이 새로운 전이식물체를 얻어낸 후 과학원에서는 당시 절박한 과제로 조직되고 있던 연구사업에 그를 망라시킬 목적으로 그에게 식물질과 관련한 자료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것은 식물질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연구 과제인데 학철이 《옥호동 1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뛰어난 농축기술을 보여주었던 것이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철은 연구과제를 받아안고 처음 얼마동안은 흥분된 나날을 보내면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나가살다싶이 하였다. 그런 그가 컴컴한 얼굴을 하고 연구소에 자주 나타나군 하더니 실에서 그를 연구조에서 빼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올라왔다. 본인이 생산물이 나올 때까지 이미 하던 연구를 계속하도록 해달라고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학철일 크게 믿고있던 연구소소장은 그 소리에 놀라 당장 학철일 불렀다. 그때 그는 펍 수척해 있었다.

《쉬우지도 못하고 새 과제 맡겼다고 생각하니 한 어깨에 두 지게를 지은것 같아 내 마음도 개운치 않더군요. 하지만 이게 무슨 해도 되고 안해도 될 일인가 되게 다볼러댔지요. 의협심 강한 학철이 힘들게 사실을 고백하더군. 아직 그것을 말아할만 한 실력이 못된다구요. <옥호동1호> 연구를 하면서 새 기술강습에랑 빠진걸 후회하는 그 동무의 얼굴은 컴컴하게 질렸더군요.》

소장은 묵묵히 듣기만 하는 준식을 건너다보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물론 그게 힘든 과제인것만 사실이요. 세계적으로 한다하는 과학자들도 감히 손을 못대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는 결심하면 능히 해낼수 있을텐데… 최첨단과학앞에 겁먹은것 같소. 일생을 바칠수도 있다는걸 그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있겠소.》

준식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학철동무문제 제가 말겠습니다.》

《부소장동무가… 어떻게 말이요.》

《무조건 해야지요. 그게 어떤 과제라구 흥정을 한단 말입니까?》

《강다짐으로? 그렇게야 연구사업이 되겠소.》

《아니, 이젠 강다짐이 아닙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말로만 해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소.》

준식은 학철이 진행한 연구정형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시험공장에 다녀와서는 실에서 올라온 시험공장으로 가는 출장자들의 명단에서 학철의 이름을 삭제해버렸던 것이다.

갑자기 일이 뒤바뀐 내막을 알아보던 학철은 그것이 준식부소장때문이란걸 안 그날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준식이가 자기 일을 가로막다니 마음이 산란해졌다.

군대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준식이 체통은 컸지만 단련되지 못한 탓에 신입 병사생활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성미급한 학철일 속태웠다. 그때 모욕적인 말도 적지 않게 하였다.

대차훈련을 할 때였다. 준식이 철봉대에서 손을 놓아버려 해공중에 나떨어졌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질번 한 일이 있었다. 목을 싸쥐고 돌아가는 준식일 내려다보며 《절구통을 올려놓아도 동무보다 낫겠다.》고 된욕을 퍼붓던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 웬만한 욕은 묵묵히 받아들이기만 하던 준식이었지만 그때는 하루종일 학철일 퍼했다.

준식이 있던 연구소에서 흘러나온 말이지만 준식이 군대때 쑥새끝에서 큰 전투공로를 세웠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지난날 자그마하고 쪼쪼한 일들을 여직 주머니에 꽂쳐놓고 다니겠는가. 도리 머리질을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된욕을 먹으며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던 그전날의 준식이가 자꾸만 더 가까이 어려온다.

학철은 우선우선한 얼굴로 출근했다. 아침모임이 끝날무렵에 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모임이 끝나면 학철일 자기 방에 보내달라는 부소장의 부탁이었다.

학철이 준식이한테로 가니 준식이 책상서랍을 열고 부피가 두터운 종이봉테기를 학철이앞에 꺼내놓는다. 얼핏 보니 과학기술도서들을 뒤져서 자료화한 것이었다. 어디서 이런 자료들을 얻어냈는지 보기드문 최첨단부문의 자료들이란것을 알수 있었다.

《새 연구과제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연구에 도움이 되겠는지… 거기 안내목록도 있습니다.》

준식의 말이었다.

학철이 속이 불끈 뒤틀러는게 거친 말이 당장 터져나올번 하였으나 어쩐지 유연하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슬그머니 그것을 밀어놓았다.

《차차 보지요. 난 안됩니다. 새 과제 말을 동무에게나 주십시오. 그래 이것때문에 저를 불렀습니까?》

《뭘 콧웃하게 이러우. 과학원에서랑 연구소 소장동지랑 모두들 분대장동지가 그 일을 해낼수 있다구들 하는데... 이걸 분대장동지가 볼겁니다.》

학철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 저었다.

《아니, 난 그 연구과제를 감당해낼것 같지 못하오. 지금 하고있는 연구과제나 완성한 후면 어떨런지.》

준식은 그러는 그를 넌지시 넘겨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철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허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 그런줄 아오. 어쨌든...》

마침 문을 열고 들어서던 소장이 숨소리 고르롭지 못한 학철의 앞가슴을 건너다보다가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군대친구들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길 주고받으세요. 나도 한몫 끼워도 되겠소?》

학철은 준식의 앞으로 자료용태이를 밀어버리고 부소장방을 훔 나와버렸다.

《성이 났는걸.》

소장은 장을 열고 그걸 꺼내서 뒤적거렸다.

《새 과제연구에 참가가 되겠기에 주었더니만.》

준식은 가볍게 웃었다.

《소원대로 해주지 않겠소? 하기 싫은 일엔 오뉴월에도 손발이 시리다구 했소.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거요.》

《일 없습니다. 저러다가도 마음만 돌려먹으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그냥 넣어두십시오. 제 손으로 꺼내갈겁니다.》

소장은 책을 장에 도로 집어넣은 다음 부소장을 달고 과학평의회가 진행되는 과학원 본청사로 건너갔다.

### 3

창밖에서는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오고 창턱너머 꽃밭에서는 백일홍이 한들거리면서 구슬같은 물방울들을 뽀이여 뽀아놓는다.

하루종일 내리던 안개비가 날이 어두워지면서서 굵어지더니 이제는 제법 비발이 선다. 먹물을 부은듯이 밤은 캄캄한데 기승을 부리는 비바람이 가끔씩 창문을 두드린다.

학철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아 궁시거리다 못해 일어나 앉았다.

소장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친구앞에서 졸렬하게 성을 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들어오길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친구라면서 아무런 의논도 없이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준식에 대한 곡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학철은 기회를 봐가다 준식이와 마주앉아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이랑 흥금을 털어놓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시험생산자재때문에 행정국에 들렀다가 그것이 역에 벌써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철도화물역에 나갔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눈이 부리부리한 공정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알고보니 시험생산자재를 접수하기 위해 학철이 대신 그가 거기에 이미 와있었던것이다.

《연구사동진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구 연구소로 빨리 들어오랍니다. 출장을 가게 된다나봐요.》

《출장? 무슨 출장.》

《실험생물학분야에서의 연구성과전시회가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 진행된답니다. 수일내에 떠나기때문에 수속을 빨리 해야 된답니다.》

《누가 그래?》

《부소장동지가... 연구소에서 연구사동질 기다립니다.》

공정기사는 뭐라고 더 이야기하였으나 학철은 그 말을 가려들을수 없었다.

학철은 연구소에 돌아와 벌건 얼굴을 하고 부소장의 방에 들어섰다. 준식이 답답한 자세로 그를 맞이했다. 준식은 그 앞에 출장목적지와 출장기일 등 몇가지 내용을 적고 소장과 자기가 수표한 출장신청서를 내놓았다.

《려권수속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곧.》

《날더러 그 연구를 기어이 하라는거요?》

학철의 목소리는 첫마디부터 거칠었다.

《왜 못한다구만 생각하우, 해야 합니다.》

《부소장동무, 정 이러기요? 사람의 운명문제를 놓고말이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토론도 없이...》

《거기에 뭐 토론할게 있단 말이요. 하던가 말던가 둘중의 하나지.》

《못하겠단 말이요. 난들 속이 편해 그런 결심 내린줄 아오.》

학철의 입에서 큰 소리가 자기도 모르는새에 튀어나왔다. 녀성들처럼 몸이 가름하고 얼굴색이 흰 젊은 연구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고 물러났다.

《나도 안타깝소. 그러나 연구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담벽을 문이라구 내밀수야 없지 않소. 이불깃을 보고 발 퍼했다는 속담을 부소장동무가 모를리 없겠지. 것처럼 난 아직...》

학철은 뒤말을 채 맺지 못한채 입을 봉하고말았다.

자기를 주시하는 준식의 눈길에는 노기가 서서히 비끼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준식은 피로운듯 목단추를 끄르며 창문가로 돌아섰다. 이윽고 그의 침중한 음성이 학철의 귀전을 울렸다.

《학철동문 언제부터 상급의 지시를 흥정하는 습관이 생겼소. 이걸 단순히 할수 있다, 없다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라고 생각하오. 자신을 과학자이기전에 애국자라는 관점에서지 않은, 말하자면 조국보다 자기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옳지 않은 관점의 결과라고 생각하오. 동무에겐 이미 최첨단과학의 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명령이 떨어졌소. 이걸 조국이 주는 신성한 임무요. 그걸 두고 흥정할 권리가 있단 말지요?》

준식이도 어지간히 흥분이 되어 학철에게서 묻는듯 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놀란듯 준식일마주보는 학철의 눈길은 점차 아래로 떨어졌다.

학철은 머리를 한두번 힘겹게 젖더니 낮은 음성으로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준식동무,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삼가해주오. 나도 과학자요.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잘 아는 사람ियो. 그때문에 나도 피롭소. 뻘소. 우리 더 다투지 맙시다.

사실 제대군인들의 궁지는 군공에 달린것처럼 과학자들의 궁지도 연구성과에 달린거지.

하지만 군공도 그래, 연구성과도 그래 높은 실력이 안받침돼야 하지 않겠소. 참, 알고보니 부소장동문 군대때 큰 공을 세웠더군요요.》

학철의 어조는 어느덧 본래의 음성으로 되돌아왔다. 방금전 격앙되고 불쾌했던 감정들이 먼 옛 시절, 청춘시절이 흘러간 군대시절에 대한 추억속에 용해되어버렸다.

준식은 학철의 이야기가 과거로 번져가자 열적게 웃고나서 존경어린 시선을 옛분대장에게 보냈다.

《내가 쪽새골전투에서 훈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하는말같은데 사실 그것은 내것이 아니요. 내가 겸손하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 훈장에 진짜 주인이 있기때문ियो.》

학철은 알수 없다는듯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준식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주인이 아니라니... 최전연의 싸움군, 미군놈들이 동물 보구 <쪽새골호랑이> 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다던데요.》

준식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학철의 한쪽손을 꼬당겨쥐었다.

《아니, 진짜 위훈자는 내가 아니라 331고지의

좌측릉선을 지켜섰던 그 통줄배기 분대장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학철은 그 말에 놀라 준식의 손에서 자기손을 나꾸어쳤다.

《어, 날 보구 하는 소리 아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훈장의 진짜 주인은 분대장동무입니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리...》

학철은 준식에게 밋지 않게 눈을 흘기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준식의 목소리는 혼연스러웠다.

《그런게 아니요. 내가 분대에 배치되어 처음으로 겪던 진지차지훈련때의 일이 생각납니까?》

군대때의 이야기로 말이 번져지자 학철은 더 다른 말은 못하고 입귀를 늘어뜨리면서 앞에 놓인 결상에 앉아버리었다.

《그때 이야긴 왜 하면서 그러우.》

학철은 거친 소리를 내뿔었다.

《살아있는 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하던 분대장동지의 그 불갈던 목소리가 그 훈장에 스배여있습니다.》

중기분대의 마지막전사였던 준식이는 비상소집구령이 떨어지자 방순을 지고 분대원들과 함께 331고지를 향해 개활지대를 달리고있었다. 발목이 푹푹 빠지는 눈덮인 습지대였다. 허리에 수류탄과 보병삽을 차고 배낭과 탄통까지 메고 달리다니 힘이 들었다.

《빨리, 빨리》

앞뒤로 오가며 다그치는 분대장 학철의 목소리를 귀따갑게 들으면서 준식은 달리고 또 달리였다.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심장은 튀어나올듯 했다. 이따금 눈앞이 흐려지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배낭우에 얹어놓은 방순이 어찌나 목을 조이는지 견디기 어려웠다.

(아, 더는 못달리겠어.) 땀으로 미역을 감은 준식은 온몸이 뚱뚱 허공중으로 뜨는것 같은 착각을 느끼며 휘청거리었다.

《준식동무, 중심을 바로잡고 전방을 보며 달리라. 발뼘을 내려다보면 달리지 못해 빨리.》

학철의 앞을 지나칠 때 학철이 내뿜는 단김이 불을 스쳤다.

(아, 더는... 더는...)

설상가상으로 다리에 쥐가 일었다. 준식은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이제 차지해야 할 고지와와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다른 분대원들도 지친듯 걸음발이 떠졌다.

《빨리, 15분대로 진지를 차지하지 못하면... 빨리, 힘을 내라.》

맨 앞장에서 달리던 학철이 한옆으로 나서며 걷어붙인 팔을 힘있게 내져는다.

《준식동무, 어서 일어나라.》

뒤미처 달려온 분대장의 고향소리였다.  
 《분대장동지, 더는 못가겠습니다.》  
 준식은 눈우에 흘 누워버리었다.  
 《무슨 소릴. 정신있어?》  
 학철이 그의 어깨에서 방순을 벗겨서 떼었다.  
 자기를 일으켜세우려는 학철의 팔을 준식이 꼭 잡았다.  
 《분대장동지, 다리에 쥐가...》  
 《뭐야?》  
 다리에 쥐가 일었다는 소리를 들은 학철분대장은 잡았던 어깨를 놓아버리고 다리를 꼬며 돌아가는 준식을 난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분대장동지, 미안합니다. 전 더는...》  
 그런데 된욕이 터져나올줄 알았던 학철의 입에서 뜨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식이 무슨 말을 해, 준식인 조국의 명령을 받은 전사야, 조국은 지금 동무가 331고지의 좌측릉선의 진지를 명령받은 시간내에 차지할걸 요구한단 말이야. 알겠소?》  
 학철은 주머니에서 손칼을 꺼내들었다. 확확 단김을 내뿜으며 준식일 내려다보았다.  
 《준식이, 임무는 생명이야. 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어서도 안되는것이 바로 우리 군인들이야. 그래서 임무는 생명이라고 말하는거야. 알겠소?》  
 준식은 학철의 뜨거운 눈을 마주 쳐다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학철은 준식의 다리를 걷어올리더니 무슨 다른 생각할새없이 종아리에 칼끝을 꽂았다.  
 다리근육을 비틀어대던 쥐가 일순 사라져버렸다. 학철에게 의지하여 가까스로 일어서니 이번에는 두다리가 뻗뻗해지며 무릎관절이 제대로 놀지 않는다. 몇걸음 떼보지 못하고 무릎을 땅에 박고 넘어진 준식은 미안스런 눈길로 학철이를 돌아보았다.  
 준식의 방순까지 덧 메여서 엄청난 짐을 진 학철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준식의 겨드랑이에 팔을 들이밀고 일으켜세웠다.  
 《준식동무. 우리 명령을 생각하자구, 자 함께 달리기요. 하나, 둘, 하나, 둘...》  
 학철의 뜨거운 입김이 찬 대기속에 뿜어졌다.  
 준식은 학철의 구령소리를 《명령! 명령!》 하고 따라부르며 그와 발걸음을 맞추었다.  
 준식은 추억에서 깨어나 학철을 존경어린 시선으로 이윽히 바라보았다.  
 《하많은 추억중에서도 신입병사시절에 있는 일은 제일로 잊을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날 나는 불같은 분대장동무의 말속에 병사의 신념과 의지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깊은 뜻을 처음으로 새겨안았지요. 명령은 생명이다. 얼마나 뜻이 깊

은 말이었던지, 그후 나는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 말을 외우곤 하였지요. 명령은 생명이다. 허허... 속새골사건당시 팔에 적탄을 맞고 쓰러졌을 때였지요. 이 순간에 저는 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어서도 안되던단 분대장동지의 그 불같은 목소리를 생각했지요... 지혈을 하고 되돌아섰으면 팔을 살릴수 있었지요. 그러나 난 총탄자리에 손수건을 쫓서넣고 달아나는 놈들을 따라가 마지막 한놈까지 다 소멸하고서야 쓰러졌던겁니다. 내가 새로운 세포를 찾아내고 그것을 증식시키는데 성공할수 있는것도 분대장동지의 그 말이 항상 나에게 힘이 되었기때문입니다.》  
 학철은 머리를 수그리고 말없이 준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준식은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가 먼 하늘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나날에 내내 그러보곤 하던 분대장동지의 모습은 그 어떤 임무에도 생명을 내대는 그런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대장동무의 모습은...》  
 《아무말이면 다요?》  
 학철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부르짖었으나 그것은 맥빠진 것이었다.  
 준식의 낮은 엄숙한 목소리가 그것을 누르며 또박또박 울리었다.  
 《군대때 용맹스럽던 그 기생 어디다 버리고 이제 와선 임무가 어렵다고 겁먹고 물러서는 사람이 됐습니까. 나라가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고 떨쳐나선 이때 우리 과학자들이 지닌 임무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 하는것을 그래 모른단말입니까? 그래 우리 당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우리 과학자들을 얼마나 믿고 기대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과학도 전선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의 하나인 과학전선에 우릴 내세워주었습니다. 여기엔 물리설 자리도 권리도 없습니다.》  
 《...》  
 《과학전선, 여기에는 익측도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부문의 새 연구과제가 학철동무의 임무일진대 동문 지금 전투임무를 놓고 뒤로 물러서고있소. 최첨단과학의 산병선에 구멍을 내고있단 말이요.》  
 《뭐 내가 물리선다구? 산병선에 구멍을 낸다구?》  
 《그래 동무는 지금 전진하는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고있소.》  
 준식은 숙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꺼내 책상우에 놓았다. 그안의것을 꺼내놓으니 군모의

모표가 반짝이고있었다. 어찌나 닳았는지 눈이 부시였다. 그뒤에 길게 매여놓은 붉은 끈이 눈에 익었다. 그것은 군대시절에 자기가 가장 애용하던 그것, 자기 군모에서 빛나던 모표였다. 그는 대학으로 떠나는 날 오리나무술우거진 산기슭까지 따라나온 준식의 손에 그것을 쥐여주었던것이였다.

(그걸 여직 간수하고있었구나!)

멍멍해진 귀속에선 준식의 웅글은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고있었다.

《진지차지훈련때 331고지의 눈덮인 전호가에서 이 군모의 모표를 닳으면서 분대장동무는 나에게 말하였지요.

<우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별들이야. 별은 우리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화살표의 맨끝에서 빛나야 해. 동갑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 이 최전연초소를 지켜선 우리를 지켜보시고계시네. 그리고 적들에게 신성한 조국의 촛토를 0.01밀리미터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시네.> 이렇게 나에게 하던 말이 생각납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 최첨단과학의 요새에 화살표의 예각을 찍으시고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뛰고있는것이지요. 최첨단과학의 요새를 향해서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학철동무가 임무앞에서 물려설 생각을 하다니요. 군대때 열정적이던 분대장동지의 그 발걸음소리를 듣고싶군요. 그때처럼 구령을 치며 내달리던 그 발걸음소리를 말입니다.》

《에익!》

학철은 더는 견딜수 없어 부소장방을 뛰쳐나와 버리고말았다. 나와보니 손에 출장신청서용지가 쥐여져있다.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느물느물 피어나고있었다.

푸르고 둥근 하늘을 이고 해빛속에 웃는듯 번쩍이며 서있는 과학원의 고층건물들... 산들바람이 옷자락에 매여달린다

이마살을 퍼지 못하고 부소장방을 뛰쳐나온 학철이었으나 왜서인지 마음은 혼 혼하다.

멀어진것 같던 준식이 그렇듯 가까이 자기곁에 있다는걸 알았기때문일까, 아니면 기억속에 희미해져가던 병사시절을 다시 찾게 된 기쁨일까, 물론 그럴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잃을번 하였던 군인정신을 되찾게 되고 수치와 배신의 나락에 굴러떨어질번 한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안도감에서였다.

(준식동무 말이 옳아. 나라의 운명이 과학발전에 크게 달려있구말구. 시대는 우리에게 최첨단과학의 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임무를 준것이 아

닌가, 과학전선! 군복은 비록 벗었어도 조국수호와 건설의 병사로 빛나게 살아야 하구말구.)

그럴수록 자책감은 더 커진다.

왜서 연구와 같은 최첨단과학연구사업에 한몸을 내댈 생각을 못했는가, 조국과 혁명이 부르는 위치에 명령받은 병사답게 서지 못하고 제주정하며 흥정하려하였던가.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조국과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자신을 생각하며 공명과 안일에 빠져있었기때문이다.

그때문에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발자욱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더 빨리 달릴것을 요구하는 조국의 힘찬 구령소리를 듣지 못했던것이다.

학철은 오래전에 벌써 자기만족에 빠져 발걸음을 멈춰세웠던것이다. 날에 날마다 높아지고 새로와지고 발전하는 과학을 외면하고 자기안일, 자기공명에 빠져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배신이었다.

학철은 가슴을 섬팡처럼 누비는 싸늘한 감각에 몸을 떨었다. 준식의 진지한 모습이 떠오른다. 불쑥 고마운 생각에 가슴이 더워난다. 전진을 멈춘 자기에게 아픈 매를 안기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전진하는 대오에서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게 떠밀어준 준식이다.

지금 학철의 마음은 가볍고 후더웠다. 지난날엔 그렇게 아득하게만 보이였지만 병사의 심장이 있는한 열지 못할 과학의 세계란 있을수 없다는 배심이 생겼다.

다음날 아침 학철은 출근하자바람으로 부소장방의 문을 두드렸다.

《예, 들어오십시오.》

약간 새된듯 하면서도 웅글은 목소리가 울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식이 책을 보다말고 학철일 건너다본다. 왜 그러느냐고 묻는듯 한 시선이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요전 그 참고자료 주요.》

《난 그걸 분대장동지에게 이미 주었는데요.》

《제기랄, 그러지 마요.》

학철이는 장을 열고 며칠전에 던져넣었던 종이 봉테기를 꺼내들었다. 이때 두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가 웃고있었다.

며칠후에 학철은 준식이와 함께 비행장에 나갔다. 비행기에 오르기전에 학철은 준식이와 작별인사를 하였다. 떠나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준식을 바라보는 학철의 눈에서는 명령을 받아안고 눈덮인 들길을 달리던 때의 그 불타던 열기가 빛나고있었다.



# 점어리는 군안

김정희

보통날 아침이다. 어느때와 꼭 같은 시간에 출근한 도교육국장 김철민은 량수책상에 무드기 쌓여있는 문건들중에서 맨 우의것을 당겨다 펼쳤다.

《도교수경연 참가자명단》이라고 또박또박 박아쓴 표제말에 경연참가대상자들의 이름이며 성별, 나이 등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다음장을 번진 철민은 맨 마지막란에 이르러 량미간을 꼭 모두었다. 《설림군》이라고 세글자가 적혀있을뿐 다음란들은 전부 비어있었다.

《설림이라...》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철민은 두번째 지시순가락으로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다. 아무런 행사때나 설림군이 문제였다. 도에서 가장 멀리 외파로 떨어져있는 군, 그때문에 어느 명단이건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 경연순위권에 한번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경연에는 참가조차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유독 대상자가 없는 군은 설림뿐이니...

이럴 때면 철민은 자기의 목은 상처를 건드린듯 마음이 편치 못했다. 어머니가 병신자식을 더 위해주고싶어하는 심정이랄가...

그는 곧 송수화기를 들었다. 설림군인민위원회 교육부를 찾았다.

《여보시오... 교수경연대상자가 무락되어서 그러오, 뭐라구? 어제 오후에 떠났대구?...》

철민은 그만 송수화기를 든채로 《허참-》하고 웃고말았다. 여기서 설림군은 기차길을 내놓고도 룽로로 백수십리가 잘된다. 그런데 이들은 푼푼히 걸려야 할 길을 어제 오후에야 떠났다니 결과야 불보듯 뻔하지 않는가.

그의 허거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렸는지 저쪽에서 이제 꼭 도착할것이라고 반죽 좋게 말하는것이다.

《뭐 꼭 도착할거라구? 글썄 비행기나 타고오면 어쩔는지... 이제 두고보오. 경연이 다 끝난 다음에 소경 시집갔다고듯 하지 않나.》

김철민이 이렇게 말한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였다. 이제는 아득한 옛일로 되어버렸지만 그의 첫 교원생활도 바로 설림땅에서 흘러갔던것이다.

그 어디를 보아도 높고 낮은 산발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두메, 태를 묻은 이 고향땅에서 교원으로 한생을 마친 어머니가 철민에게서 바란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 교단을 지켜주었으면 하는것이였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데 습관된 그는 중학교를 마치자 사범대학으로 떠나갔으며 졸업후에는 다시 어머니가 썼던 그 교단에 서게 되였다. 그날부터 그는 밤낮을 모르고 일하였다.

어머니의 한생이 어려있는 교단을 욱되게 하지 말자. 아니 이왕이면 어머니보다 더 일 잘하는 교원이 되리라. 그래서 남들보다 훌륭하게 키운 제자들을 떼떈하게 사회앞에 내세우리라.

그 사업의 첫 걸음으로 학교주변을 자연교실로 꾸릴 전망도를 품들여 만들었다. 소학교학생들을 위한 자연관찰은 물론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리실습까지도 다 할수 있게 전국각지에 분포되어있는 수백종의 동식물들을 옮겨다놓을 교재원과 동물조각상들, 나라의 산과 벌, 강, 호수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놓은 자연지도사관 그리고 언제나 날씨를 관측할수 있는 기상관측소며 상식관들... 그 도면은 마치 우리 나라 자연풍경의 축소와도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철민은 군안의 교육부문에 서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되었으며 도교수경연에 까지 참가하게 되였다. 그때 그는 얼마나 흥분했던지 모른다. 믿어주고 내세워주는 이 고마움을

높은 실력으로 보답하리라.

그렇게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길을 떠났건만 타고가던 자동차가 도중에서 고장이 날줄이야.

차가 살아나길 기다리다 못해 내쳐 걸었건만 도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경연이 끝나버린 뒤였다. 그때 일이 얼마나 망망했는지.

그는 처음으로 설림은 도소재지와 너무도 멀리 떨어진 오지군이라는것을 절감하면서 사람은 도시에 나가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후 철민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차례졌다. 도교육국 부원으로 소환장을 받은것이다. 그는 기쁜 마음중에도 한가닥 가슴에 걸리는것이 있었다. 자신이 애써 설계한 《우리 학교 자연교실꾸리기 전망도》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러나 쉽지 않게 차례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을 꼭 감고 도소재지로 큰 걸음을 내짚었다.

철민은 도교육국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한층 두층 계단을 밟아오르듯 승급한것이 오늘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던것이다.

철민은 저도몰래 나직이 긴숨을 내쉬고나서 방금 본 명단을 서류가방속에 넣어두고 방을 나섰다. 한명의 무락자때문에 경연시간을 어길수 없다. 어제와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을것이다....

철민은 천천히 연단에 나섰다. 후리후리한 키에 몸집이 좋은편인 그는 버릇처럼 연탁의 랑쪽에 손을 얹고 긴장한 분위기에 싸인 객석을 훑-휘둘러보았다. 넓은 이마아래 이따금 꿈틀하는 검은 눈썹, 그 밑을 깊숙이 파고 앉은 그리 크지 않은 두눈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경연참가자들의 심리를 투시하듯 천천히 움직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뒤에 있는 출입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한사람이 들어왔다. 허리를 낮추 구부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는데 등에는 배낭을 진데다가 큰 가방을 안고 빈자리를 찾아 맨 뒤구석에 가앉았다.

철민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도대체 저런 차림으로 교수경연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민은 교수경연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교육규율이 없는 현상부터 목과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방금 들어온 동무! 좀 일어서시오.》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는 바람에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마치 구렁이라도 들은듯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렸다. 그런속에

뒤좌석에서 한 처녀가 일어섰다. 그는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옷차림도 수수한 폴색잠바를 입고있었다.

그 류다른 차림새를 살피고나서 철민은 따지듯 물었다.

《동무! 어느 군에서 왔소?》

《예, 설림군에서 왔습니다.》

순간 철민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저 처녀가 분명 설림군이라고 했는가? 혹시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여 다시 물었다.

《가만, 어느 군에서 왔대구?》

《설림중학교 교원 오유정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맑고 류창한 처녀의 대답으로 하여 객석엔 잠시 가벼운 물결이 일었다. 철민은 한방망이 얻어맞은 감을 느끼며 처녀를 다시 뜯어보았다. 땀에 얼룩이 진 얼굴, 대충 쓰다듬은듯한 부푼머리, 미처 치우지 못해 옆의자에 올려놓은 배낭이며 가방...

(그렇다면 저 처녀가 바로 어제 오후에 떠났던 그 경연대상자?)

여기에 생각이 이른 순간 철민이의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 설림에서 예까지가 어디라고 벌써 온단 말인가. 정말 비행기라도 타고왔는가.

애초에 경연이 다 끝나도록 못올것이라고 단정했던터여서 처녀의 도착은 풀수 없는 수수께끼로 되었다.

《앉으시오.》

질책을 안겨야겠다고 생각했던 철민이였건만 그가 설림처녀라는 한가지 리유로 모든것을 취소해버렸다....

《자, 그럼 경연을 시작합시다. 순서는 말자체가 경연인만큼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하도록 합시다. 어느군에서 먼저 하겠소?》

철민은 장내를 둘러보았다. 숨죽은듯 조용한 객석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선뜻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 하긴 학습토론도 아닌 교수경연이어서 나서기를 저어하는것이리라.

《없습니까?》

철민은 다시한번 재촉하듯 물었다. 역시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 철민은 할수없이 심사석에서 첫순서만은 정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참가대상자명단을 펼쳤다.

이때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반가움속에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철민은 저도 모르게 두눈을 크게 떴다.

(아니, 설림처녀가?)

혹시 잘못보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분명 방금전에 땀을 흘리며 들어서던 바로 그 오유정이었다.

(원참, 그 많은 사람들중에서 하필 저 처녀가 첫순서로 나서다니...)

철민은 어쩐지 설림처녀가 자진하여 나선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물론 매도 첫매를 맞으려 했지만 교수사업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잘했다고 해도 덤비면 실수를 면치 못하며 결과는 부족점이 많은 수업으로 되고만다.

그 먼 고장에서 뛰어왔든 날아왔든 온것만도 기특한데 이왕이면 한숨 돌리고 마음을 꼭 진정시킨 다음에 나서야 좋았을걸 공연히 분별을 잃고 행동하는듯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수가 없다. 이미 순서는 정해진 셈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들어보는수밖에...

교수경연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때를 같이하여 까만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단정하게 반차입은 날씬한 몸매의 처녀가 문가에 나타났다.

이번 경연의 첫막을 올린 오유정이다. 그는 못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사뿐사뿐 걸어나오더니 옆구리에 끼던 책들을 교탁우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깊숙이 머리숙여 인사를 하였다. 철민은 처녀의 행동을 빠짐없이 지켜보며 은근히 마음을 조이었다. 선참으로 하겠다고 나설적엔 무슨 승산이 있어서일텐데...

동그스름한 얼굴에 눈이며 코, 입이며가 그림처럼 이쁘게 생긴 처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심사석부터 둘러보았다. 마치 수업전에 학생들의 출석정형을 알아보듯이, 그러다가 철민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고개를 약간 숙이는것으로 레의를 표했다. 그 바람에 그도 고개를 마주 끄덕이는것으로 알은체를 하는수밖에 없었다.

(허- 제법인걸.)

철민은 처녀의 여유작작한 태도에 불안하던 마음이 좀 놓이는듯싶었다. 사실 경연장에서 웃음을 짓는다는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년을 교단과 함께 살아온 능력있는 교수자들도 이런 연단에 나서면 은근히 긴장되어 저도 몰래 헛기침을 짓거나 공연히 안경만 매만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데선 뜻밖아리나 같은 저 처녀는 지금 웃는 얼굴로 태연히 서있지 않는다.

유정은 도톰한 입가에 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웃음으로 팽팽하던 경연장의 분위기를 온화하고 안정된 세계로 만든 다음 교수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 재치있게 넘어갔다.

《이 시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러 따르며

노래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마치 성능좋은 마이크앞에 선 방송원처럼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경연장을 울렸다. 동시에 투영기의 스위치를 누르자 영사막에 《영생불멸의 꽃 **김정일**화》라고 큼직큼직한 필체로 쓴 교수제목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번엔 제목이 사라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록음기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대한 노래가 은은한 선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리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처럼  
이 강산에 붉게붉게 피어난 꽃송이

노래선율이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흔드는데 록화기화면에 타는듯이 붉게 피어난 한송이의 소담한 **김정일**화가 푸른 잎새 흔들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쳐보인다. 신기한 그 모습에 끌리어 사람들은 록화기화면을 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을 돌아보는가 하면 이번에는 충성의 붉은 꽃으로 바다를 이룬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이번에는 푸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온 세상에 피어나는 불멸의 꽃을 외국인들과 더불어 감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구를 한바퀴 돌고 다시 록화기에는 커다랗게 확대된 《**김정일**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정은 한손을 가볍게 들어 꽃의 잎이며 줄기며를 가리키며 생김새와 생물학적특성을 알기쉽게 설명해준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철민이도 심사원모두도 유정의 황홀한 교수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열정에 넘쳐 가벼운 걸음새로 교단을 오가며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리있게 형상적인 설명으로 문제의 본질을 도출해내는 오유정.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흥미있고 한눈에 안겨오게 교수목적을 달성하는 능란한 교수기량... 철민은 지금 꿈을 꾸고있지 않는가 하고 자신을 의심했다.

문득 수십년전 설림군을 대표하여 교수경연에 올라왔던 자신을 유정에게로 견주어보았다.

그때는 콤퓨터나 록화기같은것은 상상도 못했었다. 백묵으로 판서를 해야 했고 종이장들을 묶어만든 걸그림을 번지며 깨우쳐주는 교수를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수업은 백묵으로가 아니라 현대적인 교육수단을 리용하여 진행하고있다.



그렇다고 어느 교원이나 다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교수를 하는것은 아니다.

헌데 유정은 능숙하게 화면편집과 음악삽입까지 하여 정서적이며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수업을 하고있지 않는가.

그것은 여간만 품을 들이지 않고서는 진행할수 없는 교수이다.

모든 교원들이 다 저 유정이처럼 수업한다면 산골군들의 실력도 보다 훨씬 올라설게 아닌가....

교수자가 인사를 하고 교단을 내려서야 비로소 생각에서 깨어난 철민은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다른 심사원들도 수업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입을 꾹뾰 다시는가 하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철민은 그들의 모습에서 유정이의 첫수업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그것을 특감적으로 맛보는 순간 심장의 박동소리가 귀전에까지 들려오는듯 싶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처녀가 설립군에 대한 기존인식을 무너뜨리며 통장훈을 부르는것 같은 환희에 휩싸이는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놀랐다.

(아니야, 박수를 치긴 아직 일러. 첫수업은 본보기수업으로 내놓자고 본인이 최대로 준비하고 숙련시켰으니 잘할수 있다. 문제는 두번째 수업에 달려있다.)

철민은 한차례의 힘겨운 전투라도 치른듯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내뿜고 귀밑머리가 젖어가지고 심사석에 내려와 두번째 표를 뽑는 유정이를 바라보며 은근히 가슴을 조였다.

(같은값이면 험한 수업제목을 뽑아야 할텐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속에서 앞에 있는 임의의 표를 집어든 유정은 문제를 꼼꼼히 읽고나서 고개를 약간 기웃거렸다.

(혹시 힘든 문제가 아닐까?)

철민은 조바심속에 유정이의 얼굴을 살폈다. 뭔가 생각해보는듯 한 표정을 보고선 좋아하는지 근심하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하긴 오이는 거꾸로 먹든 바로 먹든 제맛이라고 표를 뽑아 하기엔 아무 문제나 도토리 키재보기다. 어떤 제목이 나올줄 알고 그 술한 교편물을 다 준비한단 말인가. 그저 첫수업의 절반만큼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철민은 또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두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단에 오른 유정은 전과 다름없이 환하고 침착한 자세였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개구리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뭐 개구리?)

철민은 그 순간 믿었던 기대가 일순 허물어져 내림을 느꼈다. 그 많은 수업제목들중에서 하필이면 부디 골라 개구리에 대한 수업을 하다니...

그의 이런 우려엔 아랑곳없이 유정은 자기에게만 고유한 부드러운 웃음과 침착하고 세련된 동작으로 생기있게 교수를 끌고나갔다 갑자기 록음기에서 여러가지 개구리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개골개골》 맑고 청높이 울리는 어린 개구리의 여무진 울음소리. 《액액》 나이든 수컷 광대가우는 점잖은 소리, 《구구국, 구구국》 그 다음엔 이따금 장난삼아 물어보는 게으름뱅이의 울음소리, 마치 달밝은 밤개구리합창단이 부르는 교향곡을 들으러 논머리에 나온듯 한 심정이었다. 모두의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일렁이는데 록화기화면에 무연한 남새밭이 펼쳐진다. 그 다음에는 화면이 바뀌며 우산같은 호박잎에 오목하니 올라앉은 약밤알만큼한 개구리 한마리가 불어오는 바람결에 흐느적거리는데로 한가스레 그네를 뛰고있다. 잔등엔 호박잎과 꼭 같은 풀색을 그리고 목이며 가슴이며 배에는 하얀색의 옷을 걸친 귀엽고 감쪽스런 청개구리가 방울모양의 록 뼈어진 두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개골개골》소리내며 울어제킨다.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더니 몸집보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운껏 소리를 지를 때마다 흑모양의 울음주머니가 물방울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재간을 부린다.

그 모양이 하도 신통하여 심사석에선 참고참았던 웃음이 터졌다.

그러거나말거나 상관없이 유정은 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박또박 수업을 계속한다.

《이 개구리가 바로 옛말에 나오는 바로 그 청개구리입니다. 멀고먼 옛날옛적 어느 한 마을에 아들청개구리와 엄마청개구리가 살고있었답니다...》

두번째 수업역시 첫수업에 못지 않게 특색있게 끝났다. 산골맛이 나게 구수하면서도 꾸밈없이 생동하게 그러면서도 개구리의 생태적특성을 알기쉽게 그리고 심산에 홀로 피여도 짙은 향기를 풍기는 들꽃마냥 여운을 길게 남기는 수업이었다.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첫수업은 기록영화와 과학영화를 동시에 보는 감정이라면 두번째 수업은 아동영화를 보고난듯 한 기분이다. 정말 모두 이런 식으로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고 또 배운 내용을 잘 소화하겠는가.

철민은 무척 만족스러웠다. 언제인가 큰 희망을 안고 이 길에 나섰다가 입도 못벌려보고 돌아

섰던 자기의 아쉬움을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저 고향처녀가 모두 풀어준것만 같아 고맙기까지 했다. 하여 유정이를 심사적으로 불렀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싶었다.

《유정선생, 선생은 이름없는 설림땅에 피어난 한송이의 붉은 꽃과 같소.》 하고.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동이 닿지 않는 질문을 하였다.

《선생은 평상시수업도 그렇게 땀을 흘리며 하오?》

땀이 내뻘 하얀 저고리의 어깨며 등받이며를 보는 순간 불쑥 나간 질문이었다. 유정은 철민이의 물음이 너무 상상밖이여선지 그 뜻을 음미해보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조용하나 또렷이 대답하였다.

《국장동지, 전 사실 땀없이 하는 수업은 교수가 아니라 말공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음, 말공부라구?... 웬소, 정열이 없이 교수안이나 졸졸 읽어가지고는 땀을 흘릴수 없지.》

평시엔 무뚝뚝한 철민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곁에서도 덩달아 웃었다.

《그렇습니다. 국장동지. 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조국을 지켜 날마다 땀을 흘리듯이 교원들은 한시간, 한시간의 수업을 땀과 바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음-》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의 말에는 어느 소설의 한대목을 빼껴다 외워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절절한것이 깔려있었다. 이제 보니 유정은 교수만 잘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말도 나눌 재미가 있는 처녀였다.

《어때 유정선생, 교원이 힘들지?》

철민은 땀에 폭 젖은 그의 모습을 애뵈한 눈길로 바라보며 아버지가 딸에게 묻듯 자연스레 말을 던졌다.

《예.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쉽지는 못하겠지?》

《그렇습니다. 국장동지, 그러다 제가 가꾼 꽃밭에 꽃이 아니라 잡초만 무성해질가봐 두렵습니다.》

그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들은 심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속에서 철민은 자기의 흘려간 교원생활을 더듬어보았다. 유정이처럼 저런 깨끗한 마음을 안고 땀을 흘리며 한 수업은 얼마나 되는가.

량심에 저촉되게 빈자리를 남긴것은 없는가.

이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희미해졌

지만 어쩐지 그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한듯싶어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오늘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만족스럽게 되돌아보아오던 철민이었지만 성실하고 깨끗한 오유정을 새롭게 보게 되니 그에게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보게 되는 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

그날 저녁이었다. 김철민은 손목시계를 굽어보며 오유정을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내 의견을 마다하지는 않을테지...)

방금전 도교수경연총화에서는 독특한 교수방법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오유정이 크게 평가되었다.

장내가 터져나가게 울리는 요란한 박수소리에 떠받들린 오유정을 보는 김철민은 감회가 새로왔다. 자신이 기울인 헌신의 노력으로 받아안은 응당한 결실이지만 오유정의 기쁨은 얼마나 큰것인가. 진달래빛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와보이는 그의 동그스런 얼굴에 습벅이는 눈에는 눈물이라도 맺힐듯싶다.

그가 받아안은 행복이 철민에게도 그대로 안겨졌다. 허나 철민은 오유정에게 무엇인가 더 줄수 있는것을 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단지 옛추억을 불러주는 고향처녀라는 남다른 인정때문인가.

아니다, 철민은 오유정에게서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것을 보았던것이다.

그의 그윽하고 지성미가 깃든 눈빛과 얼굴표정, 단정하고 생기있는 몸동작 그리고 독특하고 열정적인 교수방법에서 교육자의 타고난 성품을 엿보게 되었다.

오유정을 설림에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존재라는것을 더욱 확신시켜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김철민은 교수경연총화가 끝나자 자기 방으로 오라고 오유정에게 넌지시 귀띔했던것이다.

《똑똑.》

문기척소리가 울리자 김철민은 반사적으로 얼굴을 들며 《들어오시오.》 하고 대답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오유정이 들어서 철민에게 각듯이 인사를 했다.

《오늘 정말 수고를 했소. 축하하오.》

철민은 그를 다시한번 치하해주고나서 가까운 결상을 내놓았다. 유정은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리고 결상에 앉았다.

《유정선생을 만나자고 한것은... 좀 의논하고싶

은 문제가 있어서요.》

철민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처녀에게 환한 웃음을 보이며 고향이 어디인가고 물었다.

《여기 강제입니다.》

《그럼소?... 부모님들은 여적 계시겠지?》

《네.》

철민의 얼굴에는 더욱 만족한 웃음이 피어났다.

(고향에 부모님들까지 계신다니 더욱 좋지 않은가.)

그는 더 에둘것도 없이 용건을 끄집어냈다.

《유정선생에게 말하자고 하는것은... 여기 도1 중학교에 올라와서 일하자는거요.》

《네?!》

너무도 뜻밖의 소리에 유정은 긴 속눈썹을 부채살처럼 펼치며 철민을 바라보았다.

《선생이야말로 도1 중학교에서 일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오. 그 문제는 이미 해당부문 일군들과도 토론을 했소...》

철민은 도1 중학교의 교원력량을 꾸려야 할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오랜 교원들이 물려나는데 교직원력량이 약해졌다는것, 특히 자연과목부문의 교원이 모자란다는것, 여느 단위보다 중시하여야 할 도1 중학교의 교원문제때문에 머리를 앓고있던 차에 유정선생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였다.

오유정은 고개를 수긏하고 잠자코 있었다.

교수경연총화에서는 발기우리 하게 상기되었던 얼굴이 이 순간에는 입술을 꼭 다물고 어딘가 망담해보이기까지 했다.

왜 이렇가. 너무도 뜻밖의 소리에 잘 믿어지지 않아서일가. 하긴 20여년전 자신도 이런 경우에 부딪쳐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했었다. 허나 도에 올라오고싶은 심정은 오유정도 자신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오유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없을레지?... 그렇게 하기로.》

《국장동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참후에 오유정은 머리를 들고 무엇인가 할말이 있는듯 머뭇거렸다. 김철민은 여전히 웃고있었다.

《좀 뜻밖이란 말이지?... 나도 그랬소.

내 지금 회의에 참가할 시간이 되어 더 이야기하지 못하겠는데 래일 다시 만나지요.》

다음날에는 아침부터 교육기관들에 대한 참관이 예견되어있었다. 철민은 오유정과 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래일 마저 하리라고 걱정했다.

김철민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오유정도 따라

일어섰다. 허나 선뜻 발길을 떼지 못했다. 그를 앞세우고 나오면서 철민은 유정에게 알고싶었던 것을 물었다.

《참, 유정선생은 어느 대학을 나왔소?》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음,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소?》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군인이란 말이지...》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유정에게 다시 눈길을 보냈다. 그의 대답은 나직했으나 무엇인가 크고 숭고한것을 가슴가득히 채워주는듯 했다. 그 한마디 말에서 지금껏 그에 대해 풀수 없었던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있었다.

그 먼길을 유정은 어떻게 되어 하루새에 왔던지,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떨구고 뒤떨어졌던 설림군의 위치를 순간에 맨 앞자리로 끌어올릴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혁명적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려는 그의 열정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로 된것이 아닌가.

이튿날 아침이었다. 교육국에서는 계획했던대로 교수경연참가자들을 두개조로 나누어 교육기관들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였다. 참가자명단을 료해해보던 철민은 제2조에 속해있는 오유정이를 제1조로 옮겨놓았다. 1조는 도1 중학교를 참관하게 되어있었다. 오유정이 제논으로 직접 1 중학교를 돌아보게 하고싶어서였다.

철민이 1조를 직접 인솔하고 참관을 진행하였다. 참관자들은 현대적교육시설물들로 그췌히 갖추어진 도1 중학교를 돌아보면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철민은 대렬을 인솔하면서 가끔 오유정에게 눈길을 보냈다. 교육시설물이며 교원물들을 간간히 살펴보며 조그마한 수첩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어넣는 오유정의 두눈은 호수처럼 그윽해보였다. 때로는 의문되는것을 강의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보며 철민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탐구적이거든... 헌데 이제 1 중학교에서 생활하게 될텐데 구태여 적어넣지 않은들...》

이미 안중에 둔 터여서 그런지 오유정의 얼굴 표정이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다.

철민은 참관을 끝내기 바쁘게 오유정이를 교육국으로 불러 자리를 같이 했다. 도1 중학교를 참관하고난 뒤이라 그와의 담화가 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다.

《어제는 참 안됐소. 고향치녀와 식사라도 한끼 나누어야 하는건데 회의때문에 그만...》

그는 랑해를 구하고 어딘가 심각해보이는 처녀의 얼굴을 슬그머니 엿보았다.

《그래 그 문제를 좀 생각해보았소?》

《생각해보았습니다.》

처녀의 또렷한 대답에 철민은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결심이 섰단 말이지?》

《아니. 저를 그냥 설림에 있게 해주십시오.》

긴 속눈썹을 살짝이 치켜든 유정의 얼굴에는 이미 움직일수 없는 결심이 엿보였다. 철민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뜻밖인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볼수록... 설림을 뜰수 없다는 생각이...》

《그래? 유정동무, 다시 잘 생각해보오 이런 기회는 쉽지 않은 기회요. 남들은 도에 올라오지 못해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되어 그런 생각을...》

철민은 자기의 기대가 무너진듯싶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도... 제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오유정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간절한 빛이 어리었다. 그럴수록 철민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요?》

처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길을 들었다.

《그 이유는...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일없소. 어서 이야기하오.》

철민이 여유있는 표정으로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이자 오유정은 긴숨을 내긋고나서 차분히 말머리를 떴었다.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설림중학교에 배치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같은값이면 부모들이 있고 변화한 도소재지에서 교편을 잡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치한터이므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저는 우연히 서류함에서 <우리 학교 자연교실꾸리기 전망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년전 우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한 선생이 품들여 설계한것이였습니다.》

《<우리 학교 자연교실꾸리기 전망도>?》

철민은 그만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와들 놀라 유정을 바라보았다. 오유정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다.

《그렇습니다. 그 선생이 전망도를 얼마나 섬세하고 조화롭게 설계했는지 저는 그만 거기에 반

해버리고말았습니다. 후대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훌륭한 설계를 만들어낼수 없지요. 제가 자연과목을 담당해서 그 전망도에 더 마음이 끌렸는지 모릅니다.》

알고보니 학교주위에 자연교실이 이미 적지 않게 꾸려진것은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더군요. 저는 이미 퇴색해진 그 도면에 저의 량심을 비추어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던가. 이제라도 그 과제를 맡아야 하지 않는가. 도면을 작성한 그 선생이 저를 꾸짖고 무엇인가 요구하고있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신을 분발시켜 설림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 도면의 요구대로 자연교실을 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때건 그 선생을 만난다해도 부끄러움없이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유정이 눈길을 들자 김철민은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떨구어버렸다.

(그 설계도면의 작성자가 이 김철민이라는것을 처녀가 안다면, 그때 자기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도면을 버리고 설림을 떠난것을 안다면...)

오유정이가 그 선행자를 아름답게 그려보일수록 김철민은 예리한 창끝으로 가슴을 찔리운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제는 아득한 옛일로 되어 기억에서 지워져버린 일이, 그때 아무런 가책없이 설림을 떠난것이 오늘은 생활의 교차점에서 무자비하게 총화될줄은...

그때 마음이 들떠 도에 올라온 나는 그 도면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말았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떼고 올라온 그 빈 공간을 설림사람들이 여직껏 메꾸어온것이 아닌가, 오유정이 구슬땀을 바쳐 가꾸어온게 아닌가.

아직은 교수경험이 부족한 어린 처녀가 자연교실을 꾸리기에 사색과 탐구는 얼마나 깊이 했으며 걸음인들 오죽 많이 걸었겠는가.

밤잠을 잊고 뛰여다녔을 그의 땅에 젖은 모습 이 눈에 방불히 안겨온다.

그런데 자신이 기울인 그 헌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면을 작성하고 량심없이 떠나간 이 김철민이를 아름답게 추억하고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인가.

이 깨끗하고 성실한 처녀앞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때 그 도면을 버리고 쉽게 발길을 뺄수 있던가고 처녀한테서 뺨이라도 한대 맞았으면 차라리 마음편할듯싶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도1중학교를 참관하고나

서 량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자연교실을 좀 꾸려놓았다고 하여 거기에 만족하고 보다 현대적으로 꾸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시설물들과 교편물들을 보다 훌륭히 갖추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들을 당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들로 튼튼히 키워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만도 뛰어난 재능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식물표본집을 훌륭히 만들어 놓고 미래의 식물학자가 될 꿈을 안고있는 주영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주어도 척척 풀어내고 자기나름으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수학박사>혜경이, 그리고 글짓기를 잘하여 <아동문학상>을 두번이나 받은 문성이...

이들의 세별같은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나라의 수재로 키워내야 할 임무가 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산골학교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 낼 책임이 우리 교원들에게 꼭 같이 지워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창 피어나고있는 재능의 싹을 외면하고 제가 어떻게 설림을 뜰수 있습니까. 그건 교육자의 량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오늘의 참관을 통하여 저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동지, 저의 이 꿈을 깨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설림사람들과 꿋꿋이 인연을 맺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꾸는 길에서 한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심정을 리해하시겠지요?》

오유정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넘쳐났다. 그 깨끗하고 천진한 얼굴을 보기가 철민은 어쩐지 부끄럽기만 했다.

《알겠소, 알겠소.》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눈길을 떨어뜨렸다. 오유정의 말은 그대로 도안의 교육부문 사업을 책임지고 1 중학교에만 관심을 돌리고 산골군의 교육사업을 소홀히 해온 자신의 그릇된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해준것이나 다름없었다.

보석은 닻을수록 빛이 난다더니 오유정이야말로 지내볼수록 가슴속에 보배로운것을 안고 사는 처녀였다.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길에서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똑똑히 알고 아이들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깨끗하고 성실한 교육자.

그에게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으랴. 오유정이야말로 자기 할바를 알고 시대의 숨결을 안고 사는 처녀였다.

《그럼 전 오늘 떠나겠습니다.》

오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남겼다. 김철민은 문밖에까지 나와 그를 말없이 배려주었다.

《유정동무, 그때 그 도면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바로 나요.》 하고 유정에게 말해주지 못한것이 가슴을 괴롭혔다. 설림을 떠나 오늘까지 자기 만족을 느껴온 나는 내가 인생길에 남겨놓은 실책을 모르고 살아온것이 아닌가.

유정은 정문을 나서 뒤를 돌아보았다.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이 차츰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하나의 점으로 되어 아주 사라졌다.

했으나 철민의 눈에는 티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더 크게 확대되어 안겨왔다. 맞붙어오는 바람결에 땀기처럼 휘날리던 두갈래의 흰저고리 고름까지도...

처녀는 떠나갔다. 너무도 많은것을 철민에게 남겨두고...

철민은 아직도 귀뿌리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유정의 마지막말을 조용히 외워보았다.

《이제 한창 피어나고있는 재능의 싹을 남기고, 그 임무를 저버리고 제가 어떻게 설림을 뜰수 있습니까. 그건 교육자의 량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철민은 자기가 첫 교단에 섰던 때와는 판다르게 시대가 변해졌음을 새삼스레 느꼈다.

교육내용의 질적수준에서만이 아니다. 교단을 지켜가는 교육자들의 모습이 새롭게 부각되어 안겨온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미더운 교육자들, 오유정과 같이 구슬땀을 바쳐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티없이 밝은 새세대 교육자들로 하여 우리의 교단은 더욱 깨끗하고 신성해지고있었다. 이들이 지닌 무궁한 지식과 열정으로 하여 우리의 교단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단으로 젊어지고있는게 아닌가.

김철민은 기회를 보아 인차 설림땅을 찾아볼 생각을 굳히었다. 산골군 아이들속에서도 능력있는 인재를 키워낼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교수사업에 아글타글하는 오유정에게 힘이 되게 요즘 도교육국에 새로 들어온 새형의 컴퓨터도 가져다 줄겸 지금껏 산골군 학교들에 대한 관심을 적게 돌려온 자신의 지난날도 돌이켜보고싶어졌다.

그보다도 깨끗하고 열렬한 마음을 안고 나섰던 설림땅의 그 첫 교단에서부터 새롭게 인생의 자욱을 찍고싶었다. 김철민은 이제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기쁨으로 그 교단에 오르리라 마음속 결심을 다졌다.

## <추억에 남는 시>

# 증오의 불길로써

김상오

민들레 핀 논두렁가에  
날개 부러진 폭격기 한대  
그결에 마치 잘못을 사과하듯이  
코를 땅에 박고 엎드린 시체

우리 조선사람은  
죽은 사람을 나뻘 말하지 않는  
관대한 도덕이 있다  
그러나 모리스 올리센-미국비행사여  
나는 너의 시체우에  
침을 배알올테다

네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모욕한만큼  
네가 신성한  
우리의 국토를 모욕한만큼  
그만큼 나는 너를 모욕할테다

네가 이미 아픈 감각을 모른다는것을  
나는 결코 허락치 않을테다  
너의 폭탄과 총알에 맞아 쓰러진  
모든 조선사람의 아픔이  
너의 더러운 시체우에 백배로 해서 있으라!

쓰러진 조선사람들의  
어머니와 안해와 아들의 눈물이  
너의 어머니와 안해와 아들에게  
백배로 해서 있으라!

지구의 서반구에 있는  
너의 어머니와 안해로 하여금  
태평양 건너 동반구  
이국땅에 누워있는 너의 시체우에  
까마귀떼가 내려앉아있음을 생각해 하라!

너의 아들과 딸로 하여금  
자기의 아버지가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맞아죽은 강도배였음을  
두고두고 얼굴 붉어지게 하라!

너의 굳어진 몸뚱이에서  
이미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것을  
나는 허락치 않을테다  
너희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모든 조선사람의 피가  
백배로 해서 너의 몸에서 흘러라!

모리스 올리센-미국비행사여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치 않을테다  
끝없는 증오의 불길로써  
너의 시체를 불사를테다!

주체39(1950)년

# 나의 따발총

안룡만

따바리 불타는 총자루  
앞세워 승승장구  
38도선을 넘어  
벌써 아득한 천리길

나의 따발총이여  
더욱게 단 총구멍  
식혀줄 사이도 없구나

항복하지 않는 미제원췌에게  
복수의 섬멸전에 올라  
싸우는 날과 날

놈들을 물리쳐

신생의 기쁨에 안기여오는  
해방된 마을과 거리  
동트는 아침  
미제침략자들을 무찔러  
저무는 저녁에  
반짝이는 별빛  
맞아주는 어느 지역-

나의 따바리여  
불길을 뿜어라, 뿜어라  
분노의 불길  
증오의 화염을!

화점으로 육박하는

백병전의 돌격을 앞두고  
원쑤를 겨누어  
보내는 총탄, 총탄...  
인민의 이름으로 한알  
조국의 이름으로 또 한알  
원쑤에게 복수의 불길 뿜어라

놈들의 거점 대전성새  
짓부시고 다시 전진  
눈앞에 열리는  
무연한 벌판  
호남평야 넓은 벌이어

이곳은 내 사랑하는 동지  
우리 당 대렬의  
용감했던 동무의 요람터  
야산지대 낮은 구름  
잔솔밭 우거진 언덕을 타고  
유격대에서 싸운 청년  
진지를 옮겨 태백산준령  
떡갈나무 드리운 아지트에서  
우리의 진격을 맞아주었다

굳은 악수와 함께  
다시 총자루 어깨에 베고  
원쑤에게서 엠원총 빼앗은  
이야기 자랑하며  
행군의 길 너는 나에게  
락동강줄기 흘러내린  
어느 자그만 마을이  
네 요람이랬다

이 나라 용감한  
유격대원이던 그가  
몇날전의 돌격전에 앞장서

나아가다 쓰러질 때  
마지막 부르짖은 목소리

-김일성장군님이시여  
저는 끝까지  
장군님께 충성하렵니다...  
마음의 태양으로  
우러러 그리웁던 그 이름  
위대한 수령님을 불렀더니라

나의 따발총아  
사랑하는 동지의 이름으로  
또 한알  
원쑤향해 퍼부어라  
불길을 뿜어라

별빛 총총한 야음을 타서  
포북전진의 길  
풀향기 그윽히 풍겨오는  
산등성이 잔디밭  
먼동이 트면 이슬도 반짝!  
동무의 추억에 빛나고

바라보면 저 해안선  
눈앞에 다가서는  
우리 나라 남쪽끝  
수평선이여  
나의 따바리! 가자!  
대구, 진주를 거쳐  
려수, 목포, 부산으로  
아니 제주도 끝까지  
가자, 나의 따바리!

주체39(1950)년

## 〈가사〉

# 포차운전사와 샘물처녀

안근배

굽이굽이 령을 넘는 병사들 위해  
처녀는 산기슭에 샘터를 꾸렸네  
새로 생긴 샘물터에 포차를 세운  
젊은 병사 땀 흘리며 다가왔다네

생긋 웃는 그 처녀 물을 떠주는데  
어디서 보았을가 낮익은 얼굴  
눈내린 령길우에 모래를 뿌려준  
이름모를 고마운 그 처녀였네

샘물속에 웃고있는 귀여운 처녀  
병사는 이름을 물어보았네  
처녀는 부끄러워 말못하는데  
병사는 포차에 다시 올랐네

-고맙소 샘물처녀  
-또 오세요 샘물은 마르지 않을거예요

포차는 썩썩 령넘어 가고  
샘물처녀 손들어 바래주었네

## 니콜라이 와쉴리에비치 고골리

(1809년~1852년)

고골리는 로씨야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이다.

뿌슈킨이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압제를 반대하고 인간성을 깨우치는 문학을 창조하였다면 고골리는 거기에 랭혹한 현실생활의 객관적인 묘사, 날카로운 풍자적 묘사수법을 더 첨가하였다. 고골리의 문학은 푸르케네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샬되코브셰드린, 체호프의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골리는 우크라이나 뿔따와현 미르고로드군 쏘로친마을의 소지주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설, 옛말, 연극을 즐겼으며 중학시절부터 극놀이에 참가하였다. 소로씨야의 랑만적인 환경에서 자란 그는 공상이 많았다.

부친이 사망한 다음 생활을 개척하기 위하여 17살때 수도 뻬쩨르부르그에 가서 배우직업을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하고 하급관리 등 여러가지 직업에 전전하다가 창작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신경질적이고 병약한 그는 가난속에서 헤매다가 1831년에 잡지 《조국의 기록》에 《지간까근교의 야화》를 발표하였는데 성공하였다.

제2부를 다음해에 발표하였다. 이 야화는 우크라이나인민의 유쾌한 민화를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랑만주의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날카롭고 건전한 유쾌한 웃음, 랑만적이면서도 진실한 생활감정 등으로 해서 이 야화는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풍자가의 면모를 뚜렷이 나타내었다.

이 소설은 뿌슈킨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고골리는 그의 직접적인 지도도 받게 되었다.

고골리는 자기의 문학을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따뜻한 남로씨야인 자기 고향으로 갔으나 고향은 벌써 옛날의 그것이 아니었다. 시대가 변했을 뿐 아니라 고골리 자신의 안목이 높아졌던 것이다.

야화와 같은 목가적인 이야기, 유쾌한 웃음을 더는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무위도식의 리기적인 저속한 생활, 야박한 인심, 생활의 추악한 모습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드러났다. 고골리는 이러한 추한 물골을 고향의 지명을 따서 《미르고로드》(1835)라는 중편소설에 묘사하였다. 여기에는 《파라스 불리바》, 《위》, 《고풍의 지주들》, 《두 이란이 싸운 이야기》 등 4개의 중편소설이 들어있다. 고골리는 《파라스 불리바》에서 조국

과 신앙의 자유, 명예를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우크라이나카자크들의 영웅적 과거(16세기)를 랑만적으로 묘사하고 그 후손들인 오늘의 카자크들의 산 총장과도 같은 추악한 물골을 다른 세편의 이야기에서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고풍의 지주인 붉은 부부는 일생동안 먹는 것이 일이며 먹다가 죽었다. 이완 이와노비치와 이완 니끼포로비치는 절친한 친구였으나 한마디 말에 모욕을 느끼고 10여년 세월을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으로 날을 보낸다. 로씨야농노제도는 그 주인인 농노주들의 정신적 타락으로 해서 사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회생활을 반영한 중편소설 《아라메스키》에는 《네바따통로》, 《초상화》, 《광인일기》, 《근》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허영과 위선, 환상, 사기협잡이 랑무하는 수도생활의 추한 면모가 폭로되어 있다. 이러한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고골리는 지방관료들의 비행을 풍자한 희극 《검찰관》(1835)을 썼다. 검찰관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시장 이하 관사, 시학관, 우편국장, 자선원원장 등 관료들은 저들의 공금횡령, 퇴물행위, 직권람용과 직무태만 등 비행을 감추기 위하여 동분서주한다.

도박으로 돈을 잃고 러관비를 물지 못한 수도의 관리 홀레스따코프를 검찰관으로 잘못 알고 그를 시장의 집으로 청해다가 저마끔 퇴물을 먹고 동료들을 고자질한다. 시장은 가짜검찰관을 자기 딸과 약혼시킴으로써 기고만장한다. 수도의 하급관리인 가짜검찰관은 좋은 판을 만났다고 미친놈처럼 자화자찬하며 파렴치하게 퇴물을 굶어모은다.

가짜검찰관이 떠난 다음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가 가짜라는 것이 폭로되고 진짜검찰관이 도착했다는 헌병의 통고로 이 도시의 관료집단은 아연실색해진다. 이 무자비한 풍자로 해서 고골리는 로씨야관료들과 통치계급의 비난을 견딜 수 없어 외국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빠리 로마에서 살면서 몇번 조국에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세월을 해외에서 살면서 창작을 계속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중편소설 《외투》(1842)를 썼는데 그는 이 소설에서 또다시



수도의 하급관리 아까끼 아까끼에위치의 가련한  
몰골과 비참한 죽음을 그렸다. 관료제도로 하여  
정신적불구자로 된 주인공은 중년이 되었으나 공  
문을 정서하는 재간밖에 가지지 못했다.

다 낡아버린 외투를 새 외투로 갈기 위해서 그  
는 눈물겨운 절약을 했는데 새 외투를 입고나간  
그날밤에 강도를 만나 빼앗기고 죽는다.

고골리는 인간을 인간이하로 퇴화시킨 관료제  
도를 비판한 동시에 하급관리들 자신이 인간의 존  
엄을 지켜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 장편소설  
《죽은 녀》을 쓰는 과정은 그의 정신적변명과 동  
요, 육체적병이 겹친 시기였다. 그는 이러한 동요  
의 시기에 《작가참회》(1847)라는 글을 써서  
반동적인 현실과의 타협을 보여주었다. 그렇기때  
문에 1842년에 발표한 《죽은 녀》 1부에서는 종  
래의 자기의 사상적립장은 지켰으나 제2부를 쓰  
는 과정에는 벨린스키의 비판편지와 자기의 량심  
적가책, 사상적동요와 정신적인 발작의 모순속에서  
썼다가 태우고 다시 쓰면서 끝내 완성하지 못  
하였다. 장편소설 《죽은 녀》 1부(1842)에는 30  
대의 중년사나이가 죽은 농노를 사기 위하여 지  
주들을 찾아다닌다. 작가는 자기의 주인공 치치  
꼬브를 새로 자라나는 자본가로 묘사하였다.

이 치치꼬브의 농노매매행각과정을 통해서 로  
씨야농노주의 여러가지 류형을 소개하였다.

지주 마닐로브는 무능한 공상가이며 소지주 쓰  
바께비치는 무서운 욕심꾸러기이다. 소녀지주 고

로보치카는 암둔한 녀자이며 노즈드료브는 건달  
이며 망나니이다.

대지주 뿔류친은 너무도 린색하여 가족들을 다  
죽게 하였을뿐아니라 자신도 거지꼴을 하고있다.  
그런데 그의 창고에는 곡식과 천이 썩고있다.  
치치꼬브는 지주들보다는 능력이 있으나 돈을 모  
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략탈  
자이며 잔인한자이고 비렬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도 성공하지는 못한다. 제2부에서도  
치치꼬브의 행각이 계속되고 제1부에서와 같은  
지주 빼뚜호, 홀로부예브, 쉰제프니꼬브 등이 등  
장한다. 그러나 다른 형의 지주, 즉 유럽식농장경  
리를 본따는 꼬쉬까료브와 로씨야식으로 경리를  
잘하는 꼬스판조글로가 등장한다. 고골리는 리상  
적인 지주를 묘사하였을뿐아니라 리상적인 자본  
가 무라조브, 현명한 도지사 묘사하였다. 이러  
한 개성적인 인물의 묘사는 작가의 사상적동요의  
산물이다.

《죽은 녀》의 기본사상은 로씨야농노주들은 자  
기 시대를 다 산 산 송장들이라는것이다. 고골리  
는 사멸해가는 농노주들의 성격을 날카로운 풍자  
로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자기의 현실비판  
적, 엄격한 사실주의원칙과 모순되는 비현실적인  
인물들을 그리는 모순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농노제도의 전체정치의 필연적인 멸망을 그린 그  
의 문학의 역사적의의는 여전히 큰것이다.